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
-현대 예술의 거장들-



소속 학과	항공서비스학전공
학번	91901942
이름	윤진희

JOONGBU UNIVERSITY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비교과 대회들에 큰 관심이 없었고 참여한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할 이 교과목을 들으면서 이번년도가 대학생으로서는 마지막 생활인데 대학생인 지금 제가 학교에서만 해볼 수 있는 여러 활동들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마지막 학교생활을 평생 기억에 남게 마무리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이 에세이에 참여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4년 동안 여러 개의 교양과목을 들으면서 모든 과목들이 저에게 각자 다른 도움을 주었지만, 그중에서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시켜준 교양과목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2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계획을 가진 다른 학우들, 후배님들께 이 교양과목을 꼭 추천해주고 싶어 에세이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양과목은 바로 **‘현대 예술의 거장들’**이라는 **원격과목**입니다. 저를 성장시켜준 여러 강의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제가 이 교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 강의를 듣는 시간은 그저 어려운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객실 승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는 취업을 위해 언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중국어와 영어 공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중국어 중급, 교양기초 중국어 등 제 지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강의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또한, 면접이 중요한 직업으로서 면접과 관련된 수업들을 진행하는 전공 수업들 또한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들입니다. 하지만, 즐겁게 들었던 이런 강의들이 어느 순간 ‘나를 위해 듣는다는 생각보다는 어쩔 수 없이 듣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저에게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현대 예술의 거장들’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오늘은 어떤 거장에 대해 배우는지 강의시간이 기다려지고,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의 농담들과 거장들의 일생을 공부하는 것에 재미있어하며 거장들이 가진 신념과 명언들에 저를 대입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제 모습을 보고 이번 에세이 대회에서 이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교양과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전민석’ 교수님으로 ‘중부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만화 애니메이션학전공’ 교수님이십니다. ‘만화 애니메이션학전공’은 크게 만화와 애니메이션, 두 가지 틀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만화보다는 애니메이션 쪽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사실 저는 전공이 ‘항공서비스’이다 보니 처음 들어본 교수님이셔서 과연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과 잘 맞을 수 있을지 걱정을 갖고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예술의 거장들’ 은 패션, 영화, 음악, 건축, 디자인, 회화 등등 각종 현대 예술 분야의 거장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삶, 업적, 일생 등을 돌아봄으로써 각 예술 분야의 특징과 행태를 파악하고, 인문학적 지식을 넓히며, 거장들의 삶과 자취 속에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입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소개해드리면 ‘워인잔’을 읽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100%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수업이며, LMS에 올라간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수님께서 매주 직접 제작하신 PPT와 이미지(예를 들면, 그 거장이 직접 그린 그림, 직접 지은 건축물, 거장과 관련 있는 인물들의 사진 등), 그 거장과 관련된 특별한 동영상 (예를 들면, 작곡가의 연주 영상) 등의 참고자료를 이용한 이론 강의로 진행되며, 매주 현대 예술 각 분야의 거장 한 명을 탐구하는 강의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위해 ‘현대 예술의 거장들 시리즈- 율유문화사’ 라는 책을 대표적으로 많이 참고하셨다고 소개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국제캠퍼스, 창의 캠퍼스 도서관에 구비가 되어있다고 하셔서 어떤 책인지 궁금한 마음에 저도 실제로 빌려서 ‘유명한 발레리나 니진스키’에 대해 읽어보았습니다. 2023년 1학기 제가 현대 예술의 거장에서 배웠던 거장들에는 코코 샤넬, 빌 에반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에드워드 호퍼, 토스가니니, 알렉산더 맥퀸, 헬무트 뉴튼, 구스타프 말러, 알프레드 히치콕, 장미셸 바스키아, 피나 바우쉬입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유명한 거장들도 있지만, 이 강의를 통해 새로 알게 된 거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제가 성장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자존감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4학년이 되고 점차 취업이라는 단어가 저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높았던 자존감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불안함이 자존감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1년 휴학을 해서 다른 동기들은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자신의 꿈들과 가까워져 가는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지금 제 모습이 한심해 보이고 ‘나는 할 수 있을거야’ 라고만 생각했던 긍정적인 생각들과 자존감이 한 순간에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 강의를 통해 ‘코코 샤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코 샤넬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샤넬’을 만든 거장입니다. 코코 샤넬이 남긴 말들 중에서 제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자존감을 다시 올려준 코코 샤넬의 명언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이 두렵다. 왜냐하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점은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는데도 모두

감추려고만 한다. 단점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된다.’, ‘무미건조한 단조로움에 할애할 시간은 없다. 일할 시간과 사랑할 시간을 빼고 나면 다른 것을 할 시간은 없다.’ 이 세 가지 명언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바라는 빨간 날인 일요일을 일을 안 해서 두렵다고 얘기하는 샤넬, 단점을 감추고 장점만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반면에 단점이 매력이 될 수도 있으며 지혜롭게 활용하자고 얘기하는 샤넬, 마지막으로 내가 열정을 쏟을 곳을 찾고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 때문에서든지 무기력해 하지 말고 열심히 살자고 조언하는 샤넬의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동기들보다 일 년 느린 것을 그저 단점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코코 샤넬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일 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외활동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력을 쌓았던 제 자신이 보였고 내가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다 뚫고 승무원이라는 꿈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쓸데없는 근심 때문에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고, 쉬는 날을 좋아하면서 꼭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제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진짜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었구나. 나는 그냥 말로만 불안해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며 떨어졌던 자존감과 더불어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코코 샤넬의 명언들에 빚대어 돌이켜보니 내가 지금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갯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며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얘기에 자주 흔들리던 저를 제 신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변화시켜준 거장은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입니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는 유명한 지휘자이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근대 건축가입니다. 토스카니니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지휘자로서 성공을 한 거장입니다. 토스카니니는 특출한 재능이 있음에도 완벽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자신만의 신념이 확고하여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절대 흔들리는 일이 없어 같은 팀의 연주자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신념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저의 성향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사소한 부분들까지 다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팀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혹여, 제 결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 두려워 제 신념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무작정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토스카니니의 삶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평생을 살아간 토스카니니가 멋있게 느껴졌고 이런 토스카니니를 본받아 저도 잘못된 신념이 아니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가치관을 지키며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리더 또는 팀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로 남아 있는 거장입니다. 그가 했던 말 중 저를 변화시켰던 말은 ‘나에게 대표작을 물어보면 다음에 만들 작품일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그것을 실현시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마지막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명언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대표작을 물어본다면 다음에 만들 작품일 것이다.’라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말에는 ‘나는 계속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작품이 나의 최고가 아닐 것이다. 지금 내가 만든 이 작품이 최고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나는 더 최고의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내 대표작은 다음에 만들 작품이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을지,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부담감이 크지는 않았을지 하는 궁금증을 갖고 생각해 보니 그런 말을 뱉음으로써 그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을 거고 긍정적인 프랭크 로이드의 생각들과 자존감이 그 말을 실천시켜주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프랭크 로이드처럼 낮은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가장 큰 목표를 얘기하면서 어떠한 일에서든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가치관이 생겼고 제 좌우명이 된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그것을 실현시킨다.’ 이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저에 대한 믿음 또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프랭크 로이드가 저에게 ‘너 자신을 믿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봐. 그럼 너에 대한 그 믿음이 너의 노력을 알아차려주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야.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하자, 파이팅!’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거장들의 여러 명언들이 최근 취업 때문에 힘들고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에게 응원과 위로를 해주는 말들이 되었고 그로 인해 저 또한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 학기에 ‘현대 예술의 거장들’

교과목을 듣지 않았더라면, 과연 저는 다시 자존감을 찾고 근심 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온 교과목이었고, 좋은 성적을 떠나서 저처럼 지금 대학 생활에 위로를 받고 싶고 나를 돌아보면서 성장이 되는 강의를 듣고 싶은 학우들이 있다면 꼭 이 강의를 통해 여러 거장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성장하는 대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 티칭 포트폴리오

2023. 06.



학생성장교양학부

교과목명	현대예술의 거장들
교수자명	전민석
소속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I 교수자 개요

1. 교육 및 연구경력, 주요 담당 교과목

가. 교수자 소개

성명	전민석	전공분야	애니메이션
소속학부	문화콘텐츠학부	학과(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주요 담당교과	3D일러스트 제작기법, 졸업작품연구, 만화애니메이션제작기법 등		

나. 주요 교과목 강의경력 (최근 3년간)

기간(연도)	과목명	대상 학년	교과 개요
2023	만화애니메이션기초	1	2D, 3D 애니메이션 기초과정
	졸업작품연구	4	4학년 졸업작품제작
2022	만화애니메이션 제작기법1, 2	2	3D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웹툰작법 및 애니작화연구	2	3D모델링, 라이팅, 텍스처링
2021	3D일러스트제작기법	2	3D모델링, 라이팅, 텍스처링

II 교과목 개요 및 내용

1. 교과목 강의 요약

코코 샤넬, 빌 에반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등 음악, 미술, 무용, 사진, 건축, 영화 등 현대, 여러 예술 분야에서 활약한 거장들의 삶과 업적, 인생관, 가치관 등을 알아보고 공부하며 학생들의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그 거장들의 일생에 거쳐 본받을 만한 부분들을 학생들의 삶에 적용시켜 앞으로 진취적이고 올바른 삶을 사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2. 교과목 목표 및 교수전략

목표 : 패션, 영화, 음악, 건축, 디자인, 회화 등등 각종 현대 예술 분야의 거장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삶, 업적, 인생 등을 돌아봄으로써 각 예술 분야의 특징과 행태를 파악하고, 인문학적 지식을 넓히며, 거장들의 삶과 자취 속에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전략 : 매주 한 명씩의 거장을 선택해서 그들의 삶과 업적, 생각 등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격 강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LMS로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PPT중심의 설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각 거장의 작품과 관련된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을 첨부하여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바쁜 것을 알기에 이 수업에서 너무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위인전기를 읽거나 보는 것처럼 편하게 수업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 교과목 과제 및 평가 방법

출석은 LMS시스템에서 학생들이 수강을 한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입력되어 카운트 되었으며, 성적평가는 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적은 출석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참여도 20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간, 기말고사는 온라인 시험으로, LMS 시스템에 시험 문제를 올려두면 정해진 날짜에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들어와 45분동안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수업까지는 과제가 없었으나, 이번 23학년도 1학기 수업에서는 한 번 과제가 나왔으며, 수업 시간에 배운 거장 이외에 한 명을 골라 조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III 교과목 성과

1. 이것만큼은 학생이 본 교과목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것

다양한 거장들의 삶과 업적을 되돌아보며 학생들이 그곳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또는 지금 당장 삶에 있어 힘과 위로, 격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노력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거장들과 같이 학생들도 비록 지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괜찮다는 위로와 할 수 있다는 격려를 받고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수업의 목표는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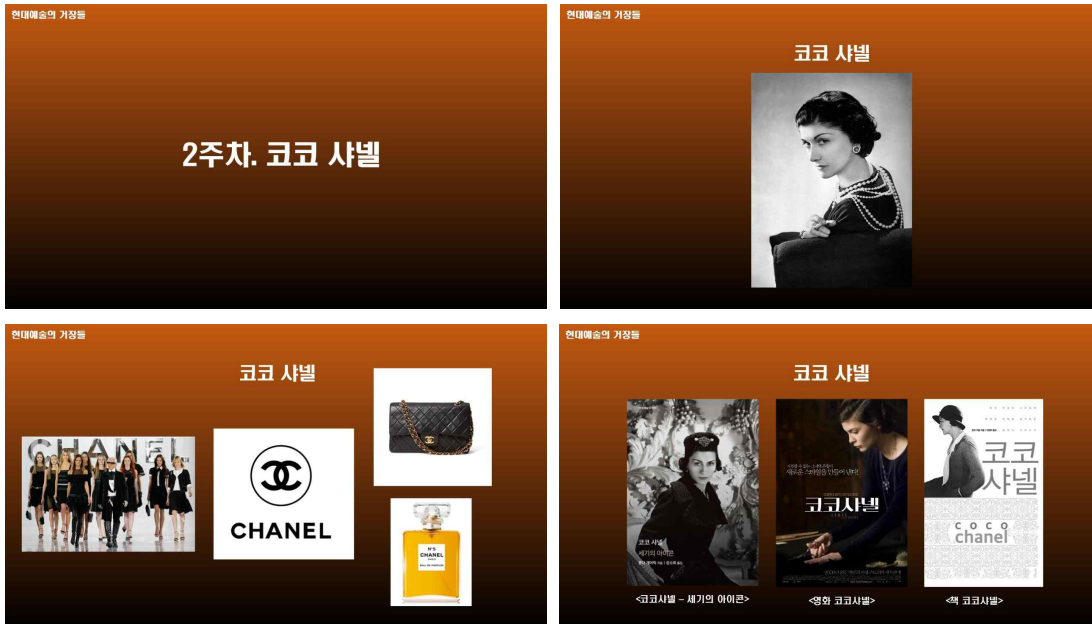
또한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거장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각 거장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전부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는 절대 없지만, 적어도 수업에서 다른 누군가를 들었을 때, 학생들이 “어! 나 그 사람 알아. ~ 한 사람이지!”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견문이 넓혀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2. 교수님이 생각하는 해당 수업의 매력

우선 원격수업이어서 학생들이 대면으로 수업을 안해도 되고, 기간 안에 원하는 때에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이 수업으로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최대한 쉽게, 마치 이야기책을 읽어주듯이 편하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IV 기타 자료

2주차 <코코샤넬> 수업 PPT중 일부



코코 샤넬 [August 19, 1883 ~ January 10, 1971]

20세기의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한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간단하고 입기 편한 옷을 모토로 하는 디자인 활동을 시작하여 답답한 속옷이나 장식성이 많은 옷 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는 실마리를 만들었다. 간단하고 입기 편하며 활동적이고 여성미가 넘치는 샤넬 스타일은, 유행의 변천 속에서도 별로 변함이 없이 오늘날에도 애용된다.

- 두산백과사전

코코 샤넬 [August 19, 1883 ~ January 10, 1971]

샤넬은 최초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당당하게 안경을 쓰고, 심지어 (농사일의 상징으로 여겨져 경멸 받았던)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자랑스럽게 내보인 여성 중 하나였다. [나중에 샤넬은 피부에 해로운 자외선에 관해 알게 된 후, 햇빛을 주의하라고 충고했고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간 로션을 개발했다.]

- <코코샤넬 - 세기의 아이콘> 중에서



영양 <코코 샤넬> 중에서

샤넬의 일생

1. 열 두 살에 모든 것을 빼앗긴 아이

- 1883년 8월 19일 프랑스의 소쉬르에서 출생
- 아버지 알베르 샤넬, 어머니 잔 드블
- 6남매 중 둘째.
- 아버지 알베르는 개장나니로, 변변한 직업도 없이 훔치면 집을 나가고 사고만 치고 다님
- 어머니 잔 드블 샤넬은 그런 문제 남편만 기다리며 갖은 고생을 하다가 1895년 2월 16일 폐부종으로 사망. 이 때 33세



영양 <코코 샤넬> 중에서

[부록1] 강의계획서

수업 계획서

(2023학년도 1 학기)

교과목명	현대예술의거장들	교과목코드	11784-01	학점(시수)	2 (2 / 0)	
담당교수명	전민석	소속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전	연구실	031-8075-1713	
상담기간	화 10AM ~ 1PM	수업시간	일(3,4)	이수구분	자유교양	
대학핵심역량	공동핵심역량					
	인성	의사소통 및대인관	글로벌마 인드	자기개발	고차적사 고	정보및기 술활용
			40	40	20	
핵심역량강화를 위한지도방법	유명하나 아직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세계 현대 예술 거장들의 삶과 업적을 배움으로써 논리적,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고 기본적인 예술 상식,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다양한 예술 분야에의 입문과 수용 등의 성취를 이룬다.					

1. 교과목개요 및 목표

패션, 영화, 음악, 건축, 디자인, 회화 등등 각종 현대 예술 분야의 거장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삶, 업적, 인생 등을 돌아봄으로써 각 예술 분야의 특징과 행태를 파악하고, 인문학적 지식을 넓히며, 거장들의 삶과 자취 속에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업운영방법

교수학습 유형	비율
강의	100%
합 계	100%

교수학습 방법	비율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20%
온라인강의	80%
합 계	100%

수업활동 및 수업 방법 추가 설명	이 수업은 100%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수업이며, LMS에 올라간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PPT와 이미지, 동영상 등의 참고자료를 이용한 이론 강의로 진행되며, 매주 현대 예술
--------------------	---

3. 과제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다. 시험문제는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출제될 것이며, 레포트 제출이 있을 수도 있다.

4.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비율
출석	20%
수시	30%
기말시험	30%

참여도	20%
합 계	100%

5. 교재 및 참고자료

주 교 재	현대예술의 거장들 시리즈 - 을유문화사
참고자료	

6. 참고사항

--

<p><장애대학생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 : 강의대필/이동지원 - 시각장애 : 학습튜터링 및 활동보조 지원 - 청각장애 : 학습튜터링 및 활동보조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등 : 강의대필/학습튜터링 지원 - 공통사항 : 수업조정에 관한 안내 지원, 시험 평가조정 지원,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상담 및 대여, 학습자료 상담 및 제작지원, 외국어학습 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등 <p>장애학생지원센터 (충청캠퍼스 041.750.6327 / 고양캠퍼스 031.8075.1022,1026)</p>

7. 수업운영계획

주 차	강 의 주 제	과제	수업방법	교육 기자재
	수업내용			
1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수업소개			
2	코코사벨 - 패션의 아이콘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패션계의 거장 코코사벨의 인생과 업적			
3	빌 에반스 - 재즈의 초상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인생과 업적			
4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20세기 건축의 연금술사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인생과 업적			
5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다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인생과 업적			
6	에드워드 호퍼 - 빛을 그린 사실주의 화가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인생과 업적			
7	토스카니니 - 대 지휘자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인생과 업적			
8	중간고사		온라인 시험	
	중간고사			
9	알렉산더 맥퀸 - 광기와 매혹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의 인생과 업적			
10	헬무트 뉴튼 - 관음과 욕망의 연금술사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사진가 헬무트 뉴튼의 인생과 업적			
11	구스타프 말러 - 위대한 세기말의 거장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인생과 업적			
12	알프레드 히치콕 - 서스펜스의 거장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영화감독 히치콕의 인생과 업적			
13	장 미셸 바스키아 - 낙서를 예술로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의 인생과 업적			
14	피나 바우쉬 - 두려움에 맞선 춤사위		온라인 영상	PPT, 참고자료
	무용가 피나 바우쉬의 인생과 업적			
15	기말고사, 월트 디즈니		온라인 시험, 영상	PPT, 참고자료
	기말고사 및 월트 디즈니의 인생과 업적			

여름의 초입에서 얻은 결실

92311091 이서연

무더운 여름, 녹음이 절실한 요즈음. 나는 아메리카노를 타서 얼음 서너 개를 넣고 텀블러에 얼음 부딪히는 소리를 즐겼다. 기숙사 의자에 반쯤 눕다시피 기대 부지런히 땀을 닦아내면서 말이다. 있느니만 못한, 미지근한 여름 바람과 띄약별은 나를 항상 고통스럽게 한다.

나는 더위를 많이 탄다.

그런 나에게 유독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 신청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수업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이동현'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키움과 나눔'이라는 교양 수업이다. 이 수업은 평이 좋고, 이미 많은 학생이 선호하는 강의로 유명하다. 나는 운 좋게도 수강 신청에 성공하였는데, 그런 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정도이다. 이 수업은 이론 공부를 주로 하는 일반적인 교양 수업과는 다르게, 직접 농작물을 키우고 재배하는 활동 중심형 수업이라는 차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첫 수업 시간에 각 조를 나누고, 조마다 각기 다른 씨앗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키우고 관찰 일지를 쓰는 것이 과제인 수업이다. 수업은 학교 내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진행되는데, 장소가 장소이니 비가 올 때는 강의실에서 영화를 보는 것으로 대체되곤 한다. 한 마디로 정말 꿈에서만 그리던 수업이다!

그렇다고 그게 단순히 농땡이를 부릴 수 있는 수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날이 더워짐에 따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도 많아지고, 그것들과 고군분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기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 수업을 알고, 수강을 하길 바란다. 또한 내가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 내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수업이 바로 앞서 말한 '키움과 나눔'이기 때문에, 해당 과목에 대한 에세이를 쓰기로 정하였다.

이제 나는 나의 에세이를 통해, 내가 경험하고 느낀 소중한 경험과 성장을 본격적으로 공유하려고 한다.

나는 '키움과 나눔' 수업을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동시에 나 스스로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성찰할 수 있었다.

과거, 나에게서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다. 바로 평소에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버릇이다. 실제로 몇 번의 요행으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은 적이 있었기에, 그러한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다. 머리로는 요행은 요행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내심 가슴 한편에서 '에이, 이번에도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잡혀 있었다. 이는 내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런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은 스트레스를 덜 받지만,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점이 되곤 하였다.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 찰나. '키움과 나눔' 수업을 통해 나는 인생의 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키움과 나눔' 수업 시간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 내면의 작은 파동을 느꼈다. 우리 조는 '적환무'의 씨앗을 받아 심었고, 나날이 자라고 성장하는 적환무를 보면서 나는 크나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적환무는 겨우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모습을 달리하곤 하였는데, 그것이 못내 궁금하여 매주 1번 있는 수업이 기다려지기까지 하였다.

한번은 텃밭을 가꾸다 동화책에서 나올 법한, 작고 빨간 무당벌레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괜스레 마음

이 동글동글해져서 와아, 하고 감탄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실 나는 벌레를 아주 싫어해서 꺽충꺽충 넘나드는 이를 모를 검은 벌레, 꿈틀꿈틀 기어 나오는 지렁이 등을 보면 아주 까무러쳤다. 그러나 조그맣고 귀여운 무당벌레를 본 순간, 나는 텃밭을 가꾸어 나가는 시간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나의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수업에 대해 언급한 것과 같이, '키움과 나눔'의 과제는 성찰 일지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제를 보다 수월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날그날의 활동을 꾸준히 기록해둬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귀찮음에 항상 다음으로 미뤄두곤 하였는데, 문득 오늘의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져 일기를 쓰려고 마음먹었다. 처음엔 종이 다이어리에 직접 펜으로 적어 나갈까 하다, 편의성을 생각해 스마트폰의 일기 앱을 활용하였다. 나는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감정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보다 더 명확하고 간결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성찰일지 과제가 기록의 계기가 된 만큼, 수업이 있는 날에는 그날의 활동을 잘 정리해두고, 다음 시간에 할 일을 역시 정리하곤 하였다.

텃밭에 찾아갈 때면 어김없이 자라난 적환무가 나를 맞이한다. 어떠한 농작물이든 수확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임을, 나는 그때 새삼 깨달았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인지, 우리 조는 가장 먼저 농작물을 수확하였고, 공을 들인 만큼 적환무가 잘 자라 뿌듯하였다. 내려찍는 태양 아래 묵묵히 잡초를 뽑아내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수확의 순간은 언제나 가슴 설레는 법이다. 적환무는 맛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눈을 즐겁게 한다. 언젠가 텃밭에서 발견한 무당벌레처럼 작고, 동그랗고, 양종맛으면서도 새빨간 색을 가진 적환무. 교수님께서 수확한 농작물은 본가에 가져가도 된다고 하셔서 우리 조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적환무를 나눠 가져갔다. 내가 직접 수확한 적환무로 어떤 요리를 할지 상상해보는 것은, 상상만 해도 황홀하기 그지 없었다. 나는 그것을 기숙사에서 며칠 잘 보관하다가, 목요일 저녁에 본가로 가져갔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건넨 적환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다. 나의 고질적인 문제인 끈기 부족으로 인해, 식물을 키우기는커녕 죽이지나 않았으면 다행으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증명하듯이 여태 식물을 키우는 것에 성공한 역사가 거의 없다) 어쨌거나 부모님의 그러한 반응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더 재미있었고, 나의 첫 재배의 기쁨을 더욱 고조시켰다. 부모님은 이내 곧, 나의 수확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해주셨다.

아직도 잊지 못할 기억이다. 어쩌면 나의 고질적인 문제인 '끈기 부족', 그리고 노력이 곧 결과의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요행만을 바라던 버릇'이 해결된 역사의 한 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때때로, 아니, 거의 대부분.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의 초입에서 나는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럴 때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이라는 결실을 맛았던, 지금 이 시기를 떠올리려고 한다. 한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는가? 텃밭을 가꾸는 것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나지만, 성공적으로 수확을 마친 것처럼 앞으로도 힘껏 도전해나갈 것이다. 푸르게 우거진 녹색 자연을 볼 때마다 이 시기를 추억하고 싶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깨달음과 결실을 얻었던 순간. 무더운 날씨에, 오락가락하는 일교차 속에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보는 법과 같은 것들.

이제 나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삶에 임할 것이며, 이어진 결과가 어떠한 거든 감히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시는 시원한 음료 한잔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를테면, 내용물을 보기만 해도 혀가 시린 시원한 아메리카노 같은 것 말이다. 나는 이제 그만 이 글을 마무리하고, 기숙사 의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덧, 그 존재조차 몰랐던 학교 속 작은 텃밭에 대하여.

우리 학교 안에는 작은 텃밭이 하나 있다. 셔틀 버스가 있는 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보이는 작은 텃밭.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셔틀 버스를 이용하곤 하였는데, 어째서 '키움과 나눔' 수업을 듣기 전까진 보지 못 한 것일까? 인식하지 못하였을 땐 그저 셔틀 버스만 눈에 들어왔는데, 한번 인식하고 나니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간다. 셔틀 버스를 탈 때면 안에서 힐끗거리면서 텃밭을 보려 하지만, 생각처럼 만족스럽진 않다. 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버스의 옆면일 뿐. 결국 포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텃밭의 모습은 계속해서 마음에 밝힌다.

어쩌면 '키움과 나눔' 수업으로 인해, 내가 인식하고 사랑하는 공간이 넓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

끝.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이름	박예현	학년	3학년
학번	92110538	연락처	010-5851-5659
학과	간호학과	캠퍼스	국제캠퍼스
제목	心	교과목	키움과 나눔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p>나를 성장시킨 교양 과목으로 내게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었던 '키움과 나눔'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과목은 자유교양으로 2학점 수업이었다. 이 과목은 중부대학교에 입학한 2021년 1학기에 내가 첫 교양으로 선택한 수업이었다. 그때 당시 교수님께서서는 환경조경학전공 소속, 신병철 교수님이셨고 한창 코로나 19가 기승하던 시기여서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이었다. 교수님께서서는 매 수업마다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를 준비해주시고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경작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 또한 최대한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셨던 교수님이라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시다. '키움과 나눔' 수업계획서의 교과목 정보에서 수업 개요 및 목표 두 가지를 보면, 첫째, "텃밭 경작 교육으로 기존의 타율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능동적인 열린 체험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아성찰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수반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둘째, "노작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함께 식물을 재배하면서 소통, 협력, 책임의 정신을 기른다." 이다. 수업계획서의 내용을 이번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를 작성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나는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목표를 성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매력적인 교양인 '키움과 나눔'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p>		
2) 해당 교과목 선정 이유	<p>과목 '키움과 나눔'이 나에게 특별한 이유는 고등학교처럼 짜여진 시간표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대학에 첫 입학해서 자유교양, 기초교양 등 이수구분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스스로 정보를 얻으며 선택하게 된 교양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 당시 '키움과 나눔'은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수강신청에 성공했을 때를 잊을 수 없다.</p> <p>때는 2021년 2월, 한창 학교 홈페이지 공지에 수강과목 리스트가 담긴 엑셀 파일이 업로드 되어있었다. 어떤 과목을 들어야할지 막막해서 학교 커뮤니티 수업 후기를 보고 있었던 와중에 '키움과 나눔' 수업을 찾아냈다. 식물을 직접 키워볼 수 있다는 후기에 흥미를 느껴서 선택하게 되었다.</p>		
3) 교과목의 특징	<p>'키움과 나눔'이 다른 교양 과목들과 차별화 되는 특징은 바로 식물 키우기 이다. 2021년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을 할 수 없었다. 대면수업으로 들으면 직접 학교 텃밭에서 작물을 키워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후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대면수업을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텃밭은 지나가면서 눈으로 많</p>		

	<p>이 봐왔어도 많은 것들을 담고 있을 그 곳을 몸소 만나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됐기에 작물을 학교에서 집으로 배송 받아 키울 수밖에 없었다.</p>
<p>4) 교과목을 통해 성장하거 나 변화한 내용</p>	<p>'키움과 나눔'은 나를 한층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준 과목이다. 특히 이 과목에서 나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고 가족의 화목을 일구었다.</p> <p>학교에서 배송해준 식물을 받고 난 뒤, 처음 이 수업을 수강할 때는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받고 나니 과제처럼 느껴졌었다. 내가 받은 식물은 바질 잎이었다. 빨리 끝내보려고 받자마자 식물 키우기 키트에 들어있던 화분에 설명서대로 거즈를 깔고, 흙을 붓고, 씨앗을 심고, 흙을 다시 덮어주었다. 식물 키우기 키트는 화분 밑에 또 화분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 화분에 물을 담아 씨앗이 담긴 화분을 겹쳐주면 흙이 아래서부터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키트였다. 며칠 뒤, 무심코 스쳐본 화분에 씨앗이 새싹을 핀 모습을 보았다. 새싹이 아주 작았다. 작은 새싹이 무거운 흙을 뚫고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은 새싹이 가진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 느낌을 받은 순간부터 바질을 지켜보는 것이 내 하루의 일과가 되었다. 그 작은 새싹이 흙을 뚫고 자라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생명력에 대입해보게 되었다. 인간이라는 씨앗 또한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분이 되는 동시에 이겨내야 하는 흙이라는 벽을 뚫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벽이라 함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키움과 나눔' 식물 키우기 체험을 통해 장벽은 나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저 날 가로막는 방해꾼이 아니라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소중한 나의 자원 중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날 가로막는 장벽을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되었다. 또한 비록 장벽을 뚫지 못했더라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나 자신이기에 좌절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얻었다. 모든 나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자그마한 하나의 새싹에게 감사함을 느꼈다.</p> <p>'키움과 나눔'은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의 화목을 알려주었다. 식물을 키우게 되면서 나는 하나의 추억을 회상하게 되었는데,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돌보는 일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수반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작물들을 집에 들여놓으셨다. 하지만 어렸던 나는 식물보다 노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께서 식물들을 다 기르셨던 기억이 난다. 그 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부모님 또한 나를 키우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책임으로 키워주셨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부모님께 나도 모르게 상처를 드렸던 그 날들을 반성하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다. 또한 식물을 '키움과 나눔'을 통해 키우게 되면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어서 소홀했던 부모님과의 대화가 꽃 피우기 시작했다. 식물의 성장을 보면서 오늘은 새싹이 얼마큼 자랐고 물은 얼마나 주었고 자연스럽게 '키움과 나눔'에 대한 수업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그 동안에 나는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던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나는 나의 어려움에 혼자 앓는 사</p>

람이 아닌, 화합하는 사람이 되었다. 식물 하나를 집에 들고 가족과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이 에세이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 가족은 소중한 생명을 기르고 있으며 더욱 화목해졌다.

2021년에서 2년이 지난 2023년에도 '키움과 나눔' 교양은 개설되었다. 2년이 지나도 계속 과목이 개설됐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일 거라고 예상한다. '키움과 나눔' 수업을 들으면서 나처럼 내면의 성장을 이룬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대면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점이 너무 아쉽지만 '키움과 나눔' 과목을 기반으로 아직까지도 성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지켜보면서 수강하기 잘한 교양으로 꼽히는 과목이다. 다음 학기에 어떤 자유교양을 들을 지 고민하고 있다면 단연 '키움과 나눔'을 추천하고 싶다. 나 또한 이 과목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하여 나눔으로써 더 많은 키움이 일구어지기를 바란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 티칭 포트폴리오

2023. 06.



학생성장교양학부

교과목명	키움과 나눔
교수자명	이동현
소속	경찰행정학과

I 교수자 개요

1. 교육 및 연구경력, 주요 담당 교과목

가. 교수자 소개

성명	이 동현	전공분야	경찰영어
소속학부	경찰경호학부	학과(전공)	경찰행정학과
주요 담당교과	경찰영어, 캡스톤디자인(경찰장구개발), 키움과 나눔		

나. 주요 교과목 강의경력 (최근 3년간)

기간(연도)	과목명	대상학년	교과 개요
2021	경찰장구개발	3,4	경찰장구개발을 통한 창의력 발휘연습
2022	경찰영어연습	1	경찰임용고시를 위한 영어심화학습
2023	경찰영어	1	경찰임용고시를 위한 영어기본학습

II 교과목 개요 및 내용

1. 교과목 강의 요약

- 가. 학생들은 노동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농작물 경작활동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나. 수업 활동은 교실이 아닌 텃밭에서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 다. 비가 오는 경우, 수업은 교실에서 차와 간식을 나누며 영상시청으로 이루어진다.
- 라. 서로의 협동과 이해, 그리고 소통과 사랑으로 진행되는 흥미로운 수업이다.
- 바. 수업 기간 중 경작한 수확물을 나누는 감사 행사가 있다.(조별 자율적 준비 및 시행)
- 사. 학생들이 교실의 긴장을 떨치고 기억을 평생 추억할 수 있는 멋진 수업이다.
- 아. 수업 방식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2. 교과목 목표 및 교수전략

□ 교과목 목표

- 가. 노동의 신성함과 소중함을 체험하고 보다 더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삶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배운다.
- 나. 지시가 아닌 자율적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사회적 존재로 성장

하게 한다.

다. 서로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능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라. 자연과의 교감 활동을 통하여 메타인지 능력을 강화시켜 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한다.

□ 교수전략

가. 텃밭 경작을 통하여 기존의 타율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능동적인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아 성찰을 돕는다.

나.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조성하고 가꾸는 노동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사회적 소통과 협력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한다.

다. 텃밭 가꾸기와 수확 활동을 통해 노력의 결과가 보상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하도록 한다.

3. 교과목 과제 및 평가 방법

가. 과제는 교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나. 과제를 위한 과제는 지양한다.(시험 점수를 위한 과제는 없음)

다. 과제가 부여되는 경우 과제의 내용은 성찰일지 작성이 추가 된다.

라. 성찰일지 작성 후 각 반 우수작 2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마. 평가는 수업참여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III 교과목 성과

1. 이것만큼은 학생이 본 교과목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것

학생들의 현명함은 교수자가 흔히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크다. 때로는 나태와 권태가 있음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더 크기에 학생들은 힘든 시간을 이겨낸다. 이는 삶을 바라보는 눈빛은 서로 달라도 그들이 바라보는 지점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의 사유가 넓은 바다처럼 늘 같은 모습으로 출렁거리고, 또 들랑거리며, 경계도 없이 항상 열려있기를 바란다. 자존감, 관계성, 타인과의 소통 등은 학생들이 홀로서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에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짧은 날의 고민들을 힘들어하지 않고, 보듬고 어루만져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마음 속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 어렵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마음 속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라고 강변하곤 했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뒤돌아보면 나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작아지고 소리 없이 아프다. 이 때의 느낌은 오랜 벗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기쁘지 않고, 웬지 허전하고 아쉬움만 잔뜩 소매에 묻어날 때와 같다. 아마도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며 내달려온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럴 것이다. 나는 학생들이 친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전쟁을 치르고, 줄어든 기회의 총량 속에서 선택할 공간이 없는 서글픈 현실에서 벗어나 이 수업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그냥 사람냄새 나는 인간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우리는 스스로 강한 척 하지만 강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척 하지만 신경 쓰며 살아가

며 또 그 시선에 흔들린다. 나는 학생들이 이런 흔들림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길 소망한다. 지금은 자작나무의 애기손톱 같은 이파리가 6월의 햇빛에 은빛으로 반짝이며 팔랑거리고, 그 아래에서는 바람보다 더 가벼운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하늘로 흩어져나가는 시절이다. 어른들이 바라볼 때 학생들의 삶은 작고, 대단치 않아 보여도 그들의 삶 또한 흐르는 개울처럼 여기저기 스며들고 휘어져서, 온갖 사연을 차곡차곡 쌓은 후 퍼낸 책처럼 완성될 것이다. 나는 학생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를 굵은 글씨로 음각하여 마음속에 새기고, 주변의 통념적 시선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빛깔로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학생들이 각자 서있는 땅 끝에서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2. 교수님이 생각하는 해당 수업의 매력

이 수업은 누가 뭐래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 나는 이 매력을 ‘악마와의 입맞춤’이라고 부른다. 이 매력을 누설해 버리면 아마도 전국으로 모조리 퍼져나갈 지도 모르지만 말하지 않고서는 잠조차 들 수 없는 유혹에 시달릴 것 같아 스스로 천기누설을 한다.

먼저, 이 수업의 매력은 학생들이 학업의 지겨움, 권태로움, 때때로 병원을 핑계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교실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야외에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교실을 벗어난 수업은 얼마나 황홀한가! 게다가 시험도 없으며 평가도 P/F이다.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지 않는가? 내가 학생이라면 죽어서라도 수강하겠다.

둘째로, 이 수업은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에서나 보았던 ‘텃밭농사’를 직접 경험해 보는 수업이다. 씨앗을 흩뿌리지 않고 쏟아 버리는 당혹감속에서도 서로서로 웃고 떠드는 아이 같은 천진함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는가? 처음 해 보는 삼질, 호미질, 때로는 거름주기 등은 학생들을 시도 때도 없이 웃게 만든다. 우리는 이것을 ‘환장할 재미’라고 부른다. 자신들이 정성 들여 뿌린 씨앗이 싹튼 후 자라는 모습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꿈이 그렇게 성장하길 바라는 것 같다. 애처로우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이다. 그 모습을 하얀 도화지에 그린다면 멋진 풍경화가 완성될 것이다. 그런 황홀한 기쁨이 그것도 매주 일어나니 학생들이 어떻게 좋아하지 않겠는가?

셋째로, 이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존감은 외모나 학력, 경력이나 지식, 혹은 지갑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고, 매 순간 자신들을 인정해 주는 공감적 존재가 옆에 있을 때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들이 협동작업을 통해서 “나 혼자만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하는 동료도 옆에 있구나.”라고 느끼는 동질감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 준다. 그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서로 마주보고 소리쳐 말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무엇보다도 이 수업은 서로가 향기로 기억되고 그리움으로 남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서로 할 말이 남아서 서로를 눈빛으로 기억한다.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삶의 편린을 호들갑 떨지 않고 절제된 모습으로 온전히 담아내는 가지런함을 학생들은 배워간다. 이 수업은 서두르지 않아도, 긴장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속에서 그들의 호흡, 눈빛 그리고 입술이 아름다움으로 음각되는 수

업이다. 이 수업이 매력적이지 아니한가?

IV 기타 자료

※ 교수님들 연구 활동에, 혹은 주변과의 관계성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러합니다. 힘드실 때 서재에 묻혀서 편안한 마음으로 TV시청하세요.

프로그램명: 자연의 철학자들

방송과 시간: kbs 1 TV 금요일, 19:40(Youtube에도 있습니다.)

[부록1] 강의계획서

수업계획서

(2023학년도 1학기)

교과목명	키움과 나눔		교과목코드	11686-01		학점(시수)	2 (2 / 0)	
담당교수명	이동현		소속학과	경찰행정학전공		연구실		
상담기간	상시가능		수업시간	월(5,6)		이수구분	자유교양	
대학핵심역량	공통핵심역량						주제구분	생명과 자연
	인성	의사소통 및대인관계	글로벌 마인드	자기개발	고차적사고	정보및기술활용		
	50	30				20		
핵심역량강화를 위한지도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텃밭 경작을 통하여 기존의 타율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능동적인 체험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아 성찰을 돕는다. 2.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조성하고 가꾸는 노동 교육을 통해 생명 존중의 의미를 깨닫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회적 소통과 협력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한다. 3. 노동 후 수확 활동을 통해 노력의 결과가 보상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하도록 한다. 							

1. 교과목 개요 및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의 신성함을 체험하여 보다 더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2. 자율적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게 한다. 3. 서로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유능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4. 자연과의 교감 활동을 통하여 메타인지 능력을 강화 시킨다.
--

2. 수업운영 방법

교수학습 유형	비율
강의	20%
실험/실습	70%
견학/현장강의	10%
합 계	100%

교수학습 방법	비율
협동강의	10%
팀기반학습	70%
기타 (과제, 발표)	20%
합 계	100%

수업활동 및 수업 방법 추가 설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은 학생들이 노동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수업이므로 학점에 얽매이는 수업이 아닙니다. 2. 수업 활동은 주로 텃밭에서 이루어집니다. 3. 비가 오는 경우, 수업은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4. 서로의 협동과 이해, 그리고 소통이 강조되는 흥미로운 수업입니다. 5. 수업 기간 중 농작물 수확 감사 행사가 있습니다.(조별 자율적 준비 및 시행) 6. 평생 기억과 추억을 할 수 있는 멋진 수업입니다. 7. 수업 방식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	--

3. 과제물

- 1.과제는 교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 2.과제를 위한 과제는 지양한다.(시험 점수를 위한 과제는 없음)
- 3.과제가 부여되는 경우 과제의 내용은 성찰일지 작성이 주가 된다.

4.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비율
출석	40%
과제	20%
참여도	40%
합계	100%

5. 교재 및 참고자료

주 교 재	학교텃밭 교육교재(농림축산식품부) -비구매-
참고자료	텃밭배치 모델(국립원예특작과학원)-비구매-

6. 참고사항

- 1.몸이 불편한 학생은 개강 1주차까지 수업자료 형식, 과제제출, 평가방법 등 학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결석은 절대로 하지 않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로 알려주고, 그 다음 시간에 진료 확인서나 처방전 등을 제출합니다.
- 3.수업 시간에는 실습에 적절한 복장을 갖추니다.
- 4.수업 종료 20분 전에는 농기구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5. 아래의 수업 계획서와 실제 수업 진행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팀 별 학습도우미(=조장)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장애대학생 지원>

- 지체장애 : 강의대필/이동지원
- 시각장애 : 학습튜터링 및 활동보조 지원
- 청각장애 : 학습튜터링 및 활동보조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등 : 강의대필/학습튜터링 지원
- 공통사항 : 수업조정에 관한 안내 지원, 시험 평가조정 지원,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상담 및 대여, 학습자료 상담 및 제작지원, 외국어학습 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등

장애학생지원센터 (충청캠퍼스 041.750.6327 / 고양캠퍼스 031.8075.1022,1026)

주 차	강 의 주 제	과제	수업방법	교육 기자재
	수 업 내 용			
1	오리엔테이션, 조 편성	오리엔테이션, 조 편성	오리엔테이션, 조 편성	오리엔테이션, 조 편성
	오리엔테이션, 조 편성			
2	텃밭의 이해와 텃밭 설계	텃밭의 이해와 텃밭 설계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텃밭의 이해와 텃밭 설계			
3	봄철 작물의 이해와 발갈이	봄철 작물의 이해 와 발갈이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봄철 작물의 이해와 발갈이			
4	조별 작물 선정과 파종 준비	조별 작물 선정 과 파종 준비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조별 작물 선정과 파종 준비			
5	씨앗의 이해와 파종 활동	씨앗의 이해와 파종 활동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씨앗의 이해와 파종 활동			
6	파종 후 관찰과 농사 도구의 이해	파종 후 관찰과 농사 도구의 이해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파종 후 관찰과 농사 도구의 이해			
7	파종 후 관찰과 자기 성찰 시간 갖기	파종 후 관찰과 자기 성찰 시 간 갖기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파종 후 관찰과 자기 성찰 시간 갖기			
8	조별 작물의 성장 비교 활동	조별 작물의 성장 비교 활동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조별 작물의 성장 비교 활동			
9	조별 작물의 성장 비교 활동	조별 작물의 성장 비교 활동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조별 작물의 성장 비교 활동			
10	작물 생장과 미생물 이야기	작물 생장과 미 생물 이야기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작물 생장과 미생물 이야기			
11	환경 교육과 리사이클링	환경 교육과 리사이클링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환경 교육과 리사이클링			
12	바른 식생활 먹거리 교육	바른 식생활 먹거리 교육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바른 식생활 먹거리 교육			
13	식물과 나의 아픈 이야기 나누기	식물과 나의 아픈 이야기 나누기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식물과 나의 기쁜 이야기 나누기			
14	경작물 수확과 수확물 감사 행사	경작물 수확과 수확물 감사 행사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경작물 수확과 수확물 감사 행사			
15	나눔의 이해와 나눔 실천 활동	나눔의 이해와 나눔 실천 활동	강의와 실습	텃밭, 경작 도구
	나눔의 이해와 나눔 실천 활동			

‘나’와 ‘타인’을 알아갈 수 있는 수업

92107751 최나영

①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MZ세대의 인간관계 법〉은 이번 학기에 새롭게 신설된 자유교양 과목으로 백유미 교수님께서 K-MOOC 사이트에서 온라인 원격으로 강의하시는 수업이다. 이 과목은 MZ세대의 자기계발과 다양한 세대간의 공감을 위하여 실생활 속 대인관계 (친구, 이성, 부모와 자녀, 직장 동료 등)의 상호작용원리를 학습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이어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와 기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이를 통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수업이다.

② 해당 교과목 선정 이유

최근 MZ세대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며 MZ세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과목명에 MZ세대라는 용어가 있는 것을 보고 이 과목은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수업계획서에 MBTI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고 MBTI를 좋아하던 나는 더욱 더 이 과목을 수강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MZ세대의 인간관계 법〉이라는 수업을 교양 에세이 과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흥미로운 수업이자 우리의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크지만 무엇보다 신설과목이라는 점에서 이 과목을 교양 에세이 과목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번 2023학년도 1학기에 새롭게 개설된 과목으로 중부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수강하는 학생이 되었다. 신설과목이라 그런지 강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이 과목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업계획서 뿐이다. 이 글을 중부대학교 학생이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업을 수강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고, 추천을 하고 싶어서 이 과목을 선정하게 되었다.

③ 교과목의 특징

1)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수업

수업 내용 중 간단한 검사를 통해 나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주차 수업에서는 ‘인생태도 검사를 통해서 본 나’를 통해 ‘자기긍정-타인긍정’, ‘자기긍정-타인부정’, ‘자기부정-타인긍정’, ‘자기부정-타인부정’ 4가지 유형 중 나는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3주차 수업에서는 나의 대화 스타일별에 따른 인간관계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조해리의 마음 창’을 통해 내가 ‘거북형’, ‘올빼미형’, ‘황소형’, ‘우리창형’ 등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업시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를 통해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고, 이 유형의 특징과 장단점 등에 대해 배우면서, 나의 장점을 더 극대화 시키고, 어떠한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수업

앞서 말한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다. 용어만 들었을 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어 4주차 수업에서 ‘나 전달법’이라는 개념을 학습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때 주어를 ‘나’로 하여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표현자인 ‘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대화 방법’이다. 글로만 읽었을 때 감이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힐 것같은 내용을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어 엄마와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며 “엄마가 한숨을 쉬면 ‘저’는 기분이 안좋아요”라는 내용을 제시했고 느낌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문장이 ‘너 전달법’이라고 설명한다. 사례 제시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나의 경험을 떠올려보며 혹시 내가 이러한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를 생각하며 나의 행동을 성찰하고 통찰할 수 있다.

3) MBTI라는 Z세대의 관심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MBTI라는 Z세대의 관심사를 주제로 하여, MBTI 유형별 발생한 갈등상황을 토른 게시판에 작성하여 이 수업을 수강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른 수업의 경우, 과제 제출을 LMS를 통해 교수님께 제출하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지만 이 수업의 경우에는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이 다같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과제를 업로드 하여 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무엇보다 MBTI별로 발생했던 갈등상황과 해결방안이 주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흥미로우며, 나와 다른 MBTI를 가진 사람들이 겪은 갈등상황과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나중에 이 MBTI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어떠한 부분을 조심하고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교과목을 통해 성장하거나 변화한 내용

〈MZ세대의 인간관계 법〉을 수강하며 나를 알아가고 성찰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다른 과목의 경우 지식 및 정보를 알고 싶어서 수업을 들었다면, 이 과목은 나를 알아가고, 성찰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서 들었다. 강의를 듣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의 경험과 연관지어 적용해보고 성찰하며, 이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으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MBTI 유형별 갈등상황과 해결방안’이라는 과제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성장했던 것 같다. 나와 비슷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보며 공감을 했고, 나와 다른 MBTI를 가진 사람이 내 MBTI와 같은 사람과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느낀 감정을 보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 행동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구나’ 등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들며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나와 갈등을 겪었던 친구와 MBTI가 같은 사람의 갈등상황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던 나의 친구를 이해할 수 있었고, 해결방안을 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

‘MBTI 유형별 갈등상황과 해결방안’ 과제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의 해결방안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다. 바로 ‘대화’의 중요성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 상황을 겪기 전 후 모두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거나 더 악화한 것이다. 나 또한 친구와 갈등을 겪었을 때 대화를 하지 않아 갈등이 더 악화되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내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편인데 친구는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더욱 더 악화되는 갈등에 결국 친구와 대화를 했고 오랜 시간 쉽게 풀리지 않던 일과 오해가 단 몇 분의 대화를 통해 쉽게 풀렸다. 이러한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며 대화(의사소통)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발생했던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14주차에 배운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과 ‘갈등 없이 소통하기’를 통해 더욱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려해 볼 수 있었다. 비록 아직 나의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수업과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12주차 ‘인간관계 프로파일러’라는 주제를 통해, 스스로 프로파일러가 되어 ‘나라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분석해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다. 나를 분석하고 알아갈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타인뿐만 아니라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배운 내용 중 대인관계 양식 8가지 유형 중 내 유형은 ‘고립형’에 가까웠다. ‘고립형’은 혼자 있거나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경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을 두려워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며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한다. 또한 침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우유부단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정말 나의 모습과 닮아있었다. 나 또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놀더라도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그리고 학과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냥 수업만 듣고 수업에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이 딱히 큰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한 적 없으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게 편하니깐 고치려고 하지를 않았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며 생각이 변화하였다. 내게 꼭 필요한 인간관계만 맺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굳이 막지 않고 나 또한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이어가도록 노력을 했으며, 지금도 이 노력과 다짐은 현재진행형이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 티칭 포트폴리오

2023. 06.



학생성장교양학부

교과목명	MZ세대의 인간관계법-밀레니얼은 어떻게 만나고 성장하는가?
교수자명	백유미
소속	교직과

I 교수자 개요

1. 교육 및 연구경력, 주요 담당 교과목

가. 교수자 소개

성명	백유미	전공분야	교육학(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소속학부	사범학부	학과(전공)	교직과
주요 담당교과	교육심리, 생활지도및상담, 학교폭력 등		

나. 주요 교과목 강의경력 (최근 3년간)

기간(연도)	과목명	대상학년	교과 개요
2021~2023	생활지도 및상담	2~3	예비교사들에게 학교 생활지도의 목표와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생활지도의 핵심영역으로서의 상담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생활지도 및 상담 교과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는 통찰의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나아가 장차 교사로서 학생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조력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상담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활지도 및 상담 자체가 표출되어야 하는 활동 역량이므로, 가급적 이론적 접근보다는 상담실제 및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1~2023	집단상담	대학원생	집단의 역할의 구조, 그리고 집단의 역동성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집단상담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습득하고, 집단상담에 실제로 참여하여 자기의 문제, 정서 및 태도(행동)에 관한 통찰력을 개발하고, 더욱 바람직한 자기 관리와 대인관계 태도를 습득한다.
2021~2023	행동수정	대학원생	인간의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아동, 학생, 내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나 상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동수정의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행동수정이 실생활과 학교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21~2023	가족상담	대학원생	가족상담의 이론을 통해 가족치료의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사례로 본 가족역동성을 학습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치료의 실재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한다. 1부는 ‘가족상담의 이해’로 가족을 만나는 전문가로서 도움이 될 만한 가족에 대한 기초지식을 담고 있다. 2부는 ‘가족상담의 방법’으로 가족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구체적 이론과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3부는 ‘가족치료의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가족과 실제 만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교과목 강의 요약

본 강좌는 MZ세대의 자기 계발과 세대 공감을 위하여 실생활 속 대인관계(친구 관계, 이성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등)의 상호작용원리를 학습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와 기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다변화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관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인관계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MZ세대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저마다의 잠재 능력 신장에 필수 요소이자 공동체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조건인 인간관계 형성을 경험적으로 학습하는데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성 발달 및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례 중심 강좌로 진행할 예정이다.

2. 교과목 목표 및 교수전략

대인관계(교사와 학생, 사용자와 근로자, 동료, 이성 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등)에서 상호작용의 원리를 학습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와 기법을 학습한다. 다변화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인간관계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대인관계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형성이 저마다의 잠재 능력을 신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공동체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조건임을 경험으로 학습하고 이해한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성발달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강좌이다.

□ 상호작용 유형

- 질의응답 게시판, 토론 게시판 사용

□ 상호작용 전략

- 학습자-교수자간: 학습자는 K-MOOC 사이트 내에 있는 질의응답 게시판 및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교수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
- 학습자-학습자간: K-MOOC 사이트 내에 있는 질의응답 게시판 및 토론 게시판을 통하여 학습자는 서로 간에 토론과 토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음.

□ 학습활동 전략

○ 동영상 강의는 MZ세대를 주제로 한 교과목 특성과 학습자의 학습집중도를 고려한 마이크로러닝 타입으로 제작하여 특정 주제의 학습과 전체 학습을 동시에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함

○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MBTI 성격유형검사를 학습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습 흥미를 높이고, 검사결과에 대한 토론/토의를 통해 자기 정체성과 타인 이해 등 성찰과 공유의 기회를 제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함

○ 학습주제에 따라 제목과 해시태그(#)를 활용해 학습자료의 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K-MOOC 플랫폼을 메타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매주차/매차시 종료 후 퀴즈풀이 활동을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환기와 학업성취도 달성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원함

- 학습 동영상과 별도로 학습내용을 정리한 강의교안(PDF)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함
- 동영상 전략
 - 학습주제 및 내용별로 가장 적합한 동영상 강의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최적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함
 - 스마트기기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적시 학습이 가능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학습환경에 맞도록 콘텐츠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작함
 - 교수자의 강점인 능숙한 아나운싱과 액션을 살린 영상 제작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함
 - 텍스트 위주의 PPT 슬라이드를 지양하고, 텍스트 오버레이와 같은 교수자와 주요 키워드를 요약강조한 가시화된 화면으로 구성할 계획임
 - K-MOOC 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 판정 기준에 기반하여 콘텐츠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기본적인 자체평가 외 기관 내외부 전문가, 개발 교수자등과 상시 점검 회의를 통해 학습자 중심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임

3. 교과목 과제 및 평가 방법

- 수업 개선을 위한 형성 평가 실시
 - 교수와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에게 피드백의 효과를 주고, 교과과정을 개선하며,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퀴즈, 토론 실시
 - 수강 참여자들의 다양한 연령을 고려한 강의 주제와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 품질 관리, 퀴즈의 적절한 난이도 조정, 과제 및 평가 기준에 대한 하향 조정을 하여 수강학생들의 학습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총괄평가 실시
 -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

III 교과목 성과

1. 이것만큼은 학생이 본 교과목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것

-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와 기법
 - 교사와 학생, 사용자와 근로자, 동료, 이성 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등에서 상호작용의 원리를 학습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는 태도와 기법을 학습함
- 자기 정체성 및 타인 이해 향상
 -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MBTI 성격유형검사를 학습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습 흥미를 높이고, 검사결과에 대한 토론/토의를 통해 자기 정체성과 타인 이해 등 성찰과 공유의 기회를 제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함

2. 교수님이 생각하는 해당 수업의 매력

학습자-교수자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소셜러닝(social learning) 전략

- 1) K-MOOC 사이트 내 질의응답 및 토론 게시판을 통한 문의에 대해 교수자가 상시로 답변함
- 2) 학습자 동향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어려워하거나 관심 있는 내용 등을 미리 파악하여 추가 학습자료 제공 또는 주석을 달아 보충 설명을 제공함
- 3)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유용한 사이트, 도서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목록화한 DB 제공을 통해 원하는 학습자료나 최신 콘텐츠를 빠르게 찾도록 지원함

학습자-학습자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주요 소셜러닝(social learning) 전략

- 1) 강좌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소개 게시판을 생성하여 학습자 간 유대감과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
- 2) 토론/토의 활동을 통해 댓글을 매개로 학습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함
- 3) 학습 주제에 대한 학습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간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특강을 학습자 요구를 중심으로 검토 후에 추진할 예정임

학습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학업) 지원

- 학습자 동향 분석과 게시판, 메일 등의 학습자 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습자 수준별 또는 요구별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함
- 강의 진행 과정 중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습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희망하는 내용 등을 파악하여 즉각적인 해결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함

충실하고 체계적인 학습자 학습(학업) 지원

-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하여 주요 일정, 학습활동, 진행 상황, 마감 기한 등의 안내를 통해 학업성취도 달성 및 자신감 고취에 기여함
- 다양한 대내외 채널 홍보를 통해 K-MOOC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K-MOOC 플랫폼, 기타 학습사이트를 연계하여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

학습 가이드 지원

- 강좌에 대한 1~3분 내외의 홍보 영상을 제작·제공하여 학습자의 학습 흥미와 동기를 고취함
- 사전학습 내용과 학습 참여 안내를 위해 과제, 평가 등의 주요 일정, 주차별 학습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학습 편의를 도모하는 운영지원

- 수강 신청, 이수증 발급 등 학습편의를 위한 강의조교(TA) 등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안내와 학습 진행을 지원함

IV 기타 자료

학습 가이드 지원

- 강좌에 대한 1~3분 내외의 홍보 영상을 제작·제공하여 학습자의 학습 흥미와 동기를 고취함
- 사전학습 내용과 학습 참여 안내를 위해 과제, 평가 등의 주요 일정, 주차별 학습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학습 편의를 도모하는 운영지원

- 수강 신청, 이수증 발급 등 학습편의를 위한 강의조교(TA) 등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안내와 학습 진행을 지원함

수업계획서

(2023학년도 학기)

교과목명	MZ세대의인간관계법	교과목코드	11997-01	학점(시수)	2 (2 / 0)	
담당교수명	백유미	소속학과	교직과	연구실	031-8075-1670	
상담기간	3.2-6.30	수업시간	일(3,4)	이수구분	자유교양	
대학핵심역량	공통핵심역량					
	인성	의사소통 및대인관계	글로벌 마인드	자기개발	고차적사 고	정보및기 술활용
주제구분	30	50	20			
핵심역량강화를 위한지도방법	MZ세대의 건전한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와 기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이론과 실질적인 사례 중심 강좌로 진행할 예정임. 본 강좌를 통해 대학핵심역량인 인성, 의사소통및대인관계, 자기개발 역량을 키우고자 함.					

1. 교과목개요 및 목표

본 강좌는 MZ세대의 자기 개발과 세대 공감을 위하여 실생활 속 대인관계(친구 관계, 이성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등)의 상호작용원리를 학습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와 기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다변화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관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인관계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MZ세대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저마다의 잠재 능력 신장에 필수 요소이자 공동체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조건인 인간관계 형성을 경험적으로 학습하는데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성 발달 및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례 중심 강좌로 진행할 예정이다.

2. 수업운영방법

교수학습 유형	비율
강의	100%
합 계	100%

교수학습 방법	비율
온라인강의	100%
합 계	100%

수업활동 및 수업 방법 추가 설명
본 수업은 K-MOOK 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좌를 이수해야하며 토론 및 퀴즈 등에 참여해야 함. 또한 중부대학교 LMS 상에서는 과제물 및 기말고사를 통해 상대평가를 받아야 함.

3. 과제물

*제출 분량: A4용지 2장 이내
**(1) 먼저 자신과 친한 친구의 MBTI검사를 합니다. 자신과 친구의 MBTI 유형을 밝히고 그 특징을 서술하시오. (2) 그 친구와의 갈등(의견차이)이 벌어졌을 때의 구체적인 상황과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4.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비율
출석	20%
과제	20%

수시	30%
기말시험	30%
합 계	100%

5. 교재 및 참고자료

주 교 재	없음.
참고자료	권석만(201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김종운(2022). 만남 그리고 성장을 위한 인간관계심리학. 학지사

6. 참고사항

<p>본 강좌는 학점 인정 강좌로 다대학 학생들과 함께 K-MOOC 사이트에서 매주 강좌를 수강해야함. 이수증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음.</p> <p>① K-MOOC 이수증 발급 기준(이수기준:평가항목별 점수 합계 60점 이상/ 미이수 시 이수증 발급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별 퀴즈(30%): K-MOOC 1~13주차 퀴즈 ● 토론(10%): K-MOOC 온라인 1회 ● 중간고사(30%): K-MOOC 온라인 ● 기말고사(30%): K-MOOC 온라인 <p>이수증 발급과 함께 중부대학교 학생들의 상대평가를 위한 최종 학점 기준은 아래와 같음.</p> <p>② 최종 학점 기준(이수증 미 발급 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20% P/F: 이수증 발급 여부(이수증 점수 미달 시 F) ● 과제 20%: 중부대학교 LMS-과제 1회 제출(K-MOOC 토론 문제와 유사) ● 중간고사 30%: K-MOOC 중간고사 점수 대체 ● 기말고사 30%: 중부대학교 LMS-온라인 시험 <p>· 매 주차 반드시 K-MOOC 사이트 강좌의 공지사항 및 중부대학교 LMS 강좌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K-MOOC 사이트 강좌 및 중부대학교 LMS 강좌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p><장애대학생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 : 강의대필/이동지원 - 시각장애 : 학습튜터링 및 활동보조 지원 - 청각장애 : 학습튜터링 및 활동보조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등 : 강의대필/학습튜터링 지원 - 공통사항 : 수업조정에 관한 안내 지원, 시험 평가조정 지원,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상담 및 대여, 학습자료 상담 및 제작지원, 외국어학습 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등 <p>장애학생지원센터 (충청캠퍼스 041.750.6327 / 교양캠퍼스 031.8075.1022,1026)</p>

7. 수업운영계획

주 차	강 의 주 제	과제	수업방법	교육 기자재
	수 업 내 용			
1	인간관계 기초		온라인 강의	
	MZ세대의 다양한 인간관계, 부적응적 인간관계			
2	심리학적 자기 이해		온라인 강의	
	인간관계 속 나 다음의 발견,나 변화시키기			
3	인간관계 형성과 발달		온라인 강의	
	인간관계 대상의 선택,인간관계의 발전과정			
4	인간관계의 심리학적 이해 I		온라인 강의	
	다양한 대인동기,대인신념과 대인기술			
5	인간관계의 심리학적 이해 II		온라인 강의	
	대인지각과 대인사고,대인감정과 대인행동			
6	거울을 닮은 친구		온라인 강의	
	친구 관계의 의미와 특징,MBTI를 통한 친구 관계 이해			
7	매력적인 이성 관계		온라인 강의	
	사랑의 의미와 유형,사랑의 발전과 종결			
8	중간고사			
9	배려 있는 부부 관계		온라인 강의	
	결혼의 의미, 과정,결혼에 대한 오해와 성공적인 부부 관계 전략			
10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애착유형과 인간관계 특성,부모-자녀 관계 갈등 및 해결 방법			
11	심리학을 아는 일잘러		온라인 강의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직장 속 인간관계			
12	인간 관계 프로파일러		온라인 강의	
	나의 가치관, 대인관계 양식의 진단,인간관계를 위한 습관 진단			
13	내 마음을 지키는 거리두기		온라인 강의	
	스트레스의 개념과 수준,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방안			
14	만남, 성장을 위한 의사소통		온라인 강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갈등없이 소통하기			
15	기말고사			

<제목: 내 인생에서 철학이란 ..>

국제통상학과_92004337_김예린

에세이 대회를 하기 마음 먹은 이후로 제가 들었던 교양과목들을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교양과목은 2022년 2학기, 비대면 수업 당시 한우섭 교수님의 「현대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우섭 교수는 현재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학과에 소속되어 있으시며, 철학에 대한 배움의 길을 택하셨고 배움을 끝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과목의 특징의 경우, 철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삶과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를 두면서, 12명의 철학자들 각자의 철학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대 사회와 연관지어 사상적 배경에 적용시키는 학습을 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학습했던 학자들은 니체, 마르크스, 베르그송, 프로이트,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비트겐슈타인, 메를로-퐁티, 하버마스과 푸코입니다. 각 주차에서는 이들이 생각했던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철학의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의 과목을 에세이 대회에 선정하여 작성하게 된 이유는 ‘철학’이라는 과목명을 들으면 저는 항상 기피하기만 했습니다. ‘철학’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 원리로 인간의 본질이나 세계관 등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이 문장을 보고 ‘철학’이라는 학문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철학과 관련한 교양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철학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학습을 했었으나, 이 과목은 12명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철학과는 흥미있고 조금은 다른 모습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수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여전히 저의 성향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닌 학문이었습니다. 철학과 같이 어떤 것을 깊게 생각내어 도출해내는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 저였기에 각 주차마다 있었던 과제를 하는 데에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체의 철학을 기반으로 나의 주체적 관점을 돌아보는 부분이라던지, 하이데거의 철학을 기반으로 내가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나의 실존을 생각하는 것 등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였기에 오랜 시간 생각하면서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 제가 생각한 철학의 방향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 제공해주셨던 과제는 ‘나에게 철학이란?’이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도 철학은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현재와 같은 생각을 지녔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나의 철학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보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 니체 철학에 대해서 저의 주체적인 관점을 써내려갔을 때, 니체가 주장했던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은 죽음과 고통의 유의미함과 필연성을 인정하고 긍정의 대상으로 지정했다면, 아폴론적인 예술은 그와 반대로 균형, 질서, 국가의 법률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예술을 비교하면서 짧지만 저의 인생에서는 어떤 부분이 아폴론적이었는지,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이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적어냈습니다. 하이데거 본인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가장 고유하면서 가장 극단적이고 다른 가능성에 의해 능가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라고 정의 내렸다. 저는 이 말을 보고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내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간은 모두 영아기-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중년기-노년기를 겪고 난 후 마지막을 보내는 것을 ‘죽음’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라면 태어나고 자라서 인간의 마지막 길이 죽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미상관처럼 첫 번째 수업 때 주셨던 ‘현재 나에게 철학이란?’ 주제에 대해 다시 작성했을 때, 철학은 여전히 어렵지만, 이 수업을 통해 저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를 생각하고 떠올렸던 건, 철학이란 학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어렵지 않겠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철학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고려해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가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진정으로 무엇이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곤 합니다. 이것 또한 철학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건, 니체 또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진리를 세상에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도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보이는 것을 철학이라고 정의를 내놓는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철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철학’이라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어서 수업에 흥미를 가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정확한 발음으로 30-40분 가까이 되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집중할 수 있었고, 뿐 만 아니라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철학자들의 철학과 그 시기에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찬찬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우리 모두가 흔히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세기마다 다른 시기에 태어난 다른 철학자들은 저와 그리고 우리와 어떠한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그들로 하여금 ‘철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결국에 제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 제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어렵다는 생각으로 인해 기피하게 되고, 철학적인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감쌌었지만, 교수님께서 12명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실 때마다 우리가 물건을, 사람을, 세상을,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찌면 저도, 우리 모두 소크라테스가, 니체가,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짐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는 세상을 단지 지구 안에 있는 세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는 세상은 지구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는 시공간이라고 상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떠난 이들이 지냈던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도 깃들여져 있는 곳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는 처음에 이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차츰 철학에 대한 생각이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그럴 순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꼭 주어진 틀의 삶을 살지 않고 틀 밖에 있는 삶과 세상을 바라보기도,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사회에 발을 디디기 전에 대학생이지만, 저와 같은 학생들은 성적만을 위해 수업을 열정적으로 듣고 시험을 치르는 이 부분이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줄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철학자들처럼 시험을 치르는 것에 치우쳐져 있기 보단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생각을 펼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학생들을 위한 학습체계와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저의 인생 속에서 ‘철학’이라는 건 어찌면 세상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 힘든 일을 경험하든 간에 저는 ‘낙담’이라기 보단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모두가 될 수 없으니 포기해! 라는 말 대신에 저는 그 포기라는 단어를 반대로 기포라 생각하면서 기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 한순간을 낚아채어 저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우섭 교수님 덕분에 12명 철학자들의 철학적 가치를 알게 되면서 더불어 저의 철학적 가치관도 성장하게 되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저의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제 인생에 대해서도 어떤 자세로 취하면서 버텨내야 할 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 티칭 포트폴리오

2023. 06.



학생성장교양학부

교과목명	현대철학자들의이야기
교수자명	한우섭
소속	학생성장 교양학부

I 교수자 개요

1. 교육 및 연구경력, 주요 담당 교과목

가. 교수자 소개

성명	한우섭	전공분야	서양철학
소속학부	학생성장교양학부	학과(전공)	
주요 담당교과	말하기와 사고, 인성과 소통, 현대철학자들의 이야기, 서양철학의 이해		

나. 주요 교과목 강의경력 (최근 3년간)

기간(연도)	과목명	대상학년	교과 개요
2023	현대철학자들의 이야기	전학년	현대 철학자 12인의 철학적 문제의식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나와 세계의 종합적 이해 추구.
2022~2023	말하기와 사고	1학년	분석적, 논리적, 창의적 사유를 훈련하고, 이를 설명적, 논리적, 설득적 말하기에 적용함으로써 시민적 자질로서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함
2020~2023	인성과 소통	1학년	인성의 8대 가치 덕목을 중심으로 그 가치들의 의미와 그것과 관련되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함양함.
2021~2023	서양철학의 이해	전학년	서양의 철학적 사유의 변천 과정을 학습하며, 이에 영향받은 세계관의 모습을 이해함.
2021~2023	JB지역사랑프로젝트	1학년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대학생의 역할과 책임을 체험함.

II 교과목 개요 및 내용

1. 교과목 강의 요약

본 교과목 <현대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대학생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을 그 궁극 목적으로 한다. 인문학적 소양이란 현실 사회의 다양한 사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적인 지적 역량으로서, 본 수업은 현대의 대표적 철학자들과 그들의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과 세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과 관점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전함으로써 학생들의 인문학적 지식인으로서의 역량 개발을 도모한다.

이러한 수업의 궁극적 목표는 아래의 구체적 목표를 통해 달성된다.

- 목표 1 : 수업에서 다루는 12인의 현대 철학자들의 문제의식과 방법론, 사용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목표 2 : 자신의 현재 상황과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수업에서 다룬 철학자들의 문제의식과 개념들을 사용하여 분석, 설명할 수 있다.
- 목표 3 : 수업에서 다루는 현대 철학의 문제의식들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 관점에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 목표 4 : 수업에서 다룬 다양한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할 수 있다.

2. 교과목 목표 및 교수전략

가. 진행방식

- 1) 교과목의 목표 수행을 위해 현대적 가치관과 사고의 틀을 제공했다고 평가받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12인의 철학자들을 선별.
- 2) 매주 한 명의 현대 철학자를 소개하고 그들의 주요 학문적 주장과 핵심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해당 철학자의 철학적 목적과 이론의 전개 과정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3) 12인의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각 철학자들의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
- 4) 각 철학자들과 그들의 이론에 대한 이해는 2회의 시험(중간, 기말)과 2회의 과제(1주차, 14주차), 6회의 수시 과제(2, 3, 7, 9, 10, 12주차)를 통해 심화.
- 5) 이론 설명 이후 학생들이 수업에서 제시된 철학적 개념들을 적용하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학적 개념들을 적용해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과제와 수시과제로 총 8차례 제시.

3. 교과목 과제 및 평가 방법

가. 과제나 평가(중간 및 기말평가)를 통한 학습결과 자료

평가항목		반영점수 (비율)	채점기준
수시과제	1. 나의 주체적 상황 서술하기(5점)	30	1) 해당 주치의 철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2)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가? 3) 발견한 문제에 철학적 개념을 적합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4)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2. 마르크스로 우리 사회 해석하기(5점)		
	3. ‘죽음’의 의미 생각해보기(5점)		
	4. 나는 실존하고 있는가에 답해보기(5점)		
	5. 나의 비트겐슈타인 한 구절(5점)		
	6. 대한민국의 갈등 담론 풀어보기(5점)		
출석		20	온라인 강의 영상 출석 인정 기간에 따라 평가
시험	중간시험	15	1) 문제로 제시된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기말시험	15	2) 설명하고 있는 개념의 내용이 옳은가? 3) 서술의 방식이 인과적인가?
과제	1차 과제 : 현재 나에게 철학이란 (학기 초 제시)	10	1)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2) 철학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는가? 3) 자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철학에 기대하는 바가 설명되고 있는가?
	2차 과제 : 내 삶의 고민과 철학적 해결 (학기 말 제시)	10	1) 적용하고자 하는 철학의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가? 2) 자신의 고민과 선택한 철학적 문제의식이 정합적인가? 3) 자신의 고민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고 정교한가? 4) 고민해결의 방식이 현실적이며 개별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기획되어 있는가?
합계		100	

III 교과목 성과

1. 이것만큼은 학생이 본 교과목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것

첫째, 사유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익숙함.

유튜브를 통해 양자역학의 이론적 틀을 ‘단’ 10분 정도로 정리된 내용으로 이해하고, 인류가 이루어낸 수많은 사상들을 인터넷 몇 줄로 정리된 글로 마주하며, 시각자료로 전해지는 학습 활동에 적응한 현대의 대학생들에게 순수학문이란 다분히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것일 수밖에 없다. 특히 철학이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방법론적 측면에서 길고 두꺼운 책을 통해 내용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내용적 측면에서조차 첫째, 분명한 정답을 찾기 힘든, 둘째, 끈질긴 질문들과 다양한 가능한 대답들을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가능한 답을 찾아 헤매

는, 셋째, 다분히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학문이기에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대의 학습 풍토 속에서 사유를 하고 나름의 답을 찾는 공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따분함과 고리타분함을 가까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나름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둘째, **주체적으로 사유하기**. 현대의 교육은 수많은 ‘좋은 점수’를 위한 안내서, 방법 등을 남발하며,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 교육에 있어서조차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과 자료에 의존한다. 그러나 제아무리 잘 정리된 내용일지라도 남이 정리한 지식자료는 영원히 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다양한 수시 과제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의 생각을 적어내는 활동을 권장하고, 수업에서도 수업에서 전해진 지식이란 그 말을 한 그 철학자의 문제의식이라는 것. 그 문제의식 속에서 생각해볼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 자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강조하였다.

셋째, **대학생으로서의 인문학적 지식**. 본 교과목에서 다른 12인의 철학자는 온전히 철학자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이들은 때론 경제학자로, 때론 심리학자로, 때론 사회학자로, 때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문학가이기도 했던 인물들이다. 이는 이들의 이론과 생각이 현대 사회의 인문학 저변에 녹아있음을 의미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이들의 이론과 문제의식을 학생들이 학습함으로써 대학생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문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2. 교수님이 생각하는 해당 수업의 매력

첫째, **철학에 대한 선입견 파괴**. 학생들 대부분은 철학이라는 학문을 어렵기만 한 것, 실제 삶과 관련이 없는 것, 그래서 지루하고 따분한 학문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교과에서 다루는 12인의 철학자들의 경우 이들 모두가 어떤 의미로든 현대의 세계관에 일종의 충격을 준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그래서 철학자들은 고리타분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철학과 학생들의 삶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선입견을 깨는 시도를 많이 했다는 점 또한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대 철학의 풍토가 근대 이후 개인의 실존에 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 어떤 철학은 우리 일상의 사건들로부터 시작해 일상에 대한 해석으로 끝난다는 점을 어필하고자 한 것이 학생들의 철학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데 일조했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교수자의 에토스**. 철학이 고리타분하지 않다는 것, 때로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파격적이라는 것을 어필하고자 말투와 제스처에 다소 힘을 많이 준 과장의 측면이 있다. 예상외로 학생들이 이 부분을 교수자의 능동성과 재미로 받아들여 준 측면이 있어, 다소 어리둥절하기는 하지만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다.

셋째, **짧게 끝낼 수 있는 다양한 과제**. 결국 철학적 이해와 철학적 관점의 설립이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것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다소 많은 과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예를 들어, 학습한 철학자의 책 속 한 문장 무작위로 찾아 무슨 의미인지 마음대로 써보기 등)와 짧은 분량을 제한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일부 학생들의 경우 과제 자체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학생들 또한 다양한 과제로 성적이 평가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2021-2학기 교양교과목 원격수업 개발 계획서

1. 교과목 개요

가. 강의 과목

교과목명	현대 철학자들의 이야기	영문명	Stories of contemporary philosophers			학점체계	학점-이론-실습											
담당교수	한우섭	소속학과	학생성장교양학부			연구실	건원관526											
						E-mail	hws78ad@joongbu.ac.kr											
이수구분	기초교양 <input type="checkbox"/> , 핵심교양 <input type="checkbox"/> , 자유교양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강의형태	이론중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이론-실습병행 <input type="checkbox"/> , 실습중심 <input type="checkbox"/>																	
역량구분	인성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글로벌 마인드			자기개발		고차적 사고		정보 및 기술 활용					
	20					30					50							
	자기 긍정성	도덕성	책임감	자기 표현	이해 와 공감	조정 과 협력	세계 시민 의식	문화적 수용성	외국 어 활용	주도 적 성취 지향	진로 의 탐색 설계 실행	자기 조정 능력	논리 적 사고	창의 적 사고	비판 적 사고	체계 적 자료 접근	정보 분석 처리	창의 적 생산 및 공유
	20						10	10	10				20	10	20			
역량연계 내용	<p>▶ 고차적 사고(50) : 본 교과목은 현대 철학자들의 이론들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현대 철학이란 철학사적 맥락 속에서 특히 의미를 갖는 철학적 이론들의 정수로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현대의 철학적 관점을 그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철학의 양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대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개념들과 이론에 내포된 사유의 등장 배경, 사유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을 논리적으로 분석함(논리적 사고)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것이 현재 어떤 의미로 적용, 해석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사유함(비판적 사고)을 의미한다. 나아가 현대 철학은 그것을 이해하는 독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바, 이는 현대 철학에 대한 이해의 과정에 창의적 사고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p> <p>▶ 글로벌 마인드(30) : 현대 철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이해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그리고 세계를 자신의 주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주체성을 학생들에게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현대 철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이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이유는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 차이를 배경으로 등장한 수많은 현대 철학 이론에 담긴 다양한 사상과 관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다양한 철학자들과 그들의 이론에 대한 이해는 현대에 존속하는 특정한 사유가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 배경에 따라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문화적 수용성과 세계 시민의식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 철학자들과 그들의 이론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이론에 담긴 핵심 개념(키워드)를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하며, 개념은 문화를 배경으로 성립하기에 최소한의 외국어 이해(외국어 활용)를 동반하게 된다.</p> <p>▶ 인성(20) : 상술 된 본 교과목의 궁극적 지향점에 따라 현대 철학자들과 그들의 이론에 대한 이해의 효과는 곧 자기 가치관의 확립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철학적 이론들을 통해 세계와 삶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긍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p>																	

주제영역	<input type="checkbox"/> 언어와 문학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역사와 철학	<input type="checkbox"/> 사회와 공동체	<input type="checkbox"/> 생명과 자연	<input type="checkbox"/> 과학과 기술	<input type="checkbox"/> 문화와 예술
교재 및 참고도서	교재	저자	교재명	출판사	참고사항	
	참고도서	한우섭 외	#철학	북코리아		
		버트란드 러셀	서양철학사	을유문화사		
◎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지도방법						
<p>▶ 고차적 사고 : 현대 철학에 대한 이해는 첫째, 수업이 대상으로 하는 철학자의 해당 시기의 철학적 저술에 대한 이해와 둘째, 철학 이론을 지탱하는 개념들에 대한 이해, 셋째, 개념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 파악을 필요로 한다. 이는 무엇보다 개념들을 분석하고, 범주화하는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고, 이 과정은 해당 철학의 구도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의해 완성되며, 이렇게 이해된 철학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창의적 사고의 발현이다.</p> <p>▶ 인성 : 근,현대 철학 이론의 지향점은 근대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이를 완성시키는 개인 주체성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철학 이론에 대한 이해는 그 맥락이 가지는 시민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동반한다.</p> <p>▶ 글로벌 마인드 : 현대 철학 사상이란 근대가 지나는 유럽 중심적 세계 질서의 흐름으로 인해 당시의 서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근대 유럽이 세계 사상에 끼친 절대적인 영향으로 인하며, 따라서 근대와 현대의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근대 유럽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세계 시민의식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p>						

나. 교과목 학습목표

- 지식인에 속하는 대학생의 기본적 소양을 현대 철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로 설정한 후, 다양한 현대 철학의 등장 배경과 이론 내용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인다.
- 본 교과에서 현대 철학이란 현대인들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철학 이론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대의 철학자들의 이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대를 가능하게 한, 그리고 현대를 지속하는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동기가 됨을 이해시킨다.
-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해 본 교과목은 현대의 가치관과 세계이해의 틀을 제공했다고 평가받는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12인의 철학자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문제의식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2. 해당 교과목의 필요성 및 개발방향

가. 해당 교과목의 필요성 및 목적

- **가치관 형성의 최후 기관으로서의 대학** : 대학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교육 과정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대학 교육은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보루이며, 현대 사회에서의 건전한 가치관이란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를 보다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적 역량으로부터 형성된다. 이러한 지적 역량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현대 철학 이론에 대한 교육은 따라서 대학의 본령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철학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 :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의 풍조는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철학에도 적용되는 바, 현대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으로서의 인문학에 대한 지적 열망을 보다 용이한 방식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각종 인문학 관련 콘텐츠들과 팟빵이라는 매체를 통해 한때 열풍을 일으킨 ‘지대넓얕(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의 흥행이 이를 증거하며, TV를 통해 방영된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프로그램의 흥행 또한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인문학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른 한편, 이러한 관심 충족의 필수 요소로서 인문학에 대한 접근 방식의 편의성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 대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특징이다. 다시 말해, 전자의 특성은 대학에서의 인문학 고전 강좌의 개설 필요성을 의미하며, 후자의 특성은 대학 인문학 고전 강좌의 진행 방식이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본 교과목의 온라인 수업 방식의 채택은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대학 차원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해당 교과목의 개발 방향 및 전략

■ **교과목 특징** : 일반적으로 교양 교과목으로서의 철학 강좌가 철학사적인 관점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본 교과목은 <현대 철학>이라는 역사적 범위를 선정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이는 교양 강좌로서의 철학 교육이 갖는 한계, 즉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모든 철학이 대상이 되기에 수많은 철학자들의 문제의식만을 간략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동시에 그렇다고 전공 강좌가 갖는 세부적 철학 이론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역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된다.

■ **콘텐츠 개발 시 중점 고려 사항** : 재미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매체에서의 인문학 강좌와 특히 유튜브라는 매체의 편의성(예를 들어, 5분 딱딱 철학 등)에 익숙한 현재 대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철학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일반적 관점을 고려할 때, 교과목의 핵심은 어떻게 강의가 목적으로 하는 철학자들의 이론들이 학생들 자신들의 삶과 연관되느냐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와 더불어 학생들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급적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들이 찾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학습활동 특징** : 각 주차 별로 한 명의 현대 철학자를 선별하여 a) 저자 소개. b) 해당 인물의 문제의식. c) 해당 인물이 주장한 철학적 이론의 주제와 내용(이상 1차시). d) 해당 이론의 핵심 개념들과 개념 이해(선별된 문장 및 페이지를 예시로 활용)를 통한 전체 구조 이해. e) 해당 이론의 사회, 역사적 영향. f) 해당 이론에 대한 가능한 비판적 관점(이상 2차시)의 순서로 강의를 진행한다.

■ **LMS를 통한 토론 및 핵심 문장 찾아 해석하기, 비판적 관점 제시하기** : 각 주차 수업의 종료 후 학생들은 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수행한다.

a) 해당 철학자의 이론과 관련되어 제시된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예)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무의식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의식이 무로 존재한다면 그것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바탕으로 본인이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 논의해 보세요.”

b) 해당 철학자의 저서에서 눈에 띄는 문장을 찾아 적어보고 해석하기. 예)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는 휴머니즘이다>에 등장하는 문장 중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또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적어보세요” .

c) 비판적 관점 제시하기. 예)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비판할 수 있다면 어떤 점에서 비판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의견을 적어주세요”

■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 방법** : 교수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학생들과의 상호소통은 상용되고 있는 각종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본 교과목이 온라인 강좌로 개설될 경우, 수강 학생들의 수가 많아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강인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주차별 강의 설계안

*2~13주차의 학습자 활동은 LMS에 탑재되어 <수행/미수행>의 기준을 통해 평가됨.

*1주차와 14주차에 실시되는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란?> 에세이는 과제로 분류하여 평가.

주차	강의주제	수업 유형	제시유형	학습보조자료	학습자 활동
	강의내용				
1	철학이란 무엇일까?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란?>에세이 작성
	강의 소개 및 철학에 대한 소개				
2	니체와 현대 철학의 시작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학생 자신의 주체적 관점 돌아보기 (낙타-사자-어린 아이)
	-주체의 개념을 통해 현대 철학의 특징 파악 -니체의 생애와 사상, 그 영향				
3	마르크스와 세계의 모순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요즘 뉴스 찾아보기
	- 『자본론』 이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 - 마르크스 생애와 이론의 내용과 영향				
4	베르그송과 생의 약동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 지속과 직관의 개념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새로운 관점 - 현대의 과학주의와 그 반동				
5	프로이트와 진정한 나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 심리학의 등장 배경, 무의식 이론 - 이성적 인간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프로이트				
6	후설과 문명의 위기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 현상학의 이념과 등장 배경, 현상학적 주요 개념들				

	- 현대 문명의 위기와 그 원인에 대한 철학자의 시선				
7	하이데거와 삶의 목적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죽음'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을까 설명해보기
	- 전통 철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 설명 - 인간 존재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진정한 삶의 목적				
8	중간고사	문제풀이형	LMS (WBI)		
9	사르트르가 말하는 나와 타자의 투쟁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해보기
	- 프랑스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 및 사르트르의 타자론 설명 - 실존주의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10	비트겐슈타인과 언어적 세계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비트겐슈타인의 책을 찾아 한 구절 선택해서 의미 설명해보기
	- 언어 철학 등장의 배경 - 언어 철학과 전통 철학의 방법론적 차이 - 현대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언어의 관계				
11	메를로-퐁티와 지각적 몸의 세계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 철학자 메를로-퐁티에 대한 소개 - 철학사에 있어서의 '몸'의 위상 - 왜 의식이 아니라 몸이 중요해지는가?				
12	하버마스과 우리의 사회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대한민국의 갈등 담론 찾아보고 다양한 갈등 양상의 공통 원인 찾아보기
	- 하버마스 소개 - 의사소통행위이론 설명 - 초갈등 사회인 현대 대한민국에 조언하는 하버마스				
13	미셸 푸코와 현대의 사회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 미셸 푸코에 대한 소개 - 푸코의 문제의식 설명 - 현대인들은 과연 이성적인가에 대한 푸코의 이야기				
14	한 학기 수업 정리 및 현대 철학의 방향성	강의형	동영상 강의형	PPT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란?> 두 번째 에세이
	- 한 학기 수업 내용에 대한				

	종합적 정리 - 한 학기 수업 내용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현대 철학의 경향성에 대한 설명				작성
15	기말고사 : 퀴즈 / LMS(WBI)				

4. 평가 계획

평가항목		반영비율	채점기준
과제	-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란?> : 첫 번째 에세이 -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란?> : 두 번째 에세이	20 (10+10)	1. 첫 번째 에세이 평가 기준 -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가? (5) - 철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고민이 드 러나는가? (5) 2. 두 번째 에세이 평가 기준 - 첫 번째 에세이와 연관되어 강화, 혹 은 변화된 관점이 설명되는가? (5) - 수업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철학에 대한 이해에 반영되는가? (5)
출석		20	
시험(주, 객관 혼합)		30 (15+15)	- 질문에 대한 답에 수업 내용이 반영 되어 있는가?
학습자 활동(수시)		30	- 수행 / 미수행
합계		100	

5. 해당 원격수업 교과목의 기대 효과

■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부터의 접근과 이를 통한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 : 12인의 철학자들을 통해 기초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한다. 인문학적 사유는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적인 관점 형성의 배경으로서 기능하며, 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달성된다. 따라서 현대의 철학자들과 그들의 이론들 통한 인문학적, 철학적 사유의 습득은 특정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양인,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학생 자질 향상** : 본 교과목에서 다루게 될 11인의 철학자들이 현대의 주요 철학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들의 문제의식이 현대인들의 가치관 형성과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며, 나아가 그들 각자의 문제의식이 보편적 문제를 지향함으로 그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와 현대인들의 정신 세계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한다는 것이며, 이는 지식인으로서의 대학생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양과목에 대한 에세이

간호학과 92209896 김채연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초등특수교육과의 박영근 교수님이다.

이 교과목을 선정한 이유는 그저 궁금했다. 입학하고 처음 수강신청을 할 때부터 과목이름만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나 말고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내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간호학과는 대부분 2학년 1학기 때까지만 교양과목을 듣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웠다. 항상 행복, 용기내는 법 등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을 독서를 통해 찾으려고 했지만 독서습관이 완전히 잡혀있지 않다보니 책 한권을 읽는 데 시간이 오래걸렸고, 책 한 권을 선정하는 과정도 오래 걸렸다. 하지만 학교에서 수업으로 배운다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고, 살아가면서 평생 기억에 남을 교과목일 것이라고 예상하여 수강신청사이트를 계속 새로고침하여 결국 이 교과목을 얻어냈다.

생각해보면 이 과목은 우리가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철학 교과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행복은 누구나 원하지만 발견하기에는 힘든 것 같다. 나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항상 과거를 돌아볼 때 비로소 내가 행복했었던 것을 깨닫는다. 이 과목은 막연하게 ‘행복’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여행, 직업, 등 여러 가지 삶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중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직업을 찾는 과정과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것과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려면 내 삶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수업 시작 후 처음엔 항상 교수님이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발췌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주신다. 내 기억에 남는 문장은 마지막 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별, 여행 등의 끝이 어떤가에 따라 추억이 편집된다. 끝이 아름다웠다면 언제 꺼내보아도 아름답고, 끝이 별로였다면 아쉬움과 후회, 짜증으로 가득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추억으로 남게 된다. 예전에 가족여행을 갔던 적이 있다. 분명 즐겁고 좋은 경험을 했을텐데 마지막 날에 갑자기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계속 구토를 했던 기억만 남아 이 여행이 끔찍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다. 그래서 교수님은 순간순간의 경험들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기록하신다고 한다. 나 역시 끝 인상이 추억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사진을 찍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블로그를 작성하여 기억하고 싶은 내 추억을 사진과 함께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글로 기록하고 있다. 가끔 내가 쓴 블로그를 읽으면 잊고 있던 행복들을 떠올리게 되어 미소가 지어진다. 내 인생의 찰나였던 순간들이 저장되어 나 내가 시간을 버리고만 있지 않았다고 증명해주는 것 같다. 또한, 나는 자려고 누우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데 결국에는 매번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를 하게 되어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졌다. 그래서 수업에서 배운 ‘감사일기’라는 것을 활용해보기로 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할 일들을 생각하는 것 대신에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3가지 이상 행복했거나 감사했던 일을 생각하기로 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그래도 오늘 하루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 전보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 맨날 후회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나의 삶이 후회로 가득한 삶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동안 내가 노력해온 것들이 전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분명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요즘 들어 간호사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2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간호에 대해 배우고 실습하면서 겁이 났다. 내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는 직업이 정해져 있어 전공 선택 후 진로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이제는 장점이 아니게 된 것이다. 생각보다 더욱 큰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이었고 그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 말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부담감이 더 커져서 두려웠다. 졸업 끝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해져 있는 간호학과에 진학한 것이 후회되기도 했고, 다른 학과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여러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수업 내용 중 어느 한 분야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

올여 최정상에 선 인물들을 소개해주셨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해냈다. 나는 그동안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걱정하고 겁먹고 결국 하지 않는 게 많았는데 내가 아무리 미래를 예상해본다고 해도 우리의 일에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물론 지금 당장 간호사가 아닌 다른 목표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간호사라는 목표에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내가 간호사라는 직업에 겁을 먹은 이유는 아직 간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 뿐이라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부한다면 이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목표에 온전히 몰입한다면 더 이상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목표는 나의 의지가 금방 무너질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 구체적이고, 내가 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플래너나 성적확인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포기하지 않게 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미련없이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기에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람에게서는 고통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도 나는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다시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또한, 나는 그동안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라는 생각을 할 때면 죄책감을 가지곤 했다. 하지만 이 하향적 비교가 가끔은 나에게 행복도를 증가시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향적 비교만 한다면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지만, 하향적 비교를 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해준다. 하지만 매번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이 아닌 그저 질투만 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 남들과 경쟁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나는 나와 경쟁하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 행복해질 것이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나를 더 알아갈 수 있게 되어 이 강의를 들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 배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며 도움을 줄 것이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 티칭 포트폴리오

2023. 06.



학생성장교양학부

교과목명	행복이란 무엇인가
교수자명	박영근
소속	초등특수교육과

교수자 개요

1. 교육 및 연구경력, 주요 담당 교과목

가. 교수자 소개

성명	박영근	전공분야	특수교육
소속학부	사범학부	학과(전공)	초등특수교육과
주요 담당교과	지적장애학생교육, 초등교과목,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나. 주요 교과목 강의경력 (최근 3년간)

기간(연도)	과목명	대상학년	교과 개요
2020. 3 - 현재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초등특수)	4학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교구의 제작, 활용방안을 연구, 고안, 실습함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내용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제작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수교사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교과목
2020. 3 - 현재	초등체육	3학년	초등학교 장애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체육지도를 하기 위해서 체육이론, 교수방법, 교육과정, 교재 활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과목
2020. 3 - 현재	장애학생전환교육	3학년	전환교육과 관련된 이론, 모형, 평가 및 계획에 대해 학습하고, 전환 교육의 과정과 전략,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정책적 지원에 대해 학습하기 위한 교과목
2020. 3 - 현재	지적장애학생교육	1학년	지적장애 학생들의 인지발달특성, 학습 특성, 심리 및 사회·행동적 특성, 언어 및 의사소통적 특성, 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지적장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행동,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성기술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과목
2020. 3 - 현재	초등미술	2학년	장애학생 교육에서 미술 교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향후 미술교과목 관련 교사, 관련 전문가로서 장애학생들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과목

기간(연도)	과목명	대상학년	교과 개요
2020. 3 - 현재	가족지원 및 부모교육	2학년	장애학생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가족지원의 중요성, 부모와의 교육적 협력방안, 장애학생 가족과의 협력 방안,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이론과 실천 전략을 학습하기 위한 교과목
2021. 3 - 현재	영화속 장애인권 감수성	전체학년	사회속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장애의 특성과 인권에 대해 교수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과목

II 교과목 개요 및 내용

1. 교과목 강의 요약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본인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울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사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동안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목표만 쫓아 살아가다 보면 목표를 성취하는 순간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러한 물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물음이다. 개인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수업은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행복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고자 한다.

2. 교과목 목표 및 교수전략

이 수업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모든 개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하고 이것이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첫째, 행복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물음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서 학습한다. 둘째,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에 대한 물음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좀 더 행복해지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에 대한 물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전략, 비전 설계 전략, 직업 선택 전략, 행복한 삶 설계 전략 등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과목 과제 및 평가 방법

이 교과목의 과제는 중간고사 이전에 7주간의 수업을 들으면서 ‘행복’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각자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적는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의 나에게, 20년 후의 나에게, 30년 후의 나에게, 40년 후의 나에게, 50년 후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각각 한 문장씩 써보는 것이다.

III 교과목 성과

1. 이것만큼은 학생이 본 교과목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것

행복이란 이론을 많이 안다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고 난 이후 행복하기 위한 삶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해왔던 많은 심리학자들의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여러 행복 심리학자들의 연구와 실천 방법들을 수업에 녹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고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행복에 대한 이론들, 전략들을 직접 실천해 보고 개인들의 삶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 교수님이 생각하는 해당 수업의 매력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것, 학업에 매진하는 것, 친구 관계를 맺어 가는 모든 것이 실상은 행복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평범한 것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목표를 성취 했을때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아주 가끔씩만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은 일상의 매 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취해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행복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우

리들이 매일 매일 성취할 수 있는 소소하면서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수업을 듣는 것 만으로는 어렵고,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하루 하루 실천해갈 때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IV 기타 자료

수업의 자료로 쓰고 있는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몇 가지 글을 소개합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글들은 이 수업의 핵심을 관통하는 ‘행복 철학’을 잘 담고 있습니다.

보통주의자의 행복

행복을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은 행복의 평범성이다.
드라마같은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의 비법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

가난과 질병의 질곡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초월적인 행복을 꿈꾸지만, 수입이 적당할 때, 좋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우리 모두 지극히 보통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다.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사랑에 관한 한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듯 행복도 그렇다.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사람들은 항상 ‘비결’을 묻는다.
전국 수석을 차지한 학생에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에게,
맨손으로 회사를 창업한 사업가에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싱겁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죠.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했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죠.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난감한 질문이다. 행복에도 특별한 것이 없으니 말이다.

행복이란 오로지 일상을 위한, 일상에 의한, 일상의 행복이다.

행복에는 신비로운 묘약이 없다. 행복은 그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밥을 먹고, 일을하고, 대화를 나누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사소함 속으로 더 깊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하루를 대충 산다는 건 일류를 원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대하는 것처럼 모순이다.

반전의 행복

반전은 평범한 이야기를 극적으로 바꿔준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반전이 있는 삶에 우리는 열광한다.

가장 부자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예쁜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면 인생은 별 재미가 없다.

신은 세상을 만들면서 곳곳에 반전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즐거울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이 누구보다 비범한 삶을 살 수도 있다.

학자들은 이를 '웰빙의 역설' 이라고 부른다.

행복에 단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면 이 역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을 결정하는 원인이 다수라는 점이 반전을 만들어 내는 이유다.

한 가지 원인에서 뒤진 사람도 다른 원인에서는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의 조건이 많다고 믿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 하나라고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이유다.

행복 천재들에게 늘 여유가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밥만 잘 먹더라

연인과 헤어지면 얼마나 힘들까?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이번 프로젝트를 실패하면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대개 과장되어 있다.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 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라는 노래 가사처럼 말이다.

사람에게는 고통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있다. 몸에 병균이 침투하면 즉시 면역 시스

템이 작동하듯이 마음도 심리적 면역 시스템을 가동한다.

종교를 찾거나 여행을 떠나고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거나 옛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당신, 당신의 회복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소한 어려움에 미리 겁을 집어먹거나 하찮은 시뻘거리에 흥분할 필요는 없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당신의 회복 능력을 믿어보라.

[부록1] 강의계획서

수업계획서

교과목명	행복이란무엇인가	교과목코드	11810-01			학점(시수)	2 (2 / 0)	
담당교수명	박영근	소속학과	초등특수교육과			연구실	031-8075-1719	
상담기간		수업시간	원격교양 수업			이수구분	자유교양	
대학핵심역량	공통핵심역량						주제구분	역사와철학
	인성	의사소통 및대인관계	글로벌 마인드	자기개발	고차적 사고	정보 및 기술활용		
	40			40		20		
핵심역량강화를 위한지도방법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러한 물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물음이다. 개인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수업은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행복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고자 한다.							

1. 교과목개요 및 목표

이 수업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모든 개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하고 이것이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첫째, 행복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물음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서 학습한다. 둘째,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에 대한 물음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에 대한 물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전략, 비전설계 전략, 직업선택 전략, 행복한 삶의 설계 등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업운영방법

교수학습 유형	비율
강의	80%
실험/실습	20%
합 계	100%

교수학습 방법	비율
문제중심학습(PBL)	20%
온라인강의	80%
합 계	100%

3. 과제물

- 7주간의 수업을 들으면서 ‘행복’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각자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적어보기
- 10년 후의 나에게, 20년 후의 나에게, 30년 후의 나에게, 40년 후의 나에게, 50년 후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각각 한 문장씩 써보는 것이다.

4.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비율
출석	20%
과제	10%
수시	30%
기말시험	40%
합 계	100%

5. 교재 및 참고자료

주 교 재	긍정심리학 (학지사)
참고자료	아주 보통의 행복 (21세기 북스)

6. 참고사항

* 과제 및 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 사항들을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대학생 지원]

- 지체장애 : 강의대필 / 이동지원
- 시각장애 : 학습튜터링 및 활동보조 지원
- 청각장애 : 학습튜터링 및 활동보조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등 : 강의대필 / 학습튜터링 지원
- 공통사항 : 수업조정에 관한 안내 지원, 시험 평가조정 지원,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상담 및 대여, 학습자료 상담 및 제작지원, 외국어학습 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등

장애학생지원센터 (충청캠퍼스 041.750.6327 / 고양캠퍼스 031.8075.1022,1026)

<장애대학생 지원>

- 지체장애 : 강의대필/이동지원
- 시각장애 : 학습튜터링 및 활동보조 지원
- 청각장애 : 학습튜터링 및 활동보조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등 : 강의대필/학습튜터링 지원
- 공통사항 : 수업조정에 관한 안내 지원, 시험 평가조정 지원,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상담 및 대여, 학습자료 상담 및 제작지원, 외국어학습 지원,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등

장애학생지원센터 (충청캠퍼스 041.750.6327 / 고양캠퍼스 031.8075.1022,1026)

7. 수업운영계획

주 차	강 의 주 제	과제	수업방법	교육 기자재
	수 업 내 용			
1	오리엔테이션		이론수업	ppt, 프로젝트
	성공 대신 소소한 행복			
2	내 인생의 방향		이론수업, 문제 해결학습	ppt, 프로젝트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주도한다.			
3	여가활동과 삶의 향유		이론수업	ppt, 프로젝트
	긍정적 인간관계			
4	행복의 심리학적 이론 I		이론수업	ppt, 프로젝트
	행복의 심리학적 이론 I			
5	행복의 심리학적 이론 II		이론수업, 문제 해결학습	ppt, 프로젝트
	행복의 심리학적 이론 II			
6	행복한 진로탐색		이론수업	ppt, 프로젝트
	행복한 생애설계			
7	비전에 대해 바로 알기		이론수업	ppt, 프로젝트
	내 인생의 비전 설계하기			
8	중간고사			
9	행복을 위한 나를 알기		이론수업, 문제 해결학습	ppt, 프로젝트
	나를 인정하고 나답게 살기			
10	행복을 위한 직업의 중요성과 직업 만족도		이론수업	ppt, 프로젝트
	직업활동과몰입, 직업과 자아실현			
11	직업의 설계		이론수업	ppt, 프로젝트
	직업세계의 변화 I			
12	직업세계의 변화 II		이론수업	ppt, 프로젝트
	직업세계의 변화 II			
13	직업 세계가 원하는 인재		이론수업, 문제 해결학습	ppt, 프로젝트
	나의 역량 개발 전략			
14	행복한 삶 설계하기		이론수업	ppt, 프로젝트
	행복한 삶 실천하기			
15	기말고사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양과목
‘AI시대의휴먼서비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
학생성장교양학부
학과 : 항공서비스학전공
학번 : 92101525
이름 : 강은교

중부대학교

1. 교과목과 교수님 소개

2022년 2학기, 'AI시대의 휴먼서비스'라는 자유교양을 듣게 되었다.

이 과목의 주제는 과학과 기술이며 고차적 사고, 자기개발 역량 강화를 기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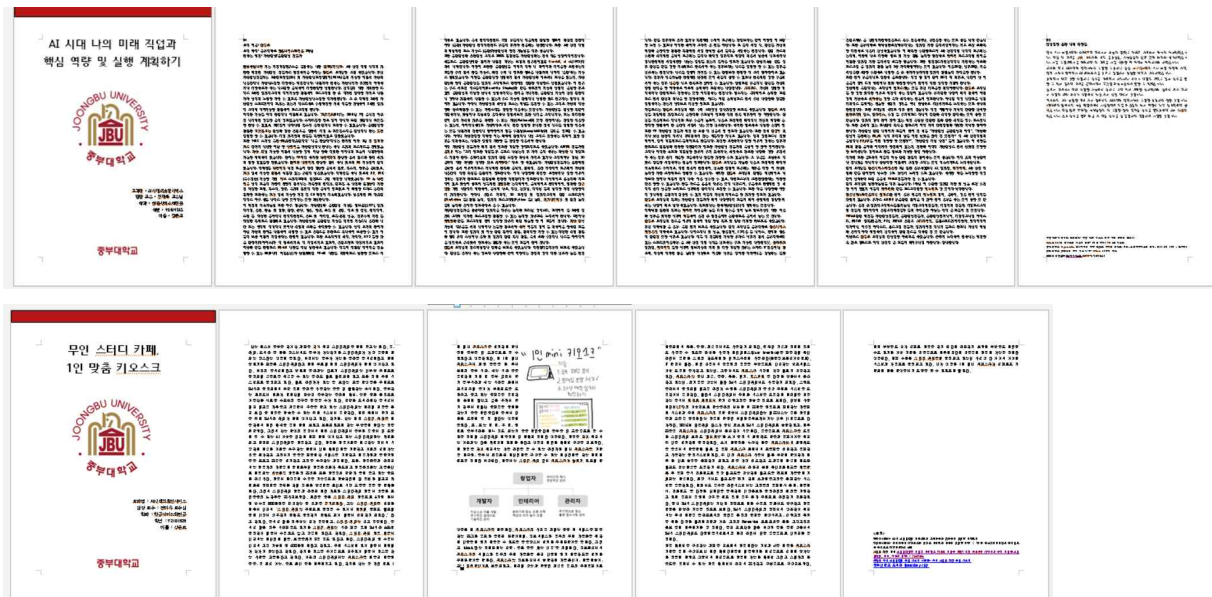
특히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진로의 탐색-설계-실행의 하위역량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 고령사회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 휴먼 서비스 영역에서 AI 리터러시를 갖추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진로 목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직업 개발을 탐색하며 자기개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끈다. 이 과목의 교수님은 전미옥 교수님이다.

교수님께서서는 카리스마 있으시며 학습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 주신다.

매 수업 전 학생들이 수업과 과제를 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공지를 올려 미리 알려 주신다. 또 모르는 것이 있어 연락을 드려 여쭙어 보면, 친절하게 알려 주신다. 딱딱한 분위기는 전혀 없고 친절하고 학습을 알려 주는 어머니 같은 느낌이 크게 든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집중하여 경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학년인 지금도 '디지털시대의 감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미옥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다. 다음 학기에도 이 교수님의 수업이 개설 된다면 들을 의향이 매우 크다.

2. 해당 교과목 선정 이유

수강 신청을 실패해서 얼떨결에 듣게 된 과목이었다. 나의 관심사와 완전히 반대였고 무지의 상태였던 AI에 대해 배울 생각을 하려니 막막하기만 하였다. 다행이 원격 과목이라 복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어려운 내용은 다시 보고 반복 학습하곤 하였다. 이 교과목을 들으면서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해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와 동시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분량이 꽤 긴 과제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니 학습의 재미도 깨닫고 나에 대한 믿음도 생겨나갔다. 또한 과제를 제출하고 난 뒤 교수님의 따뜻한 피드백에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과제를 작성하면서 중간 중간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내가 자신 있는 분야의 내용이 아니었기에 아무리 관련된 글을 찾고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산 넘어 산처럼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이 과제들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다. 새벽 4-5시 까지 관련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내 한계를 뛰어 넘은 경험이었다. 정말 쉽게 조금씩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처음으로 나에게 어려운 난의도의 강의와 과제였기에 가장 기억에 남았고 후배들에게도 자신을 뛰어 넘고 싶다면 추천해주고 싶은 교과목이기에 선정하게 되었다.

그 당시 수업을 들을 땐 수강신청 한 것이 후회되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자책만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내가 수강한 교양 과목 중 가장 영양가 있는 교과목이라 생각이 들었다. 이 수업을 통해 얻은 것이 힘들었던 것 보다 훨씬 많기에 후회 하지 않는다.

3. 교과목의 특징

AI 시대 휴먼서비스와 관련된 직업 종사자로서의 진로개발과 고차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과목으로서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2022년 이후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분석 및 디지털시대의 변화를 배웠다. 국내외 해외의 AI 융합 기업가정신 혁신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창의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도 하였고 AI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도 알게 되었다.

또 AI가 많이 발전 된 만큼 우리 시대에는 이점도 많지만 그 만큼의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에 따른 AI와 공존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연습도 하였다.

매주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일주일에 30-40분 정도의 강의가 2개씩 올라왔다.

또 AI윤리적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토론의 주제는 AI시대 장점과 단점,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인가? 였는데 처음 나의 생각은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AI의 발전으로 세상은 훨씬 편리해졌으며 사람들은 이로인해 시간이 더 생기고 자신의 활동을 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토론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은 바뀌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이 논리 정연하게 말한 토론의 내용은 나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윤리 문제,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정보 격차, 자율 주행 자동차의 윤리 문제 등, 등 내가 몰랐던 많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막연히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만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하는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4. 교과목을 통해 성장하거나 변화한 내용

처음에 과제를 접하였을 때 의문이 들었다. “과연 내가 이 많은 양의 분량의 과제를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모르는 ai의 관한 내용인데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의 고민을 더하여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ai시대의 창업 예비조사를 하는 거였다.

나는 현재 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무인 스터디카페 키오스크를 생각했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면서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아쉬운 점과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였다.

스터디카페는 장시간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러한 장점이 약효과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학생들은 잠에 들고, 또 깨워줄 사람도 없기에 그대로 숙면을 취하고는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려 하였다.

1인 미니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회원 등록을 한 다음, 공부 시간 쉬는 시간을 입력하면 개인별 공부 패턴에 맞게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을 화면에 표시해주며 풀고 있는 문제집을 입력하면 자신이 끝내고 싶은 주차에 맞게 하루에 얼마나 문제집을 풀어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1:1 선생님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키오스크가 스터디 카페에 탑재되어 있으면 학생들은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용객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였다.

두 번째 과제로는 나의 미래 직업과 핵심역량 및 실행 계획하기라는 프로그램을 했다. 이 과제는 자신이 기업역량연구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나’를 코칭해주는 활동이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나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과제에서는 고객의 직무 스타일별 검사 유형을 조사해야 했는데, 그 고객은 나였다. 내가 나의 학교활동과 내 역량을 다시 집어보고 나의 직량과 어울릴만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유망한 직업을 탐색하는 작업이었다.

과제 내용 중)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에서는 컴퓨팅 기반 문제해결이라는 기초 교양 교과목을 개편하고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 개발과 정보 및 기술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컴퓨팅 기반 문제해결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론25강, 실무20강, 기출해설특강14강을 수강하고 시험을 본 후 국가기술자격인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따니다. 일상적인 측면에서는 고객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 게으름을 없애야합니다. 강은교 고객님은 할 일을 최

대한 미루고 직전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침 일찍 기상하고 해야 하는 일을 즉각 처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독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간접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합니다. 가상현실 관련 서적이자 도움이 많이 될 책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미래”, “가상현실 개념 사전” 등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VR의 활용 분야와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는지, 전망과 미래에 가상현실로 인해 변화될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읽어보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길 바랍니다. ~

이런식으로 과제를 제출 했었다.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나의 커리어와 현재 유망하게 커져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겹쳐서 나를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나는 나의 장점과 내가 해야 할 것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찾을 수 있었다.

자료	시시대의휴먼서비스	2	96	4.5	A+	과학과기술
----	-----------	---	----	-----	----	-------

교수님께서도 내가 노력한 것을 알아주셨는지 만족한 점수를 얻게 되었고, 이로써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상식적인 교육이 아닌 현재 우리 세대에 필요한 공부의 내용을 다루고,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과제를 통하여 나는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 물론 이 수업을 들으면서 몇몇 학생들은 과제가 너무 많다며, 내용이 어렵다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것을 반전시켜 기회로 삼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고 참여하고 시험을 본다면 나처럼 모든 강의가 끝난 후에 부듯함과 지식을 얻었다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교과목이후로 나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일단 시작 해보고 생각한다. 어려워도 차근차근 해보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 하지 않는 자세를 기를 수 있게 되었다.

내년, 내후년 다른 후배들도 겪어보고 뜻 깊은 경험을 해보고 좋은 것을 느꼈으면 한다.

“ 1인 mini 키오스크 ”



- 기능
1. 공부 패턴 분석
 2. 문제집 분량 체크 ✓
 3. 좌석 예약 상태 확인하기

일정 시간	15시 20분	무엇의 권력 패턴	문제 리:매
종료 시간	22시 50분	8:20	공부
차량의 할 일 차	16:20	10:20	공부
대학 문제집 20장차	11:20		식사
영어 Workbook Unit 3	19:20		공부 도서
주어 3인원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 티칭 포트폴리오

2023. 06.



학생성장교양학부

교과목명	AI시대의휴먼서비스
교수자명	전미옥
소속	학생성장교양학부

I 교수자 개요

1. 교육 및 연구경력, 주요 담당 교과목

가. 교수자 소개

성명	전미옥	전공분야	홍보
소속학부	학생성장교양학부	학과(전공)	진로담당
주요 담당교과	AI시대의휴먼서비스, 자기탐색과성장비전, 미래설계와창직		

나. 주요 교과목 강의경력 (최근 3년간)

기간(연도)	과목명	대상학년	교과 개요
2020-2023	자기탐색과성장비전	1	• 자아탐색을 통한 진로 모색 • 자기주도학습 통해 인생비전설계
2020-2023	미래설계와창직	1	• 미래직업설계를 통해 진로 모색 • '창직' 통해 전공간 융합 직업 탐색
2018-2021	글과사고	전학년	• [원격수업]글쓰기의 기본 이론을 익히고 글읽기-생각하기-글쓰기를 통해 문해능력을 확보하고 작문의 다양성 제고
2020-2023	디지털시대의 감정커뮤니케이션	전학년	• [원격수업]디지털 소통과 감정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 함양 • 나-타인-우리 감정공감 통해 소통 증진
2022-2023	AI시대의휴먼서비스	전학년	• [원격수업]4차산업혁명시대,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AI 리터러시를 활용해 진로직업 탐색

II 교과목 개요 및 내용

1. 교과목 강의 요약

- 초고령사회와 4차산업혁명의 시대,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AI 리터러시(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를 갖추고 이를 활용해 진로 직업 개발을 탐색해볼 수 있다.
- 4차산업혁명 이후 미래세계의 변화, 새로운 트렌드, 서비스의 변화, 디지털 세대의 등장 등 라이프스타일 연구와 함께 AI 관련 전 산업분야에서의 실전 사례, AI 윤리 관련 주제의 토론 등을 통해 수강자인 Z세대 학생 스스로 자존감의 바탕에서 AI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 자기탐색과 진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AI 기술의 응용과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내외 해외의 글로벌 빅테크기업, 국내기

업의 AI 접목시킨 융복합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진로 측면에서 각 산업군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인재로의 진로 지원을 이끈다. (AI+소프트웨어전공, AI+호텔비즈니스전공, AI+문화예술전공, AI+복지전공, AI+전기전자자동차전공 외 융복합 사례 지원)

2. 교과목 목표 및 교수전략

- AI 시대 휴먼서비스와 관련된 직업 종사자로서의 진로개발과 고차적 사고능력을 키운다.
- 2022년 이후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분석 및 디지털시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국내외 해외의 AI 융합 기업가정신 혁신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창의적 마인드를 함양시킨다.
- AI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적 가치를 인식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AI 리터러시(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를 갖추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주도적으로 설계한다.
- AI와 공존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 진로탐색-설계-실행력을 개발할 수 있다.

3. 교과목 과제 및 평가 방법

1) 과제 1

가) 과제명 : AI 시대 나의 미래 직업 (30점)

나) 과제설명 : AI 시대 나의 미래 직업을 선택하고 핵심 역량을 도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직업 중 나의 관심분야 직업을 선택한 후 직업의 핵심 업무와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직업을 갖기까지 대학생활 동안의 액션플랜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배우고 실천할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과제1 시나리오]

#1. 문제 상황

현재, 당신은 <기업역량연구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커리어 코칭을 진행합니다. 지금, 4차산업혁명시대의 유망한 기업으로 취업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은 바로 000(본인)입니다!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성)

여러분의 고객 000은... (고객은 본인 자신) AI에 기반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LMS 강의자료실 내 직업 리스트 보기, 워크넷 직업 등 참고)

현재 여러분의 고객은 대학 0학년입니다. 그렇다면 000 고객님의 원하는 해당 직업에 필요한 AI시대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객이 대학 졸업 시점까지 그 역량들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학년으로 설정) 000 고객님의 커리어 코칭을 진행해 주십시오.

#2. 해결 과제

000 고객님의 이 직업을 가지려면 핵심역량 중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역량부터 개발해 나가야 할까요?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영역으로 나누어 개발해야 할 역량을 구분하여 제시해주세요. 나아가 대학생활 동안 이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커리어 코칭 보고서’를 만들어주세요.

#3. 액션플랜

① (LMS 강의자료실) 직업 리스트를 보고, AI 관련한 미래 직업을 선택합니다.

② 그 직업을 ‘정의’ 하고 이 직업의 ‘핵심 업무’를 정의해보십시오. 또한 이 직업은 산업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기대효용(만족감)의 개인적 측면에서 기존 직업과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 관련 자료를 찾으며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③ 직업의 핵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핵심 역량’이 필요할지 정돈해봅니다.
- ④ 그리고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해, 현재 000 고객님의 위치를 평가해 보세요.(3인칭 시점=본인)
- ⑤ 현재 고객의 위치를 파악한 후 고객이 대학생활 동안 각각 어떻게 역량을 향상시킬 것인지 ‘학교생활(공부)’과 ‘일상생활’로 구분해 액션 플랜을 작성해봅니다.
- ⑥ 000 고객님의 졸업후 00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경력 경로를 따라 준비해 가야 할 지 실현 가능한 커리어를 계획하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기술해봅니다.
- ⑦ 끝으로 위 컨설팅을 통한 나의 깨달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보고서 작성 요령

- ① 한글파일(최소 3페이지 이상 5페이지 이하,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 기준)로 작성하여 LMS-과제방에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과제 뒷부분에 반드시 정보의 출처를 밝히기 바람, 최소 5개 이상의 정보를 활용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③ 본인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컨설팅하되, 구체적인 액션 플랜, 발전과 성장을 볼 수 있도록 작성하기 바랍니다.
- ④ 표절률이 높은 경우 감점처리됨을 안내합니다.

2) 과제2:

가) 과제명 : AI 시대 창업 예비조사

나) 과제 설명 : 관심 있는 창업 아이템을 정하고 그 아이템에 필요한 직무와 직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정의하고, 창업에는 어떤 인력이 필요하며 그 인력은 어떤 일을 하는지 제시한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른 스타트업 회사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실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을 모두 제시한다. 그 일을 위해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지 조직도를 그리고, 필요한 인력의 유형 및 수 그리고 그 인력의 기능을 모두 정의한다.

- ① 전공과 연관 있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흥미 있는) AI 창업 아이템 정하기
- ② 해당 창업 아이템에 필요한 직무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정의하기
- ③ 관련 있는 해당 분야의 스타트업 회사 자료 조사를 실시한 후, 본인이 창업하려는 회사의 ‘조직도’ 작성과 부서의 역할 기술하기
- ④ 과제 작성 후 배운 점

3) 과제평가 준거 및 배점

과제1	평가준거	평가내용	역량/행동지표	배점
AI 시대 나의 미래 직업 (30)	직무(직업)의 AI 적합도	1. 선택된 직무나 직업이 AI 시대에 적합한 직업으로 정의되고 기술되었는가? 1-1. 이 직무(직업)가 직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1-2. 이 직무(직업)는 기존의 유사 직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① (LMS 강의자료실) 직업 리스트를 보고, AI 관련한 미래 직업을 선택합니다. ② 그 직업을 ‘정의’하고 이 직업의 ‘핵심 업무’를 정의해보십시오. 또한 이 직업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기존 직업과 어떤 차이가 드러나는지 관련 자료를 찾으며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20%
	필요한 역량과	2. 선택한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했는가? 3. 자신의 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구분했는가? (평가 근거 포함)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20%

역량 수준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㉔ 직업의 핵심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핵심 역량'이 필요할지 정돈해 봅니다. ㉕ 그리고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해, 현재 000 고객님의 위치를 평가해 보세요.(3인칭 시점=본인). 		
역량 달성 목표 및 향상 계획	4. 자기탐색과 자기분석을 토대로 대학생활 동안의 목표와 성취 수준을 설정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㉖ 000 고객님이 졸업 후 00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경력 경로를 따라 준비해 가야할지 실현가능한 커리어를 계획하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기술해봅니다. 	진로의 탐색	10%
	5. 대학생활 중 해당 역량을 끌어올릴 방법을 설계했는가? 5-1. 공부 측면 (복수전공, 부전공/자격증/대외활동 외) 5-2. 일상생활 측면 (시간관리, 독서, 체력증진, 봉사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㉗ 현재 고객의 위치를 파악한 후 고객이 대학생활 동안 어떻게 역량을 향상시킬 것인지 '학교생활(공부)'과 '일상생활'로 구분해 액션플랜을 작성해봅니다. 	진로의 설계-실행	20%
	6. (기대효과) 액션플랜에 의한 피코치인의 성장 가능성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㉘ 끝으로 위 컨설팅을 통한 나의 깨달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로의 실행	10%
자료의 활용 및 생산	7. 나만의 콘텐츠로 만드는 창의적 스토리텔링 요소가 있는가?	창의적 생산 및 공유	10%
	8. 과제 해결에 필요한 체계적 자료 접근과 정보분석 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정보분석처리	10%

과제2	평가준거	평가내용	역량/행동지표	배점
AI 시대 창업 예비 조사 (10점)	AI 창업 아이템의 선정	1. 창업 아이템과 나의 관심(전공, 흥미, 적성)의 관련성이 기술되어 있는가? 2. AI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참신한 혹은 독창적인 아이템인가?	창의적 사고	30%
	업무와 기능	3. 해당 창업 아이템에 필요한 업무(직무)와 기능, 필요한 역량을 잘 정의하고 있는가? 이는 타당한가?	진로의 탐색-설계-실행	30%
	회사의 조직도와 부서의 역할	4. 과제수행에 적합한 AI 스타트업 사례를 수집 분석 활용했는가?	정보분석처리	20%
		5. 해당 창업회사의 조직도는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잘 포함하였는가? 조직도에 제시된 부서의 역할과 업무 수행 인력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정의하였는가?	논리적 사고	20%

4) 성취과제의 핵심역량 관련 평가 루브릭

가) AI 시대 나의 미래 직업 (30점)

평가준거	해당역량	행동지표			
직무 (직업)의 AI 적합도	고차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적합성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기존 직무(직업)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된 직무나 직업에 대해 AI 시대의 기술과 문화를 반영하여 설명하려는 노력이 엇비이고 직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요소 중 일부가 설명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된 직무나 직업에 대해 AI 시대의 기술과 문화와의 관련성이 제시되어 있고, 직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요소가 모두 설명되어 있다. 	①-----②-----③-----④-----⑤-----⑥
필요한 역량과 역량 수준 진단	고차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언급했으나 역량 분석과 역량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평가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했으나, 역량 수준의 평가 근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깊이 있는 정보와 추가 활동이 부족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근거로 필요 역량과 현 역량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 평가 근거가 명확하며 합리적이다. 	①-----②-----③-----④-----⑤-----⑥
역량 달성 목표 및 향상 계획	진로의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인 자기탐색 및 자기분석의 증거가 빈약하거나 학업분야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탐색 및 자기분석을 토대로 진로 목표와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전공 분야의 학업과 연계된 실천 및 극복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다소 일관성 및 관련성이 부족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자기탐색, 자기분석을 토대로 진로 목표와 성취 수준을 설정했고, 내 전공분야의 학업과 연계한 실천과 극복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일정 수준의 일관성 및 관련성이 있다. 	①-----②-----③-----④-----⑤-----⑥

평가준거	해당역량	행동지표					
		①	②	③	④	⑤	⑥
자료의 활용 및 생산	창의적 생산 및 공유 · 정보분석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성취 수준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역량 향상 계획 및 기대 효과가 불분명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활 동안의 목표와 성취 수준을 설정의 근거가 분명하고, 대학생활 동안 해당 역량의 향상 계획이 공부와 일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을 실행하였을 때의 기대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한 정보를 조합하고 나의 콘텐츠로 가공해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시켰다. 과제 해결의 일부 과정에서 체계적인 자료 접근과 정보 분석 처리가 이루어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활 동안의 목표와 성취 수준을 설정한 근거가 분명하고, 대학생활 동안 해당 역량의 향상 계획이 공부와 일상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부전공, 복수전공, 자격증, 대외활동, 시간관리, 독서 등 포함)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을 실행하였을 때의 기대 효과가 비판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가 정보의 나열 중심으로 작성되어 스토리텔링이 약하다. 과제 해결 과정의 전반에서 체계적인 자료 접근과 정보 분석 처리가 부족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 작성시 자신만의 적절한 창의적인 단어와 문장을 사용되었다. 과제 해결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자료 접근과 정보 분석 처리가 이루어졌다. 				

나) AI 시대 창업 예비조사 (10점)

평가준거	해당역량	행동지표					
		①	②	③	④	⑤	⑥
AI 창업 아이템의 선정	창의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창업 아이템이 나의 관심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낮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창업 아이템이 나의 관심과의 관련성이 기술되어 있고, 그 아이디어가 일부 참신하고 독창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창업 아이템이 나의 관심과의 관련성이 기술되어 있고, 그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독창적이거나 실용화되었을 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다. 			
업무와 기능	진로의 탐색-설계-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창업 아이템에 필요한 업무, 기능, 역량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자료와 근거가 부족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창업 아이템에 필요한 업무, 기능 역량이 대체로 기술되어 있으나 관련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엄밀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창업 아이템에 필요한 업무, 기능 역량을 관련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타당하게 정의하고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회사 조직도와 부서의 역할	논리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회사의 조직도가 부적절하거나, 제시되어 있더라도 부서와 역할 혹은 주요 인력의 역할 등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한 스타트업 정보를 토대로 창업 회사의 조직도를 그리고, 조직도에 맞는 부서와 역할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주요 인력과 그 역할에 대한 기술은 부족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조사를 기반으로 창업회사의 특성에 맞는 조직도를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부서와 역할, 주요 인력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정보분석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을 위한 스타트업을 조사했으나 동일 업종이 아니거나 연관성이 적은 스타트업을 인용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하려는 회사와 분석한 스타트업 회사 간의 유사성이 일부 있으나 분석한 결과를 과제 해결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업종의 스타트업 사례를 탐색하고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할 회사의 조직도 및 부서의 역할, 인력과 기능을 구축하는 데 적극 활용하였다. 			

III 교과목 성과

1. 이것만큼은 학생이 본 교과목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것

■ <AI시대의휴먼서비스> 교과목은 초고령사회와 4차산업혁명의 시대,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AI 리터러시(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를 갖추고 이를 활용해 진로 개발을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AI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 비즈니스적 가치를 인식하고 학교생활에서도 과제를 통한 액션플랜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자신의 영역에서 AI와 공존하기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커리어로드맵을 만들게 된다.

■ <AI시대의휴먼서비스> 교과목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고차적 사고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나 이해를 넘어서서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미 알고 있는 지식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

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역량'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들이 2개의 과제를 통해 자신들이 마련하는 해결 아이디어 개발 과정에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역량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과제의 경우, 평가 준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각 항목별 '루브리'를 만들어 안내하고 있는데,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인의 진로 설계와 커리어 로드맵 측면의 성취 결과를 만들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 아래 과제별 성찰 사례를 보면 학습자들에게 AI를 통한 진로 역량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인을 3인칭 시점으로 보고 컨설팅하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과제1 우수 성찰 사례]

김○○ 학생 : 커리어 코칭을 진행하면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유망한 직업들을 조사하면서 직업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야별로 다양한 직종들이 있고, AI나 ICT와 접목시킨 새로운 직업들도 많다는 것을 배웠다. 사실 어떤 직업이 나와 어울릴까 고민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래 희망은 '동물보건사'이지만, 다른 분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직업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중 찾게 된 직업이 '스마트팜 전문가'이다. 중고등학생 때도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중학교 때는 일반계고가 아닌 농고에 진학하여 바이오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을 정도로 관심 있었고, 흥미를 느꼈다. 현재 전공이 반려동물에 관련한 학과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식물 재배나 농업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다. '스마트팜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가질 수 있는지, 현재 내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커리어 코칭을 통해 찾아보면서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전문가에 큰 매력을 느꼈다. 특히 스마트팜은 한 가지인 줄로만 알았는데,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등 다양한 스마트팜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대학교 3,4학년 전공과목에 사료 작물학, 가축 위생방역 및 축산경영학, 동물번식생리학 등 축산업에 대한 과목이 있다. 위 과목들을 잘 배워 나중에 스마트팜 전문가가 되어 내가 스마트 축사를 디자인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학교를 졸업하면 전공을 활용하여 농업인들과 가축들이 조화롭고 화목하게 공존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설계해주는 스마트팜 전문가가 될 것이다. 가축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농업인들 또한 좋은 환경에서 가축들을 정성껏 키울 수 있는 스마트 축사를 설계해주고 싶다. 비록 가축들의 삶이 반려동물만큼 행복하지는 않지만, 축사에서 사는 시간만큼은 그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꿈이다. 그리고 스마트팜과 동물 복지가 융합된 사업을 하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 동물복지 개선에 대해 많이 논의하고 있다. 아직 미국, 독일, 영국 등 서양 국가들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예전보다 동물복지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동물복지를 위한 법 개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른바 펫팸족(pet family)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 맞춰 정부와 사람들의 관심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스마트팜과 나의 전공인 동물 복지를 융합시킨 사업을 하여 동물 복지 개선에 기여하고, 반려인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한 신기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이번 커리어 코칭을 통해 나의 대학 생활과 미래 계획을 세웠으니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 미래를 위한 공부와 더불어 AI시대와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살 수 있을지, 나의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나가겠다.

김○○ 학생 : 컨설팅을 통하여 나는 생명과학 연구원이 되려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과를 옮기거나 편입을 해야만 가능한가 싶어 불안했는데, 생명과학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내가 원하는 동물 분야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생명과학 연구원을 조사해 보면서 생명공학과, 생물학과 등 여러 학과들이 나와 있었지만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애완동물학과는 없었기에 조금 막막하다 싶었는데 마침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의약품 연구개발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생명과학 연구원 진출 분야에는 의약품 제조업

체에 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면서 이 직업과 AI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했는데 여러 기관과 손을 잡고, 심지어는 인공지능과 함께 개발한다고 하여 신기하기도 했고 기술의 발전에 대해 대단함을 느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동물보건을 희망해 왔는데, 사실 언제까지 이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직업에 대해 안정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직업이니까 걱정은 뒤로 미뤄두고 현재에 충실하자는 나의 집념이 있었는데, 이번 직업을 찾아보면서 흥미가 꽤나 생긴 것 같다. 연구원 직업 특성상 야근이나 새벽 출근 등이 있다고 하지만 만약 내가 이 직업을 꼭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생각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동물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꼭 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평생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사실 나한테는 연구원이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생각났는데 이번 직업 조사를 통해 그것은 내 고정관념이었음을 깨닫고 생각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오면서 앞으로 기술은 더 빨리 발전될 것이고, 연구할 주제도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은 물론 연구도 더 많이 진행될 것이고, 언젠가는 인공지능과 함께 할 사회가 올지도 모른다. 내가 만약 동물보건사라는 직업에 관해 고민이 커졌을 때나 조금 막막해질 때, 혹은 다른 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생명과학 연구원에 대해 더 조사해 볼 생각이다. 컨설팅을 통해 나한테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무엇이 부족하고 더 성장해나갈 필요가 있는지 나의 전공 뿐만 아니라 역량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정○○ 학생 : 일단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직업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빈집 코디네이터에 대해 알게 되어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막연했던 진로에 길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제 3자의 입장에서 나를 분석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막상 해보니 나에게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고 나라면 하기 싫은 일도 남에게 시킨다고 생각하니 막힘없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왜 이 전공을 골랐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 바빠 진지하게 나의 진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역량을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제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이 직업이 아니라도 큰 틀은 같을 것 같아서 열심히 액션플랜대로 살아 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정○○ 학생 : 컨설팅을 통한 나의 깨달음은 하나였다. 내가 많이 모자라구나. 내가 사회를 만만하게 본 거 같다. 나 정도면 그래도 필요한 역량은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게 너무 많았다. 사회는 점점 발전해 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뭔가 직업에 대해 찾아보고, 내가 그 직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발전해가는 이 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나도 빠르게 발전해가는 이 세상에서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끌고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추○○ 학생 : 미래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새로 깨달아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격증 준비부터 핵심 역량까지 알아볼 수 있어서 유익했고 미래에 대해 막막했지만 앞으로 꿈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꿈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 자신감도 생기고 삶이 활기차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는 데에 있어 명확해지고 큰 시너지를 발휘하여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 학생 :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의 시대가 도래했다. 조사하면서 생각보다 시각적 분야의 중요성이 커졌다는걸 느꼈다. 멀티미디어 디자이너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엔터테인먼트, 홍보 및 마케팅, 교육·훈련 실습, 업무수행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니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단순히 보여주는게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보니 컨설팅도 더 집중하게 되고 세세하게 알아가면서 나의 무지했던 정보력에 대해 반성하며 좀 더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해볼 수 있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다 객관적으로 컨설팅해야 되는게 재미있고 신선했다. 나의 직업 방향성을 찾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과제2 우수 성찰 사례]

조○○ 학생 : AI시대의 휴먼서비스 수업을 처음 들을 때에는 메타버스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져 거리감이 있었다. 그러나 과제를 부여받고 AI와 관련한 창업을 고민하였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메타버스였다. 용어적 개념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지만 메타버스 자체는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메타버스를 게임과 커뮤니티뿐 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서 최근 불편을 겪었던 온라인 의류쇼핑몰의 이용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접목시켜 두 가지를 보완해 이번 과제의 주제를 생각해 내게 되었다. 주제가 정해진 후 쉬울 것이라 생각했던 이번 과제는 내가 생각한 것을 구체화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창업은 아이디어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닌 세밀한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정해진 과제의 틀에 따라 작성하면서도 머릿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실제로 창업을 하며 내가 생각하는 틀을 구체화하고 다른 이에게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었다. 그렇기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과제를 작성하며 다른 이들이 하는 일이 쉬워보여도 수 많은 노력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과제를 진행하며 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자료수집 등에 대해 한 번 더 배우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다. 내가 가진 생각을 레포트라는 틀 안에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진을 조합하고 표로 나타내고 조직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처음이라 새로운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밑받침 삼아 다음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일이 생겼을 때 이번의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안○○ 학생 : 평소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큰 관심조차 없었지만 스타트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관심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소 즐겨 쓰는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 쿠팡 토스 등의 어플들이 모두 스타트업 회사 인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방향의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직무 또한 생각하고 공부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여러 직무가 여러 분야에 널리 퍼져있다는 사실 또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회사의 취직만을 목표로 하는 저에게 나의 미래 방향성 중 하나가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또한 다른 스타트업 회사를 조사함으로써 만약 창업을 시도한다면 쉽게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해야 위와 같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생 : 창업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학기동안 수업을 들으며 생각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정,설계분야에 원래 관심이 있었고 메타버스나 ai기술은 건축에는 안 어울리는 기술이라고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하고 수업을 듣다보니 ai기술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고 가상공간을 설계하고 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건축업계도 점점 4차 산업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제 진로에 있어서도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근 3d모델링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톨들에 관심이 생겨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또한 수업에 대하여 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공부를 시작하게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 학생 : 솔직히 온라인쇼핑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번 해본적이 있다. 요즘들어서 옷에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겼다. 이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바로 생각이 난 것이 AI스타일링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오드컨셉이라는 데를 알게 되었고 이것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면 어떨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스타일링을 해준 것들이 많이 올라와있다. 하지만 개인의 체형에 맞춘 옷들에 추천해주는 것은 없고 모델 핏을 기준으로 하는 옷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기술을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면 자신에게 제일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어 사는 사람도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필요한 조직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에서 놀란거 같다. 나는 그냥 단순하게 발로 뛰면서 일을 하면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매우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하는 아이템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인력이 필

요하고 고급 기술자들이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솔직히 창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쉽게 다가가게 되면은 내인생이 위태롭게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거 같다. 창업은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성공은 아무나 할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래도 창업을 하고 싶으면 그 시장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조사를 해보거나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일을 한 후 경력을 쌓고 시작해야 한다고 다시한번더 생각이 든다.

2. 교수님이 생각하는 해당 수업의 매력

-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학습 편의성 : 원격수업의 특성상 학습시간을 학습자가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교안이 제공되는 등의 편의로 인해 수강 인원이 매학기 늘어나고 있으며, 2개 분반으로 진행하고 있다.
- 본 교과목은 온라인교양교과목 중 자유교양 핵심역량 성과 평가도구 루브릭 방식을 적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매학기 학습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루브릭 평가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 과제를 통해 본 교과목이 기대했던 ‘AI 리터러시’를 통한 AI를 알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수한 아이디어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 AI시대에 필요한 직업 역량,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AI가 개인과 진로(직업)에 주는 영향, AI가 제공해준 결과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스스로 추론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부분 등 수업후 역량 변화의 수준이 상승하였음을 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선택한, 혹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직무-역량을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탐색과 설계 측면의 자기개발 역량을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들이 2건의 과제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느낀 점, ‘자기 성찰’을 작성하도록 해서 자신의 진로와 주도적 성취 지향측면을 고민하고 이를 자신의 커리어에 적용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 토론 과제인 ‘AI와 윤리’의 경우 본인의 의견과 각 학습자간의 토론 댓글을 통해 온라인 상 토론을 진행하며 학습자 스스로가 토론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배려심을 기를 수 있고,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 학습자 피드백의 경우, 학생수가 190명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개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힘들기에 피드백 제공에 대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체 과제에 대한 피드백 외에 우수과제에 대한 공유, 성찰 노트 공유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Big Question:

1. AI는 미래사회와 라이프 스타일,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MZ세대 등 디지털 신인류 등장과 함께 직업 세계의 인재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3. 직업세계에서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4. AI 사회의 도래, 산업 영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직무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

■ Big Idea : AI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트렌드, AI와 각 산업의 변화, MZ세대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산업계 AI 융복합 사례, AI시대의 인재상,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살아가기, AI와 윤리

IV 기타 자료

※ 강의 자료 일부

01 Human as a Service

AI시대의 휴먼서비스

전미옥 교수

1주차

1-1

과목 오리엔테이션

Thinking

❖ AI가 일어나는 세상

생각해보기

▶ 인공지능 SNS인플루언서 '로지(Rozy)'의 등장
▶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일, 생활, 여가로 본 인공지능 변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변화 예측

일 **생활** **여가**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10대 미래 유망 기술

인공지능(AI)	뇌 과학
핵융합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차	우주 발사체
휴머노이드 로봇	가상현실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와 바

* 출처: 1. 세계경제포럼(WEF)

AI 스피커

▶ 전 세계적으로 주목해야 할 플랫폼 텍스트보다 음성에 주목, 모바일 시대의 스마트폰

▶ 목소리가 콘텐츠, 목소리로 검색하고 목소리통해 정보, 서비스 제공

▶ 아마존 에코스피커: 시장 1위(31%)

▶ 알렉사 출시(2014), 스마트장치 연결

▶ 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29.8%)

▶ 알리바바(11.1%), 사오미(9.7%)

▶ 음성인식 인공지능 사용자 대부분 소년과 음악취취 기능 활용

- 음성 인공지능은 쇼핑 시대 도래!

Talk! 자율주행차와 미래생활!

[내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차는?]

- ✓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사용한다면?
- ✓ 레벨5가 되면 차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 ✓ 그것을 하려면 차의 실내는 어떤 모습?

디지털 혁신의 핵심, DX

DX 1.0 시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도입 기술이 핵심

DX 2.0 시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심

DX: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용 의사결정의 중심에

메타버스 재부상 배경

유형	설명
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증대
②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확대,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등 비대면 산업이 주목을 끌고 있음	대규모 집회, 산업현장 등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협업과 유사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메타버스에 대한 니즈 증대
③ 코로나19로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며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도 만남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가상세계의 특성을 지닌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도 만남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④ MZ세대의 특성	MZ세대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어바웃인 차이를 통하지 않고, 현실과 가상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어바웃인 차이를 통하지 않고, 현실과 가상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어바웃인 차이를 통하지 않고
⑤ AI/VR/AR 기술의 발전	AI/VR/AR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⑥ 기업/정부의 관심	기업/정부의 관심으로 인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⑦ 가상/증강 현실의 발전	가상/증강 현실의 발전으로 인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22년), 글로벌 빅테크기업, 글로벌 빅테크기업

방송 제작을 바꾸는 AI 기술

AI 인공지능 음성인식 · 음성 합성 기술

자연어 처리기술, 딥러닝 언어기술, 음성 텍스트 변환기술, 텍스트 음성 변환기술

사람이 말하는 음성 및 오디오를 인공지능이 실시간 해석해 문자로 전환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를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변환

AI 아나운서, AI 사회자, AI 가수 등 AI 방송 출연자를 통해 재인방송 및 소 방송 등을 만드는 데 활용

AI가 바꾸는 IT서비스 비즈니스

인공지능 중심으로 IT업계 지각 변동

- ▶ 전 세계 글로벌 IT기업은 인공지능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Ap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지능형서 알파벳 설립,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 인공지능 적용 구글은 인공지능을 검색, 서비스, 적용, 신사업부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전략 세계 최고 전문가 영입 AI 도입 금액을 맞추고 많은 사람이 AI의 혜택을 얻을도록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가 모든 것이다. 24시간 AI와 함께하는 삶을 만들겠다' MS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AI 탑재 MS 인공지능 번역기 MS 첫호: 감정인식 기술까지 탑재 MS는 인공지능 AI의 민중화 추구, 인공지능 연구소인 '모스'에 10억달러를 투자해 가장 중요한 후원자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 최대 IT기술 제품을 제조 기업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스마트스피커 등 주요 생산품에 AI 서비스인 탑재 애플은 가장 많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들 비즈니스에 적용, 가장 많은 인공지능 부품 사용하고 있는 기업 프로젝트 타이탄(AI 자율주행차 사업부/2014년)

국내 산업별 메타버스 전략

- 01 게임 산업: 테크 기업과의 M&A 및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메타버스 비즈니스
- 02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메타버스 공간, 콘텐츠, 커머스, 구독 등을 통한 메타버스 생태계 구현
- 03 유통/소매 산업: 메타버스를 통해 소비자 디지털 경험 강화, 소비자 가상에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활용
- 04 모빌리티 산업: 완성차업체, 플랫폼, IT 인프라, 콘텐츠 부문 등 메타버스 도입 활용/차량용 IT 플랫폼으로 점차 발전
- 05 IT 산업: 자체 또는 기업/MS를 통해 메타버스 기술,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 활용 마케팅 및 판매 트랜드 확대

아실로마 AI 원칙

아실로마 AI 원칙(Asilomar AI Principles)

연구 이슈	윤리와 가치	장기적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목표 연구비 지원 과학적적 연계 연구 문화 경쟁 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실제의 투명성 사법적 투명성 책임성 가치 일치 인간의 가치 개인정보 보호 자유와 프라이버시 이성의 공유 편향의 공유 민간통제 사회 전복 방지 인공지능 무기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 경고 중요성 위험성 자기 개선 순환 공중의 선

Talk! AI 창직의 길, 어떻게?

해보고 해보고 또 해보고

→ 다양한 경험이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아이디어는 더 이상 조절 수 없을 때까지 조절고 조절하기

→ '시전문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를 더 이상 조절 수 없을 때까지 조절고 한 조각 한 조각이 모두 '창직'이며, '창업'입니다.

나만의 아이디어 수집 사용하기

→ 워드나 에버노트 등 나만의 아이디어를 그때그때 적을 수 있는 나만의 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인터뷰(2)

전문가인터뷰 - AI시대의 진로

글로벌 빅테크기업

글로벌 역량 키우기

정대정 사무/메타 인스트그램

[부록1]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AI시대의휴먼서비스	영문명	Human as a Service	학점체계	2학점-(이론2)												
수업시간	※ 원격수업		강의실	※ 원격수업		교과유형	□ 오프라인		■ 온라인								
역량구분	공통핵심역량																
	인성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글로벌 마인드			자기개발		고차적 사고		정보 및 기술 활용			
	20			60						20							
	자기 긍정성	도덕성	책임감	자기 표현	이해와 공감	조정과 협력	세계 시민 의식	문화적 수용성	외국어 활용	주도적 성취지향	진로의 탐색 설계 실행	자기 조절 능력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체계적 자료 접근	정보 분석 처리
									40			20	10	10		10	10
주제영역	□ 언어와 문학		□ 역사와 철학		■ 사회와 공동체			□ 생명과 자연		□ 과학과 기술		□ 문화와 예술					
교과목 개요 및 목표	<p>본 과목은 JB-hexa 핵심역량 가운데 고차적 사고, 자기개발 역량 강화와 가장 관련이 높다. 특히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진로의 탐색-설계-실행의 하위역량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초고령사회와 4차산업혁명의 시대,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AI 리터러시(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를 갖추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진로 목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직업개발을 탐색하며 자기주도적 자기개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끈다.</p>																
과제물	<p>1) 과제 1</p> <p>가) 과제명 : AI 시대 나의 미래 직업 (30점)</p> <p>나) 과제설명 : AI 시대 나의 미래 직업을 선택하고 핵심 역량을 도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이다.</p> <p>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직업 중 나의 관심분야 직업을 선택한 후 직업의 핵심 업무와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직업을 갖기까지 대학생 동안의 액션플랜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배우고 실천할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p> <p>2) 과제 2</p> <p>가) 과제명 : AI 시대 창업 예비조사</p> <p>나) 과제 설명 : 관심 있는 창업 아이템을 정하고 그 아이템에 필요한 직무와 직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정의하고, 창업에는 어떤 인력이 필요하며 그 인력은 어떤 일을 하는지 제시한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른 스타트업 회사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실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일을 모두 제시한다. 그 일을 위해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지 조직도를 그리고, 필요한 인력의 유형 및 수 그리고 그 인력의 기능을 모두 정의한다.</p> <p>① 전공과 연관 있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흥미 있는) AI 창업 아이템 정하기</p> <p>② 해당 창업 아이템에 필요한 직무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정의하기</p> <p>③ 관련 있는 해당 분야의 스타트업 회사 자료 조사를 실시한 후, 본인이 창업하려는 회사의 '조직도' 작성과 부서의 역할 기술하기</p> <p>④ 과제 작성 후 배운 점</p>																
	평가방법	평가항목		반영비율		채점기준											
과제	과제1. AI 시대 나의 미래 직업		30%		항목별 루브릭에 의한 평가												
	과제2. AI 시대 창업 예비조사		10%		항목별 루브릭에 의한 평가												
	출석		20%		출석 완결 20점												

	시험	30%	기말고사		
	수업참여도	10%	LMS 토론방 참여 5건		
	합계	100%			
교재 및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교재 : 강의 교안 자료 • 참고자료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슈밥(2016), 새로운현재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세상과 메타버스, 안중배(2021), 광문각 				
수업운영 계획	주차	강의주제와 수업 내용	과제	수업방법	교육 기자재
	1	수업안내 오리엔테이션/왜, AI시대와 휴먼서비스인가?		온라인강의	개인PC
	2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트렌드 AI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트렌드 변화와 산업의 변화		온라인강의	개인PC
	3	AI 알기 AI의 역사와 개념/다양한 영역의 AI 기술		온라인강의	개인PC
	4	내 곁에 다가온 AI 내 곁이 다가온 AI/일상의 AI와 확장하는 AI		온라인강의	개인PC
	5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2.0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온라인강의	개인PC
	6	AI시대의 새로운 인재상 AI시대의 인재 역량/미래 세계의 일자리 변화와 유망직업		온라인강의	개인PC
	7	글로벌 휴먼서비스와 AI 생태계 AI와 미래 비즈니스, 유통과 금융/AI와 미래 비즈니스, IT		온라인강의	개인PC
	8	AI기술의 응용과 발전 AI가 바꾸는 미래 미디어, 방송/예술과 메타버스	수행 과제	온라인강의	개인PC
	9	빅테크 거인들의 도전 구글과 애플, 멈추지 않는 도전/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영역의 장악		온라인강의	개인PC
	10	메타버스, 이렇게 개척한다 국내기업 사례		온라인강의	개인PC
	11	인류의 미래, AI 윤리 AI 윤리의 중요성/국내 해외 AI 윤리 활동		온라인강의	개인PC
	12	AI시대와 진로(1) 나의 관심직업으로 ‘창직’ 하기/21세기 디지털 대항해 시대로의 도전	수행 과제	온라인강의	개인PC
	13	AI 시대와 진로(2) 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 해보기/AI가 바꾸는 미래 스타트업 사례		온라인강의	개인PC
	14	AI 시대의 바른인재로 거듭나기 AI시대의 미래 역량과 이슈/AI시대의 바르고 유능한 인재 를 위한 출사표		온라인강의	개인PC
15	기말고사 온라인지필고사(주객관혼용)		온라인강의	개인PC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

간호학과, 92310451, 강혜림

내가 처음으로 대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을 선택하고 수강 신청을 하려고 했을 때 학교에 필수 교양이라는 과목을 무조건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학년이기에 자유 교양보다는 필수 교양을 먼저 들으라는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필수 교양과목을 먼저 수강하게 되었고, 필수 교양과목은 다양한 과목들이 있었으나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성적에 대한 불안함 없이 들을 수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한 교양과목은 '김주석 교수님'의 '자기 탐색과 성장 비전'이라는 과목이다.

사실 처음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왜 이런 수업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인가 의문이 들었으나, 주차가 가면 갈수록 수업의 내용은 유익하고,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수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수업의 내용은 전체적인 틀로 보았을 때 "나"를 중심으로 한 수업이며, 수업의 구성은 내가 생각하는 죽음과 행복, 내가 살아오며 얻어낸 경험과 내 주변인들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위와 같은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작성한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등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준 과목이었다. 수업 시간은 단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다른 수업들보다 부담이 적고,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이기에 조금 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 과제가 많고, 시험이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에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는 과제를 내어 주시고 수업 도중에는 지루하지 않도록 영상이나 새로운 강사님을 초청하여 수업을 진행하시는 등 흥미롭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수업이다.

이 교양과목을 통하여 내가 얻게 된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매주 1시간씩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21년이라는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인맥을 쌓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죽음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등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쉬고, 되돌아서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수업이었다.

수업 중 하루는 나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내가 작성하는 나의 묘비명과 나 자신에게 보내는 추도사 문구를 작성하면서 내가 죽은 뒤에 치러지는 장례식에는 나의 짧은 삶 속에서 만들어낸 많은 인연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나를 그리워하고 죽음 이후에도 행복하길 바라는 모습이라는 생각에 앞으로 더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100년이라는 길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해주는 수업이었고, 내가 선택한 간호학과에서 무사히 졸업한 뒤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건강을 되찾고 원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나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 날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해주었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나의 행복에 대한 관점은 주변인의 건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위에서 내가 간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다치고 병든 사람들이 간호와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원래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듯이 나는 나와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주변인들의 건강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수업이었고, 조금 더 나의 직업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게 만들어 주었던 좋은 수업이 되었다.

앞서 말한 주제 말고도 많은 주제의 유익한 수업들이 많았기에 나는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의 과목을 '자기 탐색과 성장 비전'이라는 과목을 선택했다. 물론 다른 교양과목 또한 내 대학 생활에 있어서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목은 나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내 인생과 미래 직업을 통해 얻게 될 많은 경험 등을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과목이기에 선택하게 되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양과목

사회복지학전공
92100325 고민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 과목과 연관이 있다. 그 과목의 이름은 복지의 경제학으로 박근수 교수님께서 원격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셨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단어 자체는 대학에 오기 전부터 많이 들었고 뉴스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 두 단어가 복지의 경제학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몰랐었다. 그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르신분들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추가로 더 알고 싶어서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전공에 제일 가까운 교양이었기에 다른 교양에 비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교과목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토론이었는데,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받으면서 복지 경제에 대한 서로의 인식과 기본적인 생각들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경제는 어떻게 통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이 교과목의 특징이 아닌가 싶다.

사회복지에 예산은 어느 정도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현상까지 과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2020년은 15.7% 2040년은 35.3%로 3분의 1 이상이 노인이라고 표에 나와있으며, 2067년도는 거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나와있다. 그러니까 결국 미래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 1명 기준으로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결코 남 일이 아니며,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됐다. 전공을 사회복지로 하고 있지만, 경제는 그 단어부터도 어려워서 관심이 잘 가지 않는 분야였다. 사회복지도 언제나 서비스,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만 생각했으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지와 경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깨닫는데 오래 걸렸다.

과제를 조사하고, 토론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저 원인을 일차원적으로만 봤다면 그것이 아니라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물음을 던져 줘야 내가 그것을 알아가며 나의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잘 알게 된 것은 과목이 과목인 만큼 국가에 의한 사회적 배분, 공공재, 소득분배 등등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알아가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처럼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한 번 알면 다른 사회적 문제도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예전부터 들었던 것을 더 깊이 심화 과정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사회문제 자료를 많이 찾아보며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경찰행정학전공

91704760

곽도헌

제가 소개해드릴 교양과목은 김경훈 교수님의 “감시와사회”라는 과목입니다. 감시와사회라는 과목의 수업목표는 “이론과 토론을 병행한 강의로 언론에 보도된 최근의 이슈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현대의 시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강의이다. 그와 더불어 사회 현상을 통해 논술을 강화하며 취업 시 구술 면접에 도움을 준다.”입니다. 수업목표와 알맞게 매 수업마다 교수님께서서는 한주동안 있었던 사회이슈, 기사를 준비해주시고 학생들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20년간 방송활동을 하시고 프로스포츠 캐스터 경험이 있으신 덕분인지 토론을 말끔하게 진행해주시고 다소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해주시는 모습이 인상깊고 좋았습니다.

교수님의 수업방식과 수업주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함으로써 서로 다른 관점을 배워가며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우리학교의 교육목적인 “자유민주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며 국가의 발전과 인류 번영에 이바지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에 부합하며 우리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목적에 알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학교의 교육목표인 바른인재, 전문인재, 창의인재에도 알맞은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험뜯기식의 토론이 아닌 학생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배워가는 토론을 진행해주시어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격 함양”의 바른인재 상을 추구하셨고, 매주 사회이슈, 기사, 칼럼등을 소개해주시며 “새로운 학문과 문화에 대한 탐구능력 함양, 정보활용능력과 과학적 지식습득 및 글로벌 역량 배양”의 전문인재 상을 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로는 토론과 수업을 진행하며 지식이 없었던 분야에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평생학습능력 배양, 새로운 가치에 도전하는 창조적 능력 함양”의 창의인재상 까지 우리학교의 3가지 목표를 다 갖춘 과목이어서 저를 성장시킨 과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시와사회”과목은 매주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주의 사회이슈 주제로 교수님과 학생이 토론하며 토론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으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주의 사회이슈 기사, 칼럼등을 찾아보는 것이 습관화 되어 학기가 끝나고도 매일 하나의 칼럼을 정독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이슈를 다루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접하는 정치에 관한 문제에도 교수님께서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중립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저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었지만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 덕분에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정치적인 부분 뿐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행동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행동하여 문제해결을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크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저에게 이부분, 이러한 견해가 가장 크고 값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감시와사회”과목은 4학년인 저에게 수강했던 과목중 가장 많은 변화를 준 과목이며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매학기 유지되어서 앞으로 학업을 진행할 학우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

92206296 김민제

내가 선택한 교양과목은 러시아어 초급 I이다. 이 수업은 1학년 1학기 때 중부대(충청 캠퍼스) 소속인 로벤스끼호 안젤라 교수님(Rovenskih Anzhela)이 진행하셨다.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나라 언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맘이 컸는데 중국어와 일본어 밖에 간단하게 배울 수 없어서 대학교에 와서 자세하게 배우고 싶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중부대학교 자유 교양에 러시아어가 있어서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원래는 스페인어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핑 대신 닭이라고 스페인어가 우리 학교에 없어서 대신 듣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알기 쉽게 러시아어, 넓게 보면 러시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선정하게 되었다.

아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교수님의 “러시아어 초급 I”을 비대면(zoom)으로 들었지만, 교수님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 학생들에게 러시아어로 간단하게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느낌을 줬다. 수업 자체는 아직 러시아어 초급이어서 처음에는 러시아 문화나 러시아어 알파벳이나 간단한 표현, 단어를 중심으로 배웠으며 뒤로 갈수록 러시아어의 어려운 문법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대학교 막 들어가서 첫 학기에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나는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전공과 별개로 교양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하게 되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러시아어라는 언어 수업이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단어나 문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겼다. 교수님이 잘 지내요(좋아요)라는 말은 러시아어로 Хорошо인데 잘 지내지 못했어요(힘들어요)는 뭘까? 라고 알려준다. 즉, A를 러시아어로 하면 이걸데 A'를 러시아어로 하면 뭘까? 질문하시면서 교재 이상의 러시아어를 알려주고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친다”라는 말처럼 언어를 활용하는 능력과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유도했다. 비록 참여도가 있어서 열심히 손들고 발표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용기를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게 됐다.

둘째, 내가 고등학교 때는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외국인 친구(주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다문화적인 경험을 하게 됐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은 다른 문화를 알아가는 수준에 국제이해 교육에 그치고 있다. 내 생각에 다문화 수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되려면 직접 해당 학생들과 한 반에서 같이 지내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첫 교양수업에 외국인 학생들과 수업 듣게 되면서 외국인 학생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셋째, 대학 전까지 ZOOM보다 EBS 온라인클래스를 많이 사용한 나로서는 새로운 점이 많았다. 카메라를 키는 것과 마이크 기능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러시아어 직접 쓸 때 공유하는 화면에다 펜으로 그리거나 주석을 다는 기능, 발표할 때 손들기 기능 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배우면서 ZOOM에 대해 몰랐던 나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함양됐다.

넷째, 이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이외에 다른 나라 언어에 관심으로 더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러시아 문화나 러시아어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관련 영상을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시작했을 때라 러시아어 배운 것을 활용하기 위해 TV 속에 나오는 러시아어와 내가 아는 단어를 비교해보면서 성취감을 느꼈다. 또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배경과 크렘린 궁전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 더 찾아보게 되었다.

다섯째,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강의식 수업보다는 대화식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러시아어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러시아어를 들은 학생으로서 재미있게 배웠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교사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만 진행하는 형식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수업에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즉,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가 매체를 통해 소통해 나가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러시아어 초급 I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단어를 활용하는 능력과 더 나아가서 새로운 단어를 추론하는 능력이 함양됐고 다양한 외국인들과 대화하면서 다문화적 편견을 없애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ZOOM에 몰랐던 새로운 기능을 알게 됐고 러시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교사를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수업을 통해 시사점이 생겼다. 나도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한 과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쓸까 고민했는데 막상 쓰다 보니 러시아어 초급 I 을 들은 후 내가 다방면으로 많이 변했다는 점을 알았다. 끝으로 교사가 되고 학생들에게 내가 경험한 다양한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왕이면 학생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 가득한 말투로 반응하면서 빙그레 웃어줬으면 좋겠다.

글이 좋아진 이유

92214190 김주연

‘성장’이라 함은 나의 내면의 능력이 자라는 내적 성장과 결과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외적 성장이 있다. 나와 같이 이 교양을 듣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글쓰기와 독서’라는 교양 과목을 들으며 제대로 된 글쓰기와 글을 읽고 주제를 잡아내는 제대로 된 독서 방법을 배웠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글쓰기 방법을 대학에 와서도 배운다고 쉽다고 생각했던 나는 오만했다. 처음부터 짜인 글을 분석하는 것과 내가 첫 단어부터 마지막 구절 하나까지 일일이 고민하며 글을 써 내리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수학은 공식을 외우고 답을 맞히는 거라면 글에는 정해진 답 같은 건 없었다. 내가 쓰는 글이 그냥 정답이 되는 것이다. 마치 써 내리는 한 글자마다 주어지는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았다. 글 쓰는 사람들, 소위 말해 글쟁이들은 이 감정을 나의 수습 배는 더 느끼지 않을까 싶다.

교수님께서 ‘개요 잘 쓴 사람 중 글 못 쓴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다. 나는 글쓰기와 독서 교양 과목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이 이 ‘개요 쓰기’였다. 나는 최선을 다해 개요 쓰는 것에 집중했다.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개요는 잘 짰지만 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평을 받으며 또 한 번 좌절에 빠졌다. 도대체 내 생각을 무슨 수로 어떻게 이 글에 집어넣으란 말인가.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기업에 대한 잘못된 광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내 생각까지 추가된 글은 꽤 그럴듯한 글이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있었다. 바로 표절 검사다. 표절 또한 중요한 요소였다. 글을 쓸 때 남의 걸 베끼는 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막상 그러기는 쉽지 않다. 글을 쓰려면 남의 글을 봐야 하며, 좋은 글을 보면 그 글을 인용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다. 하지만 그래도 남이 써 놓은 글을 짜깁기하는 것은 안 쓰느니만 못하다. 내 생각과 느낌이 들어간 글이 되어야 좋은 글이 된다. 표절률을 점차 줄여 나가며 그렇게 진정으로 내가 쓴 글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로 결과물을 이뤄내어 정말 부듯했다. 교수님께서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며 모든 학생의 글을 검토하며 피드백해주신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교수님께서 스타트업 글쓰기에 대한 참가 기회를 주셨다. 그때의 나는 한껏 자신감이 부풀어 있었고 이대로 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수정 하나 없이 그냥 제출했다. 결국 아무런 성과는 없었다. 교수님께서 ‘글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해도 수정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났다. 그때 조금만 더 수정해서 제출하였다면 조금의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열심히 글을 써 볼 생각이다.

이쯤 되면 글쓰기는 털끝 하나도 안 건들던 공대생인 나에게 이만큼의 성과를 내주셨던 교수님이 누군지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미정 교수님이다. 1학년 때는 글쓰기와 독서라는 과목이 필수 교양 과목이었기에 듣기 싫었지만 그나마 강의평이 좋은 이미정 교수님을 선택해서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 물론 다른 글쓰기와 독서 교수님들도 이미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나의 공부법과 교수님의 스타일이 잘 맞았던 것 같다. 조원들과 함께 주제를 정하고, 글의 주제를 읽어내고, 문장을 빼고 하는 모든 과정이 나에게 너무 재미있었다. 나는 평소에도 생각하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공부하는 데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더딘 편이다. 이미정 교수님께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중간에 피드백도 주시고 하며, 학생들의 생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일깨워주셨다. 그래서 교수님께 정말 좋은 강의였다고, 다음에도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다고 전해주고 싶다. 아마 교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하신다면 열정적으로 글쓰기에 참여했던 학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글쓰기와 독서 교양 과목을 듣고 난 후 나는 글을 쓰는 것에 관심이 생겨 좋은 생각이나 감정을 그때그때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번 연도 1월부터 꼬박꼬박 열심히 일기도 쓰고 있다. 항상 일기는 작심삼일이었던 내게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게 놀라웠다. 또한 독서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다. 그중에서도 자기계발서나 에세이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 학교를 통학하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자책도 꽤 많이 읽고 다녀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3학년도 1학기 다독자로 선정되어 상장도 받고 상금도 받았다. 교양 과목 하나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많은 성과를 가져다주는 게 참 신기했다. 지금 이 에세이를 쓰는 것도 이 교양을 듣지 않았다면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쓰기와 독서라는 교양 과목은 '성장'이라는 주제에 가장 알맞은 과목이라 생각한다. 나에게 글을 쓰는 방법과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준 이 교양 과목을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일깨워주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글과 독서를 사랑하며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확장하며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나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며 내가 추구하는 삶에 더욱 가깝게 가기 위한 양분이 될 것이다.

<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

92301723 엔터테인먼트 학과 김희원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양과목은 < 대중문화와 트렌드 코드 >입니다.

패션디자인학과 윤양노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업입니다. 대중문화와 트렌드 코드 과목은 저에게 시대의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 시대에는 문화가 있고 사건이 있으며 동시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서 배운 각 시대의 트렌드와 문화를 탐구한 것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며 깨달은 점을 알고 싶어 해당 교과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 흐름과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도 하고 이전의 문화가 사라지기도 하며 큰 파도와 같은 흐름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사건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게 이 과목은 확장적 사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른 과목과 차별화되는 이 교과목만의 특징은 기존의 역사적이고 시대의 트렌드를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공부할 기술과 방법을 배우거나 단순한 이론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지 못한 시대를 느껴볼 수 있게 만드는 체험형 수업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역사적인 트렌드와 현재의 트렌드를 배운다는 점에서 지식 습득의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교과목은 단순한 지식 습득에서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시대를 경험하도록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여러 자료와 프레젠테이션을 참고할 수 있게 보여주시며 시대 상황에 더욱 몰입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10강에서 아방가르드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방가르드는 기존의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념적인 것들을 깨부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이고도 혁명적인 시대사조라고 느꼈습니다. 아방가르드 문화 중에서도 저는 “히피” 문화에 가장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히피의 정의는 1960년대 탈사회적 행동을 하며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방가르드의 한 문화인 히피에 대해 수업을 들었을 때는 왜 이렇게까지 사회에 저항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히피가 반사회적 그리고 탈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베트남 전쟁의 교착 상태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흑인 인종 갈등, 마틴 루터 킹의 암살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건이 있어 60년대는 격동의 세월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알게 되고 반문화적 성향의 히피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격동의 세월 속에서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히피들의 주체적인 모습이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반전운동에 참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시위를 하는 등의 모습에서 그들의 주체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넘어서 저는 계속해서 아방가르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표현할 방법이자 매체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당시의 영화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방가르드를 영화로 표현한 작품 중 장 토크 고다르 감독의 1963년 작 <작은병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은병정>에서는 당시 프랑스 영화계의 암묵적 금기를 깨고 알제리 식민 전쟁에 대한 집단적 침묵과 국가적 폭력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장 토크 고다르 감독은 이렇게 시대에서 금기시되고 모두가 모른 척했던 것을 지적하는 아방가르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방가르드에 대해 배우고 저 또한 과거의 장 토크 고다르, 히피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방가르드는 어쩌면 시대에 대한 성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저에게 단순한 개념 정의가 아닌 개념에 대해 탐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더 나은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방가르드에 대한 수업과 60년대의 시대적 사건과 문화들을 통해 격동의 시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아방가르드와 같은 혁명적 사조가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서는 어떤 트렌드와 흐름이 생기고 변화할지 기대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양과목

학과: 물리치료학과

이름: 노승현

To. 수강신청을 앞둔 사람들

안녕하세요. 수강 신청을 앞두고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시죠?

제가 아주 좋은 교양 과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과목은 바로 “행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담당 교수님은 특수체육학과 박영근 교수님입니다.

이 과목은 방황할 뻔한 대학교 1학년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해주었습니다.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을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어느덧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여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학년인지라 대학교에 대해 로망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대학교 생활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려운 전공과목과 엄청난 양을 자랑하는 과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과 비슷하게 대학 생활을 하던 중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가고 싶은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을 희생하면서 들어 왔는데 대학 생활은 별반 다를 게 없고 더 힘들고 치열한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이라는 원초적인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수강 신청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개설 교양과목 안내서를 읽으며 어떤 교양을 들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양 중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과목이 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행복에 대해, 삶에 대해 고민하던 저에게 안성맞춤인 것 같아 바로 신청하였습니다. 강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어 가려면 내 삶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저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 과목은 저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행복이란 구체적이지 못하고 허황한 것이었습니다. 행복을 구체화하기 위해 강의에서 배운 것을 삶에 접목해보았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배워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도와주는 것을 잘합니다. 반면 싫어하는 것은 사람 많은 곳, 계속되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 매일 반복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이며 행복은 무엇인지 조금 구체화 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많은 곳인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대기업에서 매일 똑같은 사무직 일을 하면서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많은 돈을 버는 성공한 삶. 돈을 적게 벌지라도 남을 도와주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서 삶을 사는 것. 위 두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싫어하는 일을 하며 성공하는 삶보다는 행복한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사고방식은 “향유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지원하지 않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너무 슬펐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친한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신이 어렵고 학생 인원수가 적어 좋은 등급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유명했던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저에게 불어온 불행에 대해만 초점을 맞추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전학을 가고 싶다는 회피성 행동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유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저는 불행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없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며 학교생활을 잘 적응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등급을 맞기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한 경험이 있더라면 좋은 발판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의를 들은 후 깨달았습니다.

‘말하기와 사고’라는 교양 과목에서 조마다 한 명씩 대표로 자신의 꿈에 대해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서로 하기 싫어 가위바위보로 발표자를 정했습니다. 발표자는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잘하지 못 할까 봐 두려웠고 저의 꿈을 남에게 발표하는 것이 민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행복이란 무엇인가’

강의에서 배운 향유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끌거나 인정받으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현재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현재 경험의 긍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향유하기 위한 필수조건을 되돌아보면서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시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 발표하기. 발표를 잘하지 못할까 봐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연습을 더하기. 지금 발표를 잘하지 못해도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무시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진정 원하는 꿈에 대해 발표하니 교수님께 꿈이 독창적이고 브랜드성이 있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발표 준비를 하니 떨지 않고 발표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진로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단순히 취업이 잘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학과와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적에 맞추어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과에 진학하여 전공 수업을 들으니 저와는 다르게 목표가 있어 물리치료학과를 진학한 친구들과 태도, 성적, 생각하는 가치관이 비교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전 없이 살게 되면 후회하기 쉽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삶의 비전을 세워보았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기”가 저의 비전이고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저는 물리치료사가 될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신체장애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환자와 1:1로 치료하는 시간이 길어 그동안에 심리적으로 접근해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관련 책을 읽거나 심리학을 전공해야 합니다. 비전을 세워보니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고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하루하루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세우기 전보다 전공 공부하는 이유가 명확해지고 목표가 뚜렷하니 공부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내가 생각했었던 행복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준 수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 행복은 무엇인지 알아가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글을 마치기 전 ‘행복이란 무엇인가’ 강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공간과 시간에 제약 받지 않습니다.

-비대면 수업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과 소통이 잘됩니다. 수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LMS 메시지를 활용하여 교수님께 연락드리면 됩니다.

-시험은 기말에 한 번만 보며 대면으로 치러집니다. 시험형식은 서술형 8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문제는 교수님께서 사전에 나누어 주신 PPT에서 출제됩니다. 또한 자기 생각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강의를 이해할 수 있고 강의를 들으며 공부되는 동시에 힐링도 되는 일거양득 수업입니다.

다른 교과목들과 다르게 시험을 한 번만 보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너무 좋지 않나요? 수강 신청을 앞두고 어떤 과목을 들을지 고민이신 분들 지금 당장 ‘행복이란 무엇인가’ 과목을 수강하세요!!

2023.05.12.

- 행복을 바라는 아무개-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

류지혜(스마트IT 전공)

제가 인상깊게 들은 교양과목은 재밌는 소리의 세계입니다. 이 강의는 실용음악을 전공하신 성기영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유 교양으로, 소리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소리를 녹음하고 ASMR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과제입니다.

ASMR이란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특정한 소리나 영상에 반응하여 몸 전체에 쾌감이나 안정감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ASMR은 200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10년대 초반부터 유튜브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활성화되었습니다. ASMR은 수면 장애나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ASMR을 좋아해서 언젠가 유튜브에 올려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ASMR은 공부할 때나 잘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함께하는 친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알게 되자마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리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강의에서는 소리의 원리와 핑크 노이즈처럼 다양한 소리의 종류, 신기하고 흥미로운 소리에 관한 효과들, 녹음 방법과 윈드 실드와 같은 장비 등을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유리와 파장이 공명해서 깨지는 영상이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점은 유리잔이 깨질 줄 알았으나 파편 방지를 위해 설치한 유리판이 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물체마다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맞춰 공명한다면 원하는 유리를 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평소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었는데 수업으로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 효과음을 녹음하는 직업을 소개해주셨고, 정말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녹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ASMR 콘텐츠 제작에 도전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리를 3개 녹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평소 ASMR 유튜브를 볼 때 그저 소리만 녹음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녹음을 직접 해보니 좋은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었고 많은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녹음할지 고민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버스 소리와 탄산음료 소리, 그리고 놀이터 소리를 녹음했는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 깔끔하고 좋은 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고, 교수님과 친구들로부터 높은 점수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 있었습니다. 이 강의의 최종 과제는 ASMR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제를 시작으로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리에 대한 감각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종종 교수님이 직접 찍으신 자연 ASMR 영상을 강의 마지막에 보여주셨습니다. 바다에서는 해변을 걷는 소리와 바람 소리, 숲에서는 새소리와 나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영상들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정말 힐링 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런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소리의 세계라는 강의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해주었고, 제 삶에 새로운 재미와 가치를 준 과목입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박서라(국제통상학전공)

내가 이번 에세이에서 소개하고 싶은 교양수업은 고은태 교수님의 “유럽의 도시와 문화”이다. 교과목 명 그대로 유럽 각국의 도시들과 문화 각종 음식 등을 배운다. 이 교과목을 선택하게 된 궁극적 이유는 내가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교양 수업이자 내용이 나에게 흥미로웠으며, 발표의 재미를 붙여주게 한 수업이었다. 그 결과 A+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 가장 기억에 남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다. 이 수업이 흥미롭게 다가왔던 이유는 첫째,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유럽 여행은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만 했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생각으로 나중의 유럽여행을 위해서 이 수업을 통해 유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가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수강을 하게 되었다. 둘째, 영어에 대한 열망이다. 사실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득그득했다. 물론 교양수업 하나를 듣는다고 해서 나의 영어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붙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수강신청 바구니에 담게 되었다. 이 교과목을 수강했을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실시간 줌 강의를 실시했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했을 당시보다는 비교적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분위기였고 영어로 피피티를 만들어 5분에서 8분 가량의 ppt발표를 진행하는 과제도 있었다. 이 발표가 이 교과목이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킨 주된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어에 대한 배움의 자세는 가지고 있었지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발표나 질문에 대해 대답하거나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을 선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어를 잘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은 ‘말하는 자세’기 때문에 이번 발표 수업을 용기내서 해보자는 생각으로 나름 야심차게 준비를 하였다. ppt도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영어가 부족한 나였기에 그냥 그냥 파파고로 번역기를 돌리는 것이 아닌 구글링과 유튜브, 미드를 통해 좀 더 자연스럽고 현지스러운 표현을 넣고자 노력하였다. 발표의 주제는 내가 원하는 테마를 선정해 그 테마를 중심으로 유럽여행의 일정을 짜는 것이었다. 자료수집부터 발표연습 영어표현 조사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실 원래의 나는 전공과제가 아닌 그 외의 수업 과제인 경우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았고 적당히 설렁설렁 하는 편이어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나도 내 자신이 낯설었던 경험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유머와 재미를 넣어서 발표를 진행하면 가산점을 주신다고 언급하셨어서 머리를 쥐어 짜내서 말도안되는 드립을 넣었던 기억도 있다. 나의 여행 테마는 와인이었었는데 와인에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그리고 유와인(유아인)연예인이라는 드립을 준비하였었다. 실시간 줌으로 수강생들과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누구도 웃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학생분들은 마이크를 꺼놓고 있긴했지만 그닥 웃는 사람은 없었을 듯 하다. 소극적이고 내향적이어서 발표를 꺼려하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되는 노잼드립을 치며 발표를 하게 될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래도 대면수업이 아닌 실시간 줌을 통해 발표를 해서 생각보다 긴장은 덜 됐던 것 같다.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해 영어 대본을 정말 여러번 읽고 더듬거렸던 부분들은 형광펜을 칠해 주의하면서 연습한 결과 실제 발표에서는 물 흐르듯 잘 말했었다. 교수님께서도 칭찬해주셨고 피피티를 정말 잘 만들었다며 다시 한번 내 노력을 알아봐주셨다. 이 수업을 통해 발표에 대한 자신감과 사소한 것이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열심히 한 만큼 성적도 잘 나왔고 교양수업인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였나, 시간 낭비했나 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뿌듯했고 준비하면서도 스스로 재미를 붙일 수 있었다. 또한 영어로 발표를 하고 나니 내가 몰랐던 새로운 영어 표현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또 내가 언제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하겠어, 흔치 않은 좋은 경험이었다”고 느꼈다. 앞으로는 무슨 발표를 하던 영어로 말할 일이 생기던 이 교양수업을 듣기 이전의 나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을것만 같은 기대감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 기대감에 이어 지금까지도 열심히 영어를 공부중이고 이제 마지막 학기라 학교에서 발표를 할 일은 거의 없지만 취직이나 면접 시에 그 때의 자신감에 이어서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삶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교양〉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수빈

나에게 이번 학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양과목은 박은진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한국 고전문학 읽기〉이다. 이 교과목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단어의 주제를 주차마다 잡아서 그 단어와 관련된 고전문학 작품을 읽어보면서 자신의 삶에 투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에는 스스로 감상문을 쓰면서 다시 이 작품에 대해 돌아보고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로 주차의 수업을 마친다. 내가 이 교과목을 선정한 이유에는 이 수업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보통의 수업들 같은 경우 그냥 수업시간에 듣는 거로만 끝나고 그 수업에 대해 내가 해석을 해보거나 따로 시간을 내서 생각해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수업의 내용에 대해 깊이 해석하지 않다 보니 스스로 얻어지는 건 많이 없었고 수업을 듣는 의미가 많이 없었던 거 같다. 하지만 이 과목은 내가 해석해볼 수 있게 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과제라도 주어지게 함으로써 나의 삶을 진찰해볼 기회를 여러 번만 들어줬기 때문에 이 과목을 에세이로 쓰는 것에 선정하게 되었다. 사실 이 과목을 통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성장을 마쳤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 수업을 들으면서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 너무나 부족하고 넓은 시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교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라.’라는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 삶에 그것을 대입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거 같다. 그 속에서 주차마다 주제가 되는 어떤 단어들이 내 삶에도 잘 투영되고 있고 굴러가고 있는가를 많이 찾아보게 되었다. 지금 에세이를 쓰면서 생각나는 단어는 ‘일’이라는 주제이다. 이 주차에서의 고전문학 작품에서의 내용은 ‘실패’란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끈질기게 살려고 버티고 버텨서 끝내 성취해내는데 마지막 결말에서는 성취를 이뤄냈음에도 제3의 상황과 그 끈질긴 과정 속에서 잃었던 것들이 후폭풍으로 와 끝내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문학작품이었다. 솔직히 이 주차를 듣고 이 단어를 내 삶에 투영하고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감정들이 올라왔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속의 내용이 어찌면 나의 삶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는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멘탈이 아주 약하다약한 사람이지만 ‘완벽주의자’에 변수를 싫어하고 어떻게든 내 정신과 몸을 조금이라도 망가짐에도 결과물을 어떻게든 완성하고 마지막에 실수 없이 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끝은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문학작품의 결말처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짐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 주차의 내용을 들으면서 듣게 된 소식에도 있는데 내가 되게 관심 있게 보던 한 아이돌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그 멤버는 어릴 때부터 긴 연습생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그 아이돌이라는 일을 성취하게 되었지만, 그 연예인의 생활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를 사랑해주는 팬들을 위해서 자신을 챙기지 못하면서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일을 즐기지 못하고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소식을 그 시기에 들었던 것이다. 이런 사건을 듣고 주차의 내용을 들으면서 내 삶에 이 단어를 투영시키다 보니 스스로 ‘성장이라는 것도 좋고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끝내 성취해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일을 해내기까지 그리고 해내고 나서도 그 부분에 지배되기보다 네가 그것을 끌고 가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외에 단어들도 되게 많았는데 내가 삶에서 스스로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단어들이 의외로 많았던 거 같다. 왜냐하면, 현재 나는 너무 보완할 부분도 많고 망가진 부분들도 많아서 나의 상태를 이 과목을 들으면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괜찮은지 마치 진찰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 같다. 그리고 또 한 게시판에 감상문을 공유하면서 같이 듣는 학생들이 의견을 달아주곤 하는데 되게 위로되는 부분들도 많았던 거 같다. 한번은 ‘여행’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한 주차의 감상문을 달게 되었는데 이 주차의 고전문학 작품 내용은 그냥 평탄하게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닌 ‘여행’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여행을 하면서 변수가 생기는 상황을 중간중간에 넣어주면서 끝내 여행하면서 자기가 보고 싶었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작품이었다. 이 주차의 내용을 읽으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결심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읽고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하도 요즘 너무 바쁘고 과제에 이리저리 치여 사느라 너무나도 지치고 울적한 현실인데 곧 있음 종강이니까 현실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서 온전한 여행을 갔다 오고 싶고 여행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되새겼던 거 같다. 그만큼

내 심리 상태가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이 작품을 읽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건데 이걸 그대로 감상문에 올리게 되면서 함께 수업을 들던 학생이 달아줬던 댓글이 '여행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인상 깊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변수가 생기더라도 긍정적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해준 부분을 읽고 좀 많이 울었던 거 같다. 얼굴도 모르고 직접 만나본 적 없는 학생이 이런 위로를 건네주니까 참 이 짧은 감상문에 위로를 달아준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크게 와닿았던 거 같다. 진짜 이 수업은 나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울고 웃게 해준다. 어떤 단어에서는 스스로 공감을 하면서 울적해 하다가 어떤 단어에서는 내가 결심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어떤 단어에서는 위로를 받기도 하며 어떤 단어에서는 되레 내가 남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이 과목은 어쩌면 서로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가 싶다. 물론 다른 과목도 성장의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마주친 적이 없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댓글 몇 자로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과목은 흔치 않다. 이 부분에서도 내가 변화한 부분도 있는데 나는 극 | 성향이다. 그 말은 되게 내향적이고 내 모습을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으며 소심하고 내 개인적인 일을 잘 털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속에서 담아내고 혼자 씩혀내고 혼자 마무리하려고 하는 안 좋은 습관을 지니고 있는데 이 과목을 들으면서 직접 얼굴을 보고 털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과제를 통해 내가 평상시에 했던 고민들 그리고 좀 힘들어했던 부분을 글 몇 자로도 털어내 버리니까 혼자 속 시원한 기분도 들고 좀 풀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거 같다. 솔직히 말하면 이 과목을 처음에 1순위로 계획해서 들으려고 했던 과목은 아니었다. 근데 수강 신청에 실패하고 과목을 좁게 되면서 우연히 듣게 된 과목이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긴 수업시간에 주차마다 과제라 좀 힘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초반에는 많았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 그냥 단지 작품의 해석내용이 아닌 평상시의 교수님의 고민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대입해보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니까 막 어렵기보다는 내가 풀어나가는 부분에 흥미가 생긴 부분이 많았다. 나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 과목이 어떻냐고 묻게 된다면 '힘들기는 한데 그 속에 분명히 얻어가는 건 한가지 넘게는 있어'라고 말할 거 같다. 우리가 대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문학적 소양을 얻게 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기 하지만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이런 강의를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은 큰 오산인 거 같다. 이 과목을 듣게 되면서 깨달았던 부분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다양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게 되면서 사소한 부분도 못 챙기고 나의 상태를 하나씩 놓치게 된다면 결국에는 쌓아놓은 지식도 헛것이 된다는 것이다. 내가 몸소 체험해보고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큰 목표를 가지려고 할 때 이 과목의 여러 다양한 단어들이 일상의 작은 부분을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려가다 보니까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오히려 미끄러지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껏 알면서도 무시하고 주변에 정확히 알리지 못하고 혼자 참아내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좀 두렵기도 하고 스스로가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 과목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하고 큰 목표를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좀 더 진찰하고 다듬어보는 기회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다. 나 같이 스스로의 상태를 좀 더 진찰해보고 다듬고 싶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 등록금의 일부분 강의로 꼭 들었으면 하는 과목이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다. 나는 나중에 이 과목의 학점이 어떻게 나오든 수업 자체에서 너무나도 스스로 얻어간 것이 많고 생각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거 같다. 이 수업을 기획해주신 박은진 교수님께도 너무나 감사하며 남은 강의에도 좀 더 나의 상태를 진찰해보면서 다듬을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보겠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학 과	경찰행정학과
학 번	91803190
학 년	4
이 름	박준한

목차

-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 2) 해당 교과목 선정 이유
- 3) 교과목의 특징
- 4) 교과목을 통해 성장하거나 변화한 내용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은 ‘대중앞에 서는 법’입니다. 교수님은 김갑석 교수님입니다.

‘대중앞에 서는 법’을 선택한 이유는 교과목 제목과 같이 대중들 앞에서 서는 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한번쯤은 대중 앞에 서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를 발표하는 것,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행사 MC 등이 있고 꼭 많은 사람들이 아니어도 소수 인원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거나 회사에서 회의를 할때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전 사회와는 다르게 요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추후에 취업 면접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방식이나 태도 등을 배우고자 이 과목을 선택하여 듣게 되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과목의 특징은 무작정 앞에 나와서 말을 하게 시키거나 일반 수업처럼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소통의 장처럼 다른 학생들의 말을 귀기울여 주고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등 학생들 서로서로가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수업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학생들이 서로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과목을 통해 남들에게 말을 건넬 자신감과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남들 앞에 서기를 좋아했고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모든 동아리 활동을 참여하고 학급 반장, 회장 등 도맡아 했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 계주 주장, 축구 주장 등을 맡아 팀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팀워크를 이끌어 나가는 등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축구부, 밴드부, 댄스부, 육상부 등을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왔고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도 같은 학과 동기들 사이에서 중심역할로 인간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엠티를 가서 무대 앞에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부대 에이스로 손 꼽힐 정도로 열심히 생활을 하였고 전역을 하고 나서 학과 학생회 임원진 유도회장을 도맡아 재학생 300명 정도 인원 유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과에서도 인정받고 후배들에게도 인정받은 학과 선배 이미지였던 저는 부족한 실력이지만 학생들에게 유도를 가르쳐주려고 따로 열심히 배워서 배운 것을 알려주고 부족하지 않게 더 열심히 배움을 갈고 닦았습니다. 근데 저의 이런 자신감도 어느 순간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유도회장을 하여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슬럼프에 빠져 가르쳐주는게 어려워지고 모든 학생들을 끌고 가기에는 성향이 다 안맞아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뒤에서 얘기도 나오곤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자 자신감이 점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도회장을 하면서 일주일에 4번 저녁에 유도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저의 개인시간도 없어지고 결국 일만 하는 로봇이 된 기분을 느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학생회 임원들에게도 그만두겠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닌 책임감이 없냐는 말이 들리자 더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면서 임원 생활을 끝마치고 4학년이 되자 학교에 남아있는 동기도 없고 수업도 많이 없어 더더욱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신감이 비트 코인 마냥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잠깐, 저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오던 와중 ‘대중앞에 서는 법’이라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김갑석 교수님이신데 저희 경찰행정학과 헌법 담당 교수님이십니다. 김갑석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자기소개를 학생들 다 할거다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드랍할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갑석 교수님께서 ‘당연히 마짜고짜 자기소개를 하면 어렵고 쉽지 않을거 안다. 자기소개 방식은 다양하다. 자신의 장기를 살려 춤, 노래의 방식도 좋고, PPT 발표처럼 해도 좋고, 간단하게 학과 이름만 말하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먼저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기타를 치시면서 노래로 소개를 하셨

고 교수님 자신을 ‘돼지’ 라면서 자신은 먹을 것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학생들이 웃으면서 수업의 긴장이 풀리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자신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래를 잘 못하시는 교수님이신데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작년 유도회장이었지? 교수님 노래 진짜 못하는데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용기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학생들도 용기를 가지지 않을까 해서 연습 많이 했어”라고 하셨는데 이마에는 땀이 엄청 맺혀 계셨습니다. 그런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잠깐 자신감이 떨어진걸로 계속 제 스스로를 움아맸다고 생각을 하여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시간에 저는 질의응답처럼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저에게 궁금한 점 예를 들어 이름 학과 나이 등을 물어봐주시면 제가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손을 들며 저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 하였고 질문이 많아 지자 저는 ‘아 나를 궁금해 하는 학생들이 많구나’ 하고 자신감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학과 행사도 열심히 참여하고 후배들과 운동도 같이 하고 후배들에게 운동을 더 잘 알려주는 등 내 재능을 열심히 후배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후배에게 저는 열심히 가르쳐주고 착한 선배라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상태로 있기보단 다시 자신감을 올리도록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용기를 낼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배효린(사회복지전공)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교과목 : 키움과 나눔

*교수님 소개

-성함 : 이동현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2) 해당 교과목 선정 이유

작년에 직접 수업을 신청하면서 수강했었는데 직접 식물을 키우고 관찰하면서 다른 학과생들과 협동을 통해서 작물을 키워서 직접 수확한 것이 기억에 남았고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성장보고서를 쓰면서 전에 식물을 자라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일지를 쓰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3) 교과목의 특징

-식물을 심고 열린 작물들을 채취하는 활동

-직접 식물들을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활동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자라난 새싹들의 길이를 비교하면서 관찰하는 활동

-다 자란 식물들을 채취해서 직접 먹어보는 활동

-지금까지 식물을 관찰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쓰고 제출

4) 교과목을 통해 성장하거나 변화한 내용(전체 에세이의 50% 이상으로 구성)

처음에 이 교과목을 하기 전에는 무슨 식물을 심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상추, 당근, 갓 등 여러 가지 씨앗을 보여주시면서 다양한 식물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찰하는 활동을 하고 난 뒤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팀원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식물을 성장시키는 과정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도와주고 다른 수업에 지친 마음을 식물을 키우면서 힐링을 해주는 듯한 분위기와 식물을 키우면서 욕심을 버리는 마음과 인내심을 길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목이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우면서 단순히 씨앗을 심고 햇빛을 비추면서 물을 주는 것이 끝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씨앗을 뿌릴 때는 간격을 맞춰서 심고 영양분 재를 과도하게 뿌리지 않고 물을 주면서 습도와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키워야 하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무언가를 할 때는 과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해서 침착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식물을 키우면서 자라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다. 그래서 이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급하게 하는 성격을 줄 일 수 있게 도와주고 힐링을 주는 수업이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국제통상학과 2학년
본해나(92204690)

과목명: 영화감상과 비평 (2022년 1학기 수강)

교수님: 백민재

이 교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1학년 1학기 교양과목을 고르던 도중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호기심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에 대해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인상적으로 본 영상내용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것과 시청 후 느낀점을 적는다는 생각에 어느정도 부담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주로 10분~20분대에 단편영화를 시청하고 이후에 교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강의의 특징은 영화의 제목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장면과 소품에 상징, 은유, 비유, 작가의 의도 등을 알려주어 영화감상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화 내용들은 남북문제, 학교폭력, 사회적 약자 등 사회문제에 대해 다뤄졌습니다. 해설강의를 정리하여 어느정도 아는 지식과 언급되지 않았어도 영화 장면 중에서 주제에 맞게 해석하는 것,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영화를 비평하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자신의 느낀점과 감상이 아닌, 영화를 비평하는 데에서 장면마다 숨어 있는 의도들을 찾는 것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었으나 교수님께서 먼저 간단한 소개영상을 올려주시므로써 주제를 알고 보는 것이 어느정도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해설영상을 통해 더 깊이있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이후 다른 작품들을 감상할 때에도 제 스스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더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문제를 다룬 영화는 평소에 관심을 갖는 부분으로 감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화를 비평하면서 내용 전개 방식과 특정 동물이나 사물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서 작가의 창의성과 문학성에 감동했고 기존에 시청하면서 내용만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스스로도 비평하는 태도로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창작활동에도 적용하여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등을 은유 와 비유의 방법으로, 등장인물과 소재들의 선택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기존에 시청했던 작품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영화 작품들을 감상하는 저의 태도가 한껏 성장한데 감사드립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서윤재(사회복지학전공)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중국어 초급, 고급 : 원정 교수님

2. 해당 교과목 선정 이유

- 중국어를 배우기에 처음인 학생들은 두려움이 먼저 생기지만 교수님께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원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힘들며 자신 또한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면서 못해도 괜찮으니 천천히 실력이 향상되도록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3. 교과목의 특징

- 중국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을 쉽고 유연하게 학생들을 이끌고 진행하는 수업이어서 누구나 쉽게 중국어를 배우는데 부담감보다는 재미있게 중국어 수업을 하는 좋은 과목입니다. 중국에 관심이 있거나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처음인 학생들에게는 엄청나게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4. 교과목을 통해 성장하거나 변화한 내용

- 사실 중국어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으며 중국어 배울 시간에 영어를 배우겠다는 심리였지만 대학교를 들어와서 중국어 수업을 듣고 난 뒤부터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사라졌으며 중국어에 관한 관심이 생기면서 중국이란 나라에 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HSK에 관한 생각이 없었지만 고급반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으며 남은 학기들 동안 노력을 해서 HSK를 취득해보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어학 외에도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시며 접근하기 편하게 해주셔서 같이 수업을 청강하는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 원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많이 힘들어해서 외국인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내성적인 부분도 많이 보완되어서 어떠한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편한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어 수업, 원정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입학했던 당시의 많은 불안요소를 좋게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내적, 외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서 이번 년에도 졸업해도 금방 취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서이수(연극영화학과)

저를 성장시킨 교양과목은 박영근 교수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재수를 하며 입시 실패로 우울감이 굉장히 심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로, 사회에서 거절 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남들과 비교하는 건 제 일상이었고,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 여기며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에 행복이라는 감정보다는 우울한 감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우울한 상태는 학교 입학 후에도 이어졌고, 우울이 지배하는 제 삶은 많이 아팠습니다. 늘 행복을 갈구했고, 행복은 무엇인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영근 교수님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행복의 정의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연구 결과, 교수님의 경험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 하십니다. 여러 주치의 과정을 통해 행복에 대해 배우며 저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4학년에 재학 중이기에,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업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 마음을 대변해주시듯 교수님께서서는 10주차에서 직업을 통해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직업 만족도와, 일과 직업의 의미, 직업의 종류, 직업의 기능 등 전반적인 직업에 대하여 다루셨고, 제가 앞으로 직업을 통해 어떤 소명을 갖고 나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교수님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며,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의 고민이 비단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겪는 일반적인 상황 중 하나라고 하시고 이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의를 통해 공감과 위로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위로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아주 보통의 행복 중 <4가지 행복>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이고 두 번째는, 자율성 세 번째는, 의미와 목적 네 번째는 재미있는 일 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가 충족된다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가장 높은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우울함이 저를 지배하는 순간이 온다면 배운 것을 토대로 저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4가지가 충족되었는지 점검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채워가며 제 삶을 더 이상 우울함에 지배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에는 오롯이 저의 우울은 저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수업을 수강한 이후의 저는, 우울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며, 이를 잘 해결하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삶을 살며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강의를 해 주신 박영근 교수님께 감사함 마음을 전합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 과목

안태란(유아교육과)

나를 가장 성장시킨 과목은 자기 탐색과 성장 비전이다. 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열린 기초 교양 과목이다. 과목명과 같이 자신을 탐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목이다. 정해진 진도를 나가기도 수업의 주제를 설명해 주시고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주제와 관련된 검사를 해보거나 나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과목을 맡은 교수님은 학생 성장 교양 학부 소속 남현정 교수님으로 수업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돋보이시는 교수님이다.

수강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과목명을 보고 고등학교 때 하던 나와 거리가 먼 진로 수업 같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을 직접 들으며 다른 과목보다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었고, 수업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이 가치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지식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습득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질과 흥미, 적성과 같은 자아 탐색, 인생 가치관 확립 등에 중점을 둔 과목이라는 것이 가장 큰 교과목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듣기 보다 자신의 진로나 가치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예시로 테니지먼트 강점 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파악하고 수업 시간에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듣기도 한다. 또는 자신의 진로 희망을 국가 직무 능력표준 (NCS)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의 희망직무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내가 자기 탐색과 성장 비전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 내용으로는 첫째, 나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는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는 나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시간을 들여 생각해본 적이 없다. 수업 내용 중 테니지먼트 강점 검사와 통제 소재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며 내 내면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검사 결과 해석을 듣는 과정에서 나의 강점과 기질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중에는 내가 알고 있던 강점과 기질도 있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수업은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일상에서 흘려보냈던 수업 전후 자투리 시간이나 여유 시간을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변화를 만들었다.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가진 장점을 전공과 연관 지어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다. 장점을 보는 시각도 변화했지만, 더욱 많이 변화한 것은, 단점을 보는 시각이다, 이전에는 단점에 대해 생각하면 숨겨야 하거나 부끄러운 것,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내가 가진 단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잘 보완할 수 없는지, 장점으로 바꿀 수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나는 10년 뒤, 20년 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입학 전까지 가장 큰 목표는 “대학 입학” 이였고 입학이 확정된 이후로는 졸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며, 이 강의를 들으며 더는 이런 무계획한 방식이 나의 삶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다라트 강의 시간을 통해 가장 잘 느끼게 되었는데, 일상적인 목표부터 먼 미래에 해당하는 목표까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실제로 만다라트를 통해 계획을 세운 후 실천해 성공한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다. 졸업 전까지 대학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졸업 후 5년, 10년, 20년 후에 대해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 보았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 지금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더 잘 느낄 수 있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싶은지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92310932 양우진/간호학과

제가 선택한 과목은 러시아어 초급입니다. 러시아어 초급은 중부대에 재직중이신 르벤스끼흐 안젤라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입니다. 르벤스끼흐 안젤라 교수님은 러시아에서 직접 오신 원어민 교수님으로 중부대학교는 이러한 원어민 교수님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어 초급이라는 과목을 나를 성장시키는 과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언어 학습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사고방식을 체험하며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기 전에, 러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어를 조금씩 배우면서 러시아어를 통해 다양한 문화 측면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의 알파벳, 단어, 문장, 문법등을 통해 러시아 문화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었고 제가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시각과 사고 방식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문화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어 초급이라는 과목의 특징은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러시아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게 러시아어로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가며 교수님이 수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러시아어 수업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을 먼저 가르쳐주면서 러시아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앴습니다. 러시아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들을 러시아어로 배우면서 러시아어의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자 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러시아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감하는 능력이 발전하였습니다. 옛 말에는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러시아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배우고 탐구하므로써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관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어 과목에서 배운 단어와 문학작품, 관련 동영상들을 통해 러시아 역사와 예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키우며, 세계에 열린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어에 대한 공부는 제게 언어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재학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중, 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지 못한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면서 배움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낯선 알파벳과 어법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한 학습과 연습을 통해 러시아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면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도전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고 저를 다시 한번 발전 시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공부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신감을 키우게 될 수 있었습니다. 어색한 발음들이나 표현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망설임 없이 러시아어를 사용하였고 배우고자한 의지를 멈추지 않고 이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의지와 어려움들은 저를 새로운 환경에서의 자신감과 적응력을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도전을 무섭게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드리며 극복하는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 학습을 통해 문화의 이해와 개방성을 키웠으며 언어 능력의 성장과 도전 정신,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어를 배움으로써 한국어로 바라보는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언어로 세계와 소통하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새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어를 통해 배움이라는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저를 발전시키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 교과목 : 영화 속 장애 인권 감수성 / 교수 : 박영근 교수님 〉

유은비(물리치료학과)

‘영화 속 장애 인권 감수성’ 수업은 장애를 주제로 다룬 영화를 소개하고, 장애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원격 수업이다. 이 교과목은 인권과 영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꼭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이고,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이더라도 이 수업을 통해 ‘장애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라는 가볍지 않은 주제를 영화로 풀어내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재밌고 부담 없게 수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수업을 수강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추천한다.

‘영화 속 장애 인권 감수성’은 내가 수강한 교양 중 가장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이 울림을 많은 학생에게 전하고 싶어 이 교양과목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평소에 인권과 영화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장애에 대해 영화로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민할 것도 없이 내 수강 신청의 첫 타자로 담았다. 이 수업을 들으며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성장하였다. 내가 직접 수강한 다양한 교양 중 최고로 선정된 과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는 교양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생이 이왕 해야 하는 교양 수업 즐겁고 의미 있게 수업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원격이라는 점에만 혹해서 대충 영상을 틀어놓고 이 수업 시간을 그냥저냥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진심을 담아 이 과목의 진가를 소개하겠다!

이 교과목은 장애라는 주제를 영화로 배운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다. 요즘같이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요약된 액티스 영상을 선호한다. 이 교과목은 그런 대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이 교양은 내가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재밌는 영화가 매주 2개씩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수업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수업에선 영화 요약과 영화의 장면이 중간중간 나오고, 거기에 마치 라디오를 듣는 듯한 박영근 교수님의 나른한 목소리와 약간의 친근함까지! 완벽하다. 영화에 대한 소개와 리뷰가 끝나면 영화 요약본이 나오고 강의는 끝이 난다. 지치고 힘든 대학 생활에 이 수업은 수업이라기보단 꿀맛 같은 휴식 시간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즐거움뿐만 아니라 장애를 주제로 한 명작들을 감상하고 나면 가슴 한 켠이 따뜻해질 것이다. 다양한 장애 영화를 봄으로써 당신은 인권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짧은 듯 끝나지 않는 듯한 원격 수업. 하지만 ‘영화 속 장애 인권 감수성’ 수업을 수강한다면 다를 것이다. 다음 수강 신청 때는 꼭 이 교양을 수강하길 바란다.

이 교과목을 수강하며 가장 성장한 것은 장애에 대한 사고의 확장이다. 수업을 듣기 전의 나는 장애에 대해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살아왔다. 누구나 흔하게 들어봤을 법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또한 편견이 섞인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업을 듣고 난 뒤 나는 ‘장애는 다른 것이 아닌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쩌면 다르다는 말이 그들의 인생을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여 인간이기 앞서 ‘장애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다르다.’라는 말을 통해 오히려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형태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의심해봐야 한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모두 평범하고, 소중하며 특별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닌 같은 인간이기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이기에 배려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두 번째 성장은 장애에 대한 지식의 확장이다. 이 교과목을 수강하며 매시간 새로운 장애의 종류를 배웠고, ‘장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중간 레포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며 수많은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 전의 나는 장애 인권에 대해 관심도만 높았을 뿐 장애에 대한 지식은 턱없이 부족했다. ‘장애’에 대해 아는 거라곤 장애는 지체 장애와 지적 장애로 분류되고 몇몇 장애의 이름 정도였다. 장애 인권에 관심이 많다고 하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듣고 난 뒤 장애

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애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수업을 들으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다. 바로 ‘자폐 스펙트럼’이다. 그들의 모습이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이 개개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로 다가왔고, 계속해서 관심이 갔다. 중간 레포트를 작성할 때도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다. 이 교양을 수강하던 당시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흥행하고 있었다. 이 드라마로 인해 자폐 스펙트럼이 세상에 알려졌고, 전보다 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고,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에 대한 영향력의 장점과 부작용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라는 장점과 실제로는 ‘저기능 자폐 스펙트럼’의 비율이 높기에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작성하며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양 수업을 통해 새롭게 관심을 가진 주제가 얻었고, 그 주제를 가지고 중간 레포트를 작성하여 내가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정말 많이 성장하였다.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새로운 관심 주제가 생겼다는 것이 흥미롭고, 새로운 주제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보며 심층적인 사고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준 ‘영화 속 장애 인권 감수성’ 수업은 나를 성장시켰기에 큰 의미로 다가왔다.

세 번째는 인식의 개선이다. 나는 이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인권에 대해 남들보다 관심이 많고, 편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자부하였고, 장애인에 대해 ‘모지리, 어딘가 부족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하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였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나도 편견이 존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느꼈다. 입으로는 장애인을 비하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나 또한 ‘장애인’을 생각했을 때 나의 머리 깊숙이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들은 욕하면서 나도 내면 깊숙이 그런 마음이 존재했다는 것이 모순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나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장애 인권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점차 바꿔나갔다. 내가 전에 ‘장애인’을 떠올렸을 때와 현재 ‘장애인’을 떠올릴 때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현재는 편견을 버리고 떠올렸을 때의 모습이 한정적이지 않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모두가 다 같은 인간이고 모두가 각자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 수업을 들으며 세상에 사람을 분류하고 나뉘는 것이 아닌 모두 하나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것이 수업이 줄 수 있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강하는 학생 중 수업을 감명 깊게 본 몇몇 학생의 생각이 발전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다. 나는 이 수업이 그랬다.

이 수업을 들으며 세상에 장애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작가와 감독들이 인권 영화를 만들기 위해 왜 그렇게 노력을 쏟아부었을까. 세상에 존재하는 인권에 대한 창작물이 우리가 장애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계속해서 세상이 바뀌려고 노력하는 자가 끊기지 않고 있다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업은 장애 인권에 배우고 더 나아가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교양이다.

내가 생각한 이 교양과목의 가장 큰 장점은 울림을 준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영화라는 창작물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환호하고, 박장대소를 하며 회로애락의 감정을 느낀다. 아무런 감정의 물결이 없이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닌 영화를 보며 느낄 수 있는 그 울림이 ‘장애 인권’에 대해 진정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었고, 진중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며 나를 성장시켰다. 수업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울림으로 인해 더 나아가 영화를 직접 찾아서 감상하고 장애에 더 알아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과목이다. 이 교양과목을 크게 칭찬하고 격하게 추천하고 싶다. 이 글을 읽고 교양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대회

반려동물학부 동물사양학전공 이나연

저를 성장시킨 교양과목으로 [디지털 시대의 감정 커뮤니케이션]을 선정하겠습니다. 해당 과목은 전미옥 교수님의 강의로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기 위한 세대간 해결방법을 모색해 대학생들은 물론 향후 가정과 직업영역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감정 커뮤니케이션의 각 감정별 종류, 표현방법을 소개해주사고 감정을 통해 자신을 잘 이해하고 표출함으로써 나-타인-우리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소통을 증진시키는 대화 방법을 검토하고 익히는 데 초점두시며 강의를 해주십니다. 해당 과목은 원격강의로 자기주도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전미옥 교수님께서서는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소속이시며 언론학, 문학사, 진로교육, 교양 기초 교육, 글쓰기/말하기 등을 전공 및 연구 분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해당 과목을 저를 성장시킨 교양과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교수님의 강의 방식을 존경하고 강의 내용을 듣고 과제를 하며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해당 과목은 원격강의로 학생 스스로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제가 해당 강의를 수강한 이유는 원격강의로써 자유롭다라는 메리트와 소통을 주제로 하는 강의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서는 원격강의라 토론방, 수시 대체 과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자기주도 학습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멋지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전미옥 교수님께서서는 과제에 대한 공지를 lms로 해주시고 마감일에 맞춰 마감되기 전에 제출하라고 격려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전 과제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들도 공지에 함께 작성 해주십니다. 공지를 보고 다음 과제에는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윤곽이 잡혔고 조금 더 수월하게 과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동아리에서 총무로 공지를 해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공지해주는 것을 보고 저렇게 공지를 해주면 동아리 부원들에게도 조금 더 정보 전달을 잘할 수 있겠다고 교수님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물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현재까지 회노에라톡 1,2차 과제, 감사편지, 칭찬편지 총 4가지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각각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저를 관찰하고 제가 처한 상황을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칭찬편지 과제는 50가지 테마로 스스로를 칭찬 하는 것입니다. 과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이러한 50가지의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장점이 꽤나 많구나,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 스스로 사랑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 스스로를 사랑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를 하는데 그 일기에 제가 하루동안 잘한점에 대해서 칭찬 적어도 한가지를 적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까지 일기를 쓸때는 하루동안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에 집중해서 썼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점도 함께 작성하며 뿌듯함도 느끼고 내일도 열심히 해서 성장해 장점을 늘려야겠다라는 동기 부여가 되려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일기를 쓰며 실천 중입니다.

그리고 감사편지는 가족을 제외하고 선배, 선생님, 스승 등 나에게 힘이 되어준, 나의 멘토 역할을 하는 분에게 감사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23년 인생 중 저에게 가장 크게 느껴졌던 시기이자 그 시기로 인해 가장 많은 변화를 할 수 있었던 시기가 동아리 회장을 할 시절입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성장할 수 있던 기회가 회장이라는 직책이라고 생각해 회장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훈련을 알려준 선배에게 감사 편지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멘토에게 감사편지를 써보는건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편지를 누구에게 쓸지 고민하면서 여러 사람을 떠올렸는데 이 활동 전에는 '인생은 혼자다.' 라는 생각이 강했고 누군가 나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보다 저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은 많았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이나 편지를 쓴 선배에

게도 감사함을 너무 표현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제는 감사한 사람들, 가족에게 종종 먼저 연락하고 소통, 표현하면서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과제였습니다.

회로애락 1차 과제는 현재 고민중인 감정 상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그 문제 상황을 진술합니다. 저는 울'적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모이고, 밥먹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과 현재는 떨어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울적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때는 우리 과의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것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동기 여럿과 친했는데 점점 학기가 지나면서 동아리에 열중하게되고 자연스럽게 같은 동아리 원인 선배, 동기와만 교류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친했던 동기들이 모두 사라지니 저는 거의 혼자였고 혼자 수업들으러 가고 혼자 집에서 밥먹고 했습니다. 제 23년 인생에서 항상 친구라는 존재가 없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기들이 나가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회장으로서는 제가 잘한게 없는 것 같고 동기들이 나간 것도 제 책임도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친하다고 느꼈던 동기들이 그 사건 하나로 멀어지게 되니 대인관계가 부질없구나 싶기도 해서 대인관계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나 싶었고 당시 가정형편도 여유롭지 못하고 저도 회장을 하느라 알바를 못해 항상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사람들과도 교류를 하려면 돈을 써야 하니 돈도 없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 더 혼자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울적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회로애락 감정 발산 극복 에세이 1차 과제입니다. 1차 과제로 저의 현재 감정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었고 저의 감정상태를 알고나니 그저 울적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고 내가 지금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하면서 그러면 대인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쌓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저의 행동이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감정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통해 주변인들과의 소통과 대인 관계가 중요하구나를 다시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깨닫고 'Dog First Class'라는 동아리 속 또다른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의미는 개가 먼저인 모임으로 1등석을 노리자는 의미입니다. 5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전체 부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들어온 후배들에게 훈련을 알려주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어 열심히 살아가보려고 노력중입니다. 현재 저의 감정 상태는 대부분 기쁜 상태인 것 같습니다. 3월부터 핸드폰으로 일기를 쓰고있었습니다. 글로 당일 있었던 일들을 적 그 하루의 기분을 나타내는 표정을 선택할 수 있는 어플을 이용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3월에는 우는 표정, 무표정이나 기력이 없는 표정이 많았는데 현재는 항상 웃지는 못하지만 웃고 있거나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 뒤편에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늘어나 함께 즐거운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진로는 아직 정하지 못해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럴 때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기나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 그들에게 이야기하니 불안한 마음도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2차 과제는 1차 과제의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나의 노력과 결과물을 작성하는 것 입니다. 2차 과제를 작성하면서 저의 노력을 글로 적어보면서 더 객관적이게 이 상황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나가고 계속해서 3월까지 혼자 생활하고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울적하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있어 더욱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기에는 사람의 이중성과 악랄하고 간사하다는 느껴 저는 이제 평생 사람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세 가지 계기를 통해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 삶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인 관계를 저버리는 것은 나 스스로 혼자가 좋다고 생각했던 나지만 꽤 오랫동안 울적함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의 감정도 큰 영향을 미쳤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인 관계를 완전히 손 놓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인 관계로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때는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습니다.

3월 개강과 현재의 저를 비교하면 꽤나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

디지털 시대의 감정 커뮤니케이션] 강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알려준 해당 강의를 듣기로 결정한 것을 굉장히 만족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교양 과목입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 중국어 초급 - 여정남 교수님



학과	항공서비스학전공
학번	92001763
학년	4학년
이름	이수연



대학 생활 중 제게 승무원이라는 꿈을 위해 노력을 하게 해준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교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교과목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 내용을 쓰기 이전에 교과목과 교수님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학생성장 교양학부 소속이신 여정남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공부하고 싶도록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주셨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녹화 강의를 올리시는 대신 줌 수업을 통해 진행하셨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초적인 중국어 회화를 배우는 수업으로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간단한 본문 읽기 등 말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시험 또한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비대면 시험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이 교과목은 교수님의 지도하에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교수님의 꼼꼼하신 성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교재: 신개념 중국어(1)를 통해 진행되었고 녹음 과제와 노트필기 과제가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의 녹음 과제를 통해 중국어 회화 실력을 키울 수 있었고 한어 병음도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성장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교양 과목 중 중국어 초급이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해주었던 과목이기에입니다. 다양한 어학 능력이 요구되는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2외국어에 대한 막연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준비가 안 되었다는 핑계로 미루고만 있던 와중 중국어 초급이라는 과목을 듣고 나서 HSK 자격증에 도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기초적인 회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과 과제를 통한 꾸준한 반복으로 중국어에 대한 흥미가 생겨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A+라는 성적을 받게 되었고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반복적인 학습으로 이루어낸 A+라는 성적이 값지고 뿌듯했습니다. 더 공부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가 중강 후 고등학교 때부터 도전해보고 싶었던 HSK 자격증을 방학 동안 취득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학원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이루고 싶어 인터넷 강의와 모의고사 문제집을 활용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어휘학습을 강조하였고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단어 외우기에 집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아쉽게도 20점이 부족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보완을 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 달간의 도전 끝에 HSK 4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루어 낸 결과물이라 더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처음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친구들과 술자리에 가고, 드라마 보기 등 미래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현재 내가 재밌는 일들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 교양과목을 통해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목표를 이루게 되었고 단순히 중국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목표를 세웠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걱정을 할 시간에 목표를 위한 일을 하고 후회 없을 만큼 노력합니다. 혹여나 이루지 못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도전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번 계획한 목표를 이루고 나니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겨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공모전, 토익시험 등에 임하고 현재는 토익스피킹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힘들더라도 성공의 결실을 맺었을 때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인 인간 동기 욕구의 5단계에서도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장 고차원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5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멋있고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놀고 싶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 절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중국어 초급 교과목으로 얻은 경험과 성취를 통해 졸업을 앞두고 최종 목표인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교양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있습니다. 저는 그 중 중국어 초급 교과목을 수강 후 취업에 도움 되는 자격증과 더불어 성숙한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교양과목을 학점 채우려고 듣기보다는 자신이 해보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중부대학교에 재학하는 4년 동안 더욱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부대학교의 다양한 교양 교과목을 발판 삼아 자신이 꿈꾸던 미래를 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 성장이야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임지현(스마트IT 전공)

생활 속 건축의 이해라는 과목을 담당하시는 남윤철 교수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목 이름을 보다시피 건축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축의 내부, 외부만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교수님께서 직접 일상 속 생활과 연관지어 수업하시는 말씀에 더욱 집중이 되는 수업입니다. 이 과목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활 속 건축에 대해 호기심이 먼저 생긴 것입니다. 외부는 화려하고 시끄럽지만 반대로 내부는 고요하면서 아름다운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외부, 내부의 형태가 다른 건축물들과 달리 완전 신기한 모습의 형태에서도 흥미가 생겨 이 수업을 듣고 난 후 건축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과목의 특징은 기본 개념을 배울 수 있으며, 제가 궁금해 한 형태와 공간과 장소에 대해 이론과 실례를 배우며, 건축의 미적인 표현과 기술적인 측면을 함께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더욱 건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게 서있는 건축 정도로 인식이 되었던 과거에 나에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난 후, 이 건축물의 인접면과 인도와 도로의 길이 등 어느 방향에서 생활하는 것이 좀 더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건축의 본질과 이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판단력이 생겼으며, 건축에만 관심이 생겼지만 건축가의 윤리적인 태도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건축적 사고력과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 수업을 듣기 전과 후의 확실한 차이가 있었기에 저는 더욱 이 수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 건축에 대한 존중을 하게 되었으며, 수업 중 현장 답사를 하게 되는 팀플을 주어진 데 그것의 주제는 자신의 학과 연관된 건축물에 대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전공인 스마트 IT에 대해 다양한 건축물을 찾아 보았는데 이 찾는 경험과 직접 현장 답사한 덕에 다양하고 신기한 건축물에 대해 지식이 생겼으며 느낀점이 저도 언젠가는 기존 학과인 스마트IT를 이용하여 설계 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과학과 건축을 연관하여 만든 건축은 신기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졌고, 여러 방면으로 건축에 대해 지식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많이 변화를 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유연성과 다양성에 대해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유연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았던 것인데 이 수업을 듣고 난 후 건축의 의미는 알면 알 수록 어렵지만 호기심을 향상시키는 그런 매력인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스빈다. 건축과 스마트 IT에 많은 접점이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기존 과학과 건축은 많이 소개 되어 신기하진 않았지만 직접 찾아보니 건축과 일상 생활은 밀접하기에 건축에 대해 이해하면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를 바꾼 교양과목으로 '자기탐색과 성장비전'의 서경화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해당 교과목을 선정한 이유는 고등학교를 재학중이던 시절 학교 도서관 근처 복도를 지나갈 때면 벽에 항상 한 줄의 짧은 글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항상 그 글들을 읽어보곤 했는데 졸업한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날 읽은 한권의 책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사실 책을 잘 읽는 편도 아니었지만 막연히 나중에 나도 그런 책을 발견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입학해 들은 한 강의에서 저 문장이 제 안에서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식사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일부부터 나의 앞으로의 인생 전반에 걸친 중요한 일들까지 즉흥적으로 결정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었지? 선택 후에 남는 것은 항상 후회였습니다. 대학교 초반 당시에 처음 오는 지역에 전부 처음 보는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며 지내던 중에 '자기탐색과 성장비전'이라는 수업에서 교수님이 "너희의 소중한 20대 초반을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에 너희들이 뭔가를 얻어가고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고 남들이 듣기에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저에게는 그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이후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대학생활의 목표를 정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미래의 언제 무엇을 하고 싶다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벽에서 읽었던 문구가 뜻하는 바는 어느 날 읽은 책이 기적처럼 나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아닌 그 책을 읽은 내가 바뀌어서 직접 자신의 인생을 기적처럼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을 바꾼 것은 어느 날 읽은 한 권의 책이 아닌 핵심교양으로 신청하여 듣게 된 강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기탐색과 성장비전'이라는 강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과목의 특징은 1학기에만 열리고 2학기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을 처음 하는 1학년 1학기 학교에 막 들어온 신입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업계획서에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대학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기질과 흥미, 적성들에 대해 자아 탐색을 거쳐 자아 정체감, 자존감,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이끈다. 대학 생활 동안의 목표와 인생 로드맵을 수립해 확고한 삶의 가치관과 직업 가치관을 찾도록 이끄는 등 자신의 성장과 비전을 도모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앞으로의 대학 생활 4년 동안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와 진로에 대해 깊게 생각한다는 것이 지금에서는 무의미한 일 같고 너무 먼 미래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과 나중에 가서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학 생활 초반인 지금에서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금에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교과목을 통해 성장하거나 변화한 것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 소중한 20대 초반을 그저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고 주어진 과제를 하고 적당히 공부해 적당한 성적을 받고 졸업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 생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내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한 이후에도 추억이든 자격증이든 나에게 무언가 남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할지 생각했을 때 떠오른 활동은 바로 알바였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알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전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알바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알바 하는 것을 미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바를 하며 기숙사 생활비를 벌며 자신의 소비에 대한 책임을 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사이트와 앱에서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조건에 맞는 알바 자리에 여러번 이력서를 넣었지만 답장이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꾸 안될까? 그냥 하지말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수 차례 들었지만 이렇게 포기하고 도망가면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다음번에 도전할 때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바 자리를 구하던 중 드디어 주말 알바를 구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알바의 감상은 나는 정말 온

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만 있다가 그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시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니 정말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군상이 존재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초반에는 알바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실수를 할 때마다 나는 왜 이런거 하나 잘하지 못할까하는 생각에 자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들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손에 익어 실수를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혹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 방법을 찾아 수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자책하면서 또 실수를 할까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실수를 한 원인을 찾은 후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차츰 알바 하러 나가는 것에 익숙해져가고 있던 중에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만 알바를 하는만큼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내가 직접 일하여 번 돈이라고 생각하니 스스로에게 정말로 큰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면의 자신감이 생기니 그 결과는 외면에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일을 진행해야 할 때도 내가 이것도 한 사람인데 이걸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알바를 한다는 목표를 이뤘으니 다음 목표를 정하기 위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 입니다. 나중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간호사로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어입니다. 토익 점수가 취업할 때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전공지식을 공부함과 동시에 토익 공부도 함께 열심히 공부하여 취업 준비를 할 때쯤 토익점수를 900점 이상 받고 졸업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저의 공부 방법은 남이 옆에서 감시하해야 집중을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때는 옆에서 어머니나 학원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지만 성인이 된 지금에서는 옆에서 제 행동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전화영어를 신청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전화영어를 통해 직접 말을 내뱉으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1학년 여름 방학때는 토익 공부로 우선 단어부터 외울 것입니다. 저는 영어가 기초가 정말 부족하므로 단어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방학 중에도 알바를 해서 돈을 조금조금 모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토익학원을 다녀 토익을 더욱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이며 전화영어도 신청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아직 대학교 1학년이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과에서 하는 활동도 많아지고 더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는 뭘 할 때 뿌듯함을 느끼는지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나가는 시간을 가져나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수업

경찰행정학전공 / 91903720 / 장예지

과목명	글로벌시대의 젠더와 커뮤니케이션
수강 학기	2021-2학기
교수님 성함	김경훈 교수님



교수님의 수업 진행 방법

-강의

수업은 늘 정시에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었으나 10여 분 정도 일찍 끝내주셨고, 1시간 50분의 시간 동안 최근에 이슈가 된 사례를 다룬 뉴스 기사 브리핑과 교수님의 5분 스피치로 수업을 시작하셨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의 이야기나 사건을 다룬 영상을 다같이 시청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수업 교재 및 자료

'젠더와 사회'라는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mbc '서프라이즈' 영상이나 사람의 심리를 다룬 실험 영상도 수업에 이용하셨습니다.

-과제

학생들의 부담 감경을 위해 과제는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교과목을 통해 성장하거나 변화한 내용

이 과목을 접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젠더 문제에 대해 관심은 조금 있었으나 어렵다고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마냥 어렵기만 한 문제는 아니었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1. 성별과 사회적 역할의 다양성 이해: 이 수업을 통해 성별은 이분법적인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인 시각으로 성별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더 중요시하며 다른 개인의 성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사회적 편견과 성차별 인식: 이 수업을 통해 사회적 편견과 성차별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대와 역할 분담, 성적 지향성에 대한 편견 등이 사회의 구조적인 양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개인들이 제한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3. 외모 중심의 사회 문제 인식: 이 수업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외모 중심의 가치와 이상에 대한 열풍이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외모에 기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압력과 불안, 자아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4. 포용과 다양성의 중요성: 이 수업을 통해 포용과 다양성이 왜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개인은 성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꿈을 키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성별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사회는 모든 개인이 평등한 기회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께 하고 싶은 말

젠더 수업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은 제게 많은 통찰력과 인식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열정과 지식으로 젠더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은 제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젠더 평등과 포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과 이해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와 지도는 저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수님의 멘토링과 가르침을 따르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지구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성장시킨 교양과목 에세이

경찰경호학전공 장은성

1) 교과목 및 교수님 소개

알기쉬운민간경비제도 수업을 진행하신 성준혁 교수님과 교과목을 소개합니다.

우선 성준혁교수님께서서는 전공분야로는 안보학 그리고 행정학을 전공하셨으며, 연구실적으로는 북한 인민보안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 민간경비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코로나 19와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등에대해서 연구하셨습니다.

알기쉬운민간경비제도라는 교과목은 2022년도 2학기에 자유교양 교과목으로 수강하였고, 이 수업은 민간경비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실질적인 사회 안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사회안전제도에 적실성을 직접 분석해보면서 제도의 장단점 분석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민간경비제도의 현실적인 적합성을 검토하여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직접 연구하고 도출해보므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함양과 함께 통찰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간에 과제로 진행했던 민간경비업종 또는 공경비 업종의 현장 실무자의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부분의 상당수를 알고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교수님의 수업방향성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과제가되었던 것 같습니다.

2) 해당 교과목 선정 이유

알기쉬운민간경비제도라는 교과목을 선정하게 된 큰 이유는 제가 들었던 수많은 교양 과목들 중에서도 가장 '교양'과목이라는 의미와 일치했다고 생각하고, 이 교과목을 통해 제가 가장 전문적인 지식면은 물론 다방면에서 성장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양이라는 교과목은 그 교과목이 추구하는 분야에서의 학문과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단순 수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생활함에 있어 폭넓은 지식, 적응능력까지 키워주는 것이 교양 교과목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교과목이 제 교양 교과목에대한 모토를 모두 충족시켜 주었고, 교과목을 보게되면 특정 학과에 대한 전공과목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직접 들어본 결과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 추천하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3) 교과목의 특징

해당 교과목은 원격강의로 이루어 졌으며 총 1주차에 걸쳐서, 1회의 실습 과제와, 1회의 시험평가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습 과제의 경우 현장에 종사하고있는 민간경비 또는 공경비의 관련 종사자와 직접 만나 인터뷰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과제입니다.

알기쉬운 민간경비제도라는 교과목의 이름과 같이 알기 쉽고 재밌게 강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중간에 교수님이 과제를 수업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주시고 점검해주시어 해결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민간경비라는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국가안보와 사회적인 문제점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살아가는데에도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4) 교과목을 통해 성장하거나 변화한 내용

저는 해당 교과목을 통해서 미흡했던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입지나 적응 능력등이 성장하고 많은 부분 좋은 영향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경찰경호학전공의 제 전공분야에서 이 수업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성장시키고,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였습니다.

수업 내용 중에서 관련업 종사자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제는 저에게 사실 처음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공분야이기하나 아직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유사직종이었기에, 해당 인터뷰 대상자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야 할지 상당히 막막하였습니다.

허나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으로는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다가갈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내용의 틀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해 주셨습니다.

강의를 잘 듣고 정리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해보니 제 잠재되어있던 능력과 함께 상당히 성공적인 내용과 과정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전공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습득하는 것 뿐만아니라, 사람과의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대화를 이끌어가고 대상에 따라 알맞게 상담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대화를 먼저 이끌어나가기 어려워하는 제 자신이 처음 마주하게 된 항만 청원경찰분과 크고 작은 농담도 주고 받아가며 편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서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되돌아 본 결과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고자 노력하셨고, 그 과정은 틀에 잡힌 수업내용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항목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제 자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효과와 파급력을 느낀 저는 이후 진행되는 활동과 많은 대외 활동

속에서도 제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끼고, 더불어서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라는 것은 정해진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낸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제가 진행하고 배웠던 인터뷰라는 것은 매우 달랐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리더의 상으로써 리더십을 기르는데에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꼈던 대화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에 대해서 단번에 캐치하고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인터뷰를 형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 스몰토크 등을 활용하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최상의 답변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소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기쉬운민간경비제도 제목의 해당교과목은 관련분야 전공지식은 알기쉽고, 재밌게 배운 것은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교양'이라는 교과목의 방향성을 충족하고 제 자신이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으로서 변화하는데에 큰 도움을 받은 교과목이었다고 말하고 싶고, 추천하고 싶으며,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